

해군 가이드북 시리즈 ①



간 단하고
편 하게 읽을 수 있는
海 군

간단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해군

발행처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초판 2016년 3월 2일
개정판 2018년 12월 24일
총책임 (초판) 유명식 (개정판) 최태복
기획 (초판) 최태복 (개정판) 김태호
편집위원 (초판) 차재석, 장재현, 김학래, 김태현, 송영조
(개정판) 조영상, 김수민, 고재석, 권진구, 김학래, 봉효중, 김지수

디자인 (주)삼일기획
삼화 이동현

주소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209호
홈페이지 www.navy.mil.kr [대한민국해군]

Copyright © 2018, 대한민국해군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시려면 대한민국해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책을 펴내며...

해군은 바다를 근간으로 해 다양한 군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군만의 독특한 특성과 문화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단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해군가이드북」은 해군으로 안내하는 향해사가 될 것입니다. 이 간편해 책자와 함께 해군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해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최태복**

CONTENTS

Chapter 01

해군만의 특별한 문화·이야기

01	해군 함정을 위한 다양한 의식 행사	010
02	군함은 곧 국가다	014
03	영송병, 함정 방문자에 대한 최고 예우	016
04	해군은 특별한 손님이 오면 포를 쏜다?	018
05	출항 5분전! 떠나버린 군함	020
06	기능성 웨어의 원조, 해군 복장	022
07	물 한 바가지의 미학	028
08	잠들지 않는 군함, 3직제 당직	030
09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절대이자	032
10	신사의 품격, 사관실	034
11	함교다녀오겠습니다. 김수병! 모자 챙겨가야지!	036
12	함정생활 맞춤형 경례문화	038
13	해군이 가지는 또 다른 눈 'Seaman's Eye'	040
14	함정의 '성역', 예식갑판	042
15	용왕님 적도를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적도통과제	044
16	여군도 함정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046
17	숫자 '4'가 들어간 함정은 없다. 함정의 금기사항	048
18	잠수함 스테이크! 심해수 시음! 최대작전심도 기념와인!	050
19	털보 해군! 누가 더 자랄까? 잠수함 승조원의 수염 기르기	054
20	나도 이제 날개 단다. 항공 승조원들의 wing 세례모니	056
21	장성은 제독, 대령은 캡틴, 생도는 미드쉽맨!	058
22	해군만의 금줄 계급장, 견장과 수장	061
23	해상마일은 1,609미터가 아닌 1,852미터	062

Chapter 02

해군 함정·항공기! 어렵지 않아요

01	함정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066
02	함정의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068
03	함정의 이름은 어떻게 정하나요?	072
04	함정의 외관 색은 왜 회색을 사용하나요?	074
05	함정이 녹슬지 않는 비법은 무엇인가요?	076
06	함정은 얼마나 속력을 낼 수 있나요?	078
07	함정은 해상에서 연료를 받을 수 있나요?	080
08	함정은 어떻게 부두에 정박할 수 있나요?	082
09	함정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084
10	함정에도 브레이크가 있나요?	085
11	함정은 왜 견시를 운영하나요?	086
12	잠수함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088
13	잠수함이 잠항할 수 있는 수심은 얼마나 깊나요?	090
14	디젤-전기추진, AIP,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092
15	잠수함은 수중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나요?	096
16	해군의 항공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098
17	하늘을 나는 항공기가 물 속 잠수함을 어떻게 찾나요?	100

CONTENTS

Chapter 03

대한민국 해군이 그려온 항적 걸어온 항로

01 대한민국 해군·해병대의 탄생	104
02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	108
03 대한민국 해군이 직접 만든 최초 군함, 최초의 항공기	110
04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여군 이야기	112
05 6·25 전쟁 시 해군·해병대의 활약	114
06 대한민국 해군·해병대의 월남 파병	120
07 바다 위의 군사분계선 NLL	123
08 북한의 끊이지 않는 도발과 응징	127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제1연평해전	134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제2연평해전	135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청해전	136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천안함 피격사건	137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연평도 포격도발	138
09 전 세계를 누비는 해군	139
10 국가전략부대, 해군 잠수함 부대	144
11 해군특수부대, UDT/SEAL과 SSU	146
12 국민을 위한 헌신, 해상사고 탐색구조작전	149
1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해군 관함식	151
14 21세기 창해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154

Chapter 04

해군이 되고 싶습니다

01 해군 수병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160
02 기술 부사관인 해군 부사관, 어떻게 되나요?	164
03 해군장교가 되려면?	166

Chapter 05

해군의 임무 & 목표, 편성 & 병력, 작전해역

01 임무 & 목표	170
02 편성 & 병력	171
03 전력 & 작전해역	172
04 해군 전력과 작전 : 인포그래픽으로 보기	173

01

해군만의 특별한 문화·이야기

- 01 해군 함정을 위한 다양한 의식 행사
- 02 군함은 곧 국가다
- 03 영송병, 함정 방문자에 대한 최고 예우
- 04 해군은 특별한 손님이 오면 포를 쏜다?
- 05 출항 5분전! 떠나버린 군함
- 06 기능성 웨어의 원조, 해군 복장
- 07 물 한 바가지의 미학
- 08 잠들지 않는 군함, 3직제 당직
- 09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절대일자
- 10 신사의 품격, 사관실
- 11 함교다녀오겠습니다. 김수병! 모자 챙겨가야지!
- 12 함정생활 맞춤형 경례문화
- 13 해군이 가지는 또 다른 눈 'Seaman's Eye'
- 14 함정의 '성역', 예식갑판
- 15 용왕님 적도를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적도통과제
- 16 여군도 함정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 17 숫자 '4'가 들어간 함정은 없다. 함정의 금기사항
- 18 잠수함 스테이크! 심해수 시음! 최대작전심도 기념외인!
- 19 털보 해군! 누가 더 지랄까? 잠수함 승조원의 수염 기르기
- 20 나도 이제 날개 단다, 항공 승조원들의 wing 세레모니
- 21 장성은 제독, 대령은 캡틴, 생도는 미드ship맨
- 22 해군만의 금줄 계급장, 견장과 수장
- 23 해상마일은 1,609미터가 아닌 1,852미터

「간단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해군」 Chapter 01에서는 해군만의 특별한 문화를 소개하고 그 유래와 의미를 이야기 형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01 해군 함정을 위한 다양한 의식 행사

함정의 뗏줄을 자르다, 진수식

- 진수식은 함정 건조 시 선체를 완성하여 처음 물에 띄울 때 거행되는 의식으로 크게 함명 선포와 함정 진수 행사로 이루어집니다. 진수식은 기원전 2100년 즈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성직자가 관장하는 일종의 종교행사였으나 19세기 초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최초로 영국 군함 진수식을 주관한 이후 성직자 대신 여성이 의식을 이끌어가는 전통이 정립되었습니다. 이때 주관하는 여성을 '대모'라 부르는데, 대모가 손도끼로 진수줄(테이프)을 절단하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의 뗏줄을 자르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진수식의 절차와 방법은 나라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영국과 유사하게 삼페인 병을 함정에 부딪쳐 깨뜨리고, 1인의 진수자가 도끼로 테이프를 절단한 뒤 볼(Ball)을 터뜨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삼페인 병을 함정에 부딪쳐 깨뜨리는 것은 고대 바이킹들이 배를 진수할 때 바다의 신에게 순결한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것입니다.

물론 진수식을 했다고 함정이 해군 소속으로 바로 실전에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수식이 끝나면 함정을 시험 운용하는 승조원들이 편성돼 정상적인 항해가 가능한지 평가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함정이 무사히 테스트를 통과하면 해군은 조선소로부터 함정을 인수받고 해군 군항에서 취역식을 가지게 됩니다.



함정의 진수식을 거행하는 모습

정식으로 해군이 되다, 취역식

- 취역식이란 함정이 건조되어 시험항해와 예비훈련을 마치고 정식으로 해군의 전투 세력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사입니다. 이때 함정은 해군 '함정목록(Fleet List)'에 등록되고 앞으로 평생 생사고락을 같이할 취역기를 게양합니다. 해군의 함정을 자세히 보면 마스트 꼭대기에 기다란 삼각근 형태의 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군함이 취역할 때마다 게양하게 되는 취역기입니다. 이 취역기는 함정이 퇴역하거나 침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잠수함은 게양하기 마땅한 마스트가 없기에 취역기를 함내에 고이 보관합니다.



취역기의 유래

- 17세기 유럽의 해상 주도권을 놓고 영국과 다투던 네덜란드 함대 총사령관 트럼프 제독은 함대의 모든 함선 마스트에 '영국 함대를 쓸어버리겠다'는 의미로 빗자루를 거꾸로 매달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영국 함대의 블레이크 제독은 함선의 마스트에 말채찍을 달게 했는데, 오만한 네덜란드 함대를 말채찍으로 응징하겠다는 표현이었죠.

전투에서는 영국 해군이 승리했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영국 해군의 함정들은 말채찍 형태인 기다란 삼각근을 마스트에 게양하고 다녔습니다. 이 삼각근이 전 세계 해군 함정들에 퍼져나가며 취역기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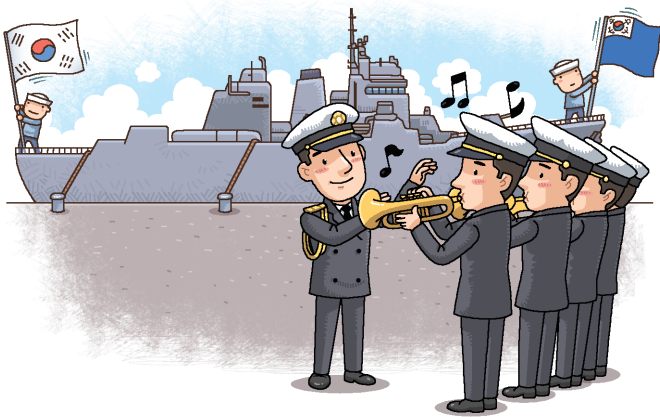


함정의 취역식을 거행하는 모습

전역식에서 취역기를 내리는 모습

해군에서 은퇴하다, 전역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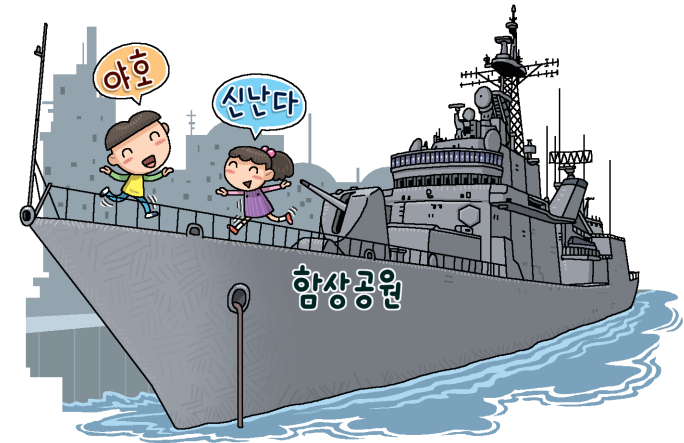
- 함정이 모든 임무를 마치고 현역을 떠나게 되면 전역식을 치릅니다. 함정의 은퇴 시기는 선제 노후도에 따라 결정되지만, 보통 건조된 지 30년이 지나면 '은퇴'를 하게 됩니다. 함정의 전역식에는 은퇴하는 함정의 역대 함장들을 비롯한 예비역들을 초청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는 수십여 년간 장병들과 함께 바다를 누비며 동고동락한 함정을 명예롭게 떠나보내기 위함입니다. 전역식은 함정이 지금까지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 것을 기념하고 그 노고를 치하하며 갖추는 최고의 예우이기 때문에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집니다. 취역기, 국기, 해군기를 군악대의 국가연주에 맞춰 일제히 강하하면 승조원 교대 즉, 원 승조원이 내리고 예비함대 승조원이 편승함으로써 식을 마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전역한 군함의 노후 생활은?

- 전역한 군함은 예비역 함정과 퇴역 함정으로 분류됩니다. 예비역 함정은 통상 8전투훈련단에서 훈련함으로 관리하며, 전시에는 재취역 할 수도 있습니다. 퇴역한 군함 역시 다양한 형태의 노후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방국에 양도되어 군함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지금까지 10여 개의 우방국에 40여 척의 퇴역군함을 양도했습니다. 이들 군함은 해당 국가와의 군사 협력과 방산수출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해 국민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 퇴역 군함들이 진해, 강릉, 김포 등 함상공원에 전시되어 국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격, 유도탄 발사 훈련 시 표적함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주로 퇴역한 고속정들이 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쟁터에서 장렬히 최후를 맞이하는 장수의 비장함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에 투하하여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인공어초'로 사용됩니다. 일례로 울진 앞바다에 투하된 해군 속영정은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국민들의 수중 체험을 위한 '바다 목장'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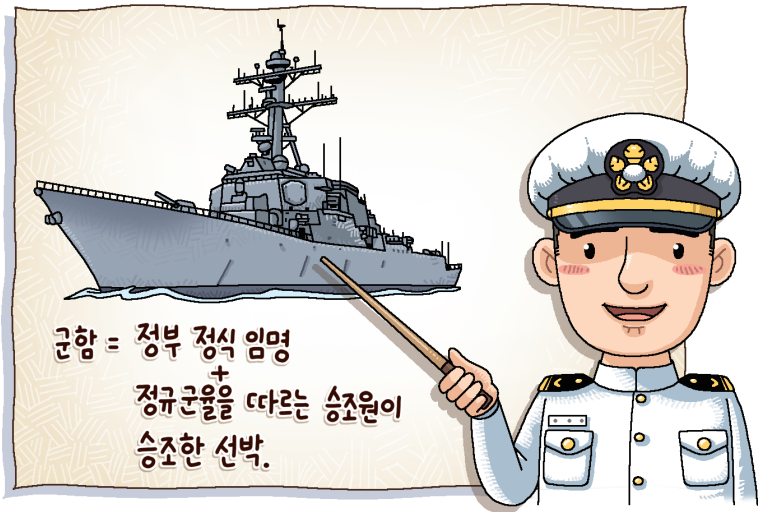


이처럼 군함은 다양한 노후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수식부터 퇴역 후까지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군함. '아낌없이 주는 군함'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습니다.

02 군함은 곧 국가다

군함은 법적 그리고 국제관례를 근거로 국가의 영토로 간주

-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는 ‘짐은 곧 국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루이 14세가 해양법에도 정통했다면 아마 ‘군함은 곧 국가다’라는 한마디를 더 남겼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군함은 한 국가의 영토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군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해양 법규 및 국제관례를 근거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군함은 타국에서도 한 국가의 대표로서 주권 면제를 향유한다는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함 = 정부 정식 임명 + 정규군율을 따르는 승조원이 승조한 선박

- 군함의 사전적 정의는 뭘까요? ‘일국의 군에 속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

을 나타내는 외부표시를 가지며 그 국가의 정부에 의하여 정식으로 임명되고, 그 성명이 그 국가의 적절한 군적 또는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장교의 지휘 하에 있으며, 정규군율에 따르는 승조원이 배치된 선박’입니다.



군함은 ①국가의 대표로서 완전한 국가의 주권과 독립을 상징하며 ②군함에 대한 어떠한 간섭행위도 허용하지 않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군함이 외국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군도수역, 내수 등에 정박 또는 체류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군함의 주권면제는 연안국의 민·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권, 행정권 등 제반 관할권으로부터 면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아덴만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함에 연안국의 범죄자가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 군함에서 범죄자를 연안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이상, 연안국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를 위해 우리 군함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군함은 그 자체로 국제법이 인정한 국가영토의 일부분이며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국가의 힘과 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력’이 왜 그 국가의 ‘국력’이 될 수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죠?

03 영송병, 함정 방문자에 대한 최고 예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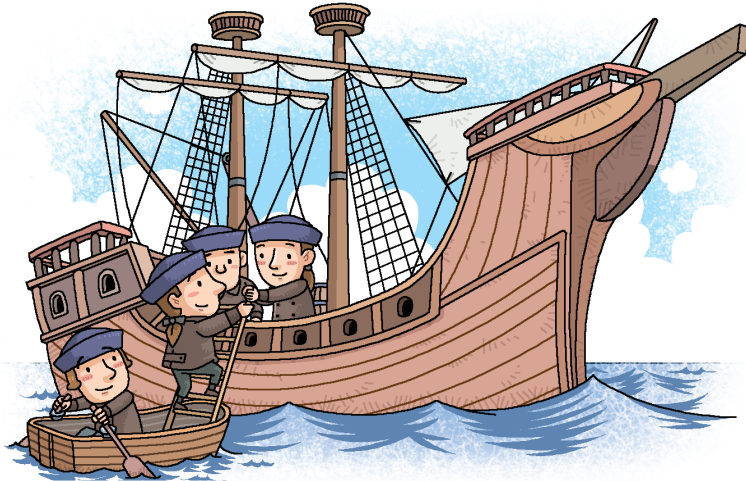
함정 승함을 위한 보조요원에서 시작된 영송병

● 영송병의 유래는 범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상이나 묘박지(선박이 계류하는 장소) 등에 정박하고 있던 기함에서 회의가 이루어질 경우, 방문자는 현문에 설치된 사다리를 이용해 배에 올랐습니다. 이 때 기함에서는 방문자가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도록 보조요원을 배치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야간 행사 시에는 랜턴을 들고 도열하여 길을 비춰주기도 했는데, 이러한 관습은 전통 해상 예절로 빠르게 정착해 '영송병'이라는 해군 고유의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계급과 체중이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 계급이 높은 방문자에게는 많은 수의 보조요원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문자가 젊은 사관일 경우에는 2명, 중령 정도의 방문자는 4명, 제독일 경우 6명에서 8명 정도의 보조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영송병(side boy)

현문 위병(舷門衛兵): 고관이나 저명한 방문자의 환송·환영 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현문(gangway)에 정렬하는 승무원.



영송병 배치는 함정 방문자를 위한 최고의 예우

● 이 관습은 지금까지 이어져 대령 이하의 국내·외 귀빈은 4명, 소장 이하의 국내·외 귀빈 6명, 중장 이상 국내·외 귀빈에는 8명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송병은 승함을 위한 보조요원에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함정에 방문하는 귀빈에 대한 최고 예우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합니다.



대한해협해전의 영웅 백두산함 김판사관 최영섭 해양소년단연맹 고문이 함정의 영송병에게 경례를 받고 있다.

혹시 함정을 방문하실 때 영송병이 배치되어 있다면 이는 함정에서 손님들을 위해 최고의 예우를 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4 해군은 특별한 손님이 오면 포를 쏜다?

함정이 비무장임을 표시하기 위해 시작된 예포

● 해군은 특별한 손님이 올 때 포를 쏘며 반긴다?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인데요, 특별한 손님을 위해서는 '예포'라는 포를 쏩니다. 예포는 예식행사에서 경의, 환영, 조의를 나타내기 위해 쏘는 일종의 공포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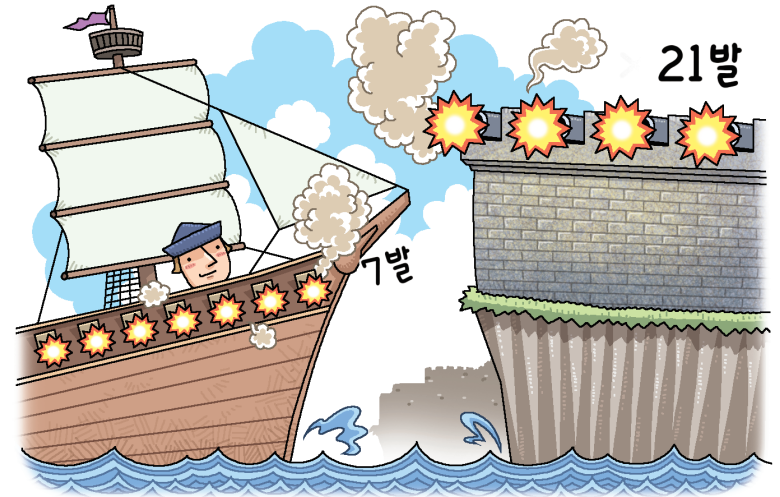
예식의 종류나 대상에 따라 발사하는 예포의 수가 다른데요, 최초의 예포는 자신의 무장이 해제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상대방에게 적대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외교 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칼날 끝을 아래로 향한다거나 포, 소병기 등의 탄환을 미리 발사하여 아무 위험이 없음을 알리는 행위는 고대부터 이어져 왔으며, 이는 상대를 안심시키고 예의를 갖추는 의미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함정에 있어서도 돛대에 인원을 배치한다거나 주범(돛)을 내린다거나 노를 정돈해 두는 것 역시 상대에게 위해 의사가 없음을 내보이는 표시였습니다.



예포사격 모습

함정의 예포 발사탄수가 7발에서 21발로 바뀐 이유

● 해군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포가 처음 운용되던 시기엔 해군 예포는 발사탄수가 7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7발을 발사하게 된 유래로 크게 2가지 설이 있는데, 당시 영국함정에는 표준적으로 7문의 함포가 탑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과 서양에서 7이 갖는 행운의 의미를 담아 발사 숫자를 맞췄다는 설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발사탄수가 7발에서 21발로 바뀌었을까요? 당시 화약의 원료는 질산소다로, 물에 잘 녹는 성질 때문에 해상보다는 육상에서 보관이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예포 발사 규정도 함정은 7발, 육상은 21발로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화약이 개량되어 원료가 질산칼륨으로 대체되면서 함정도 육상에서와 똑같이 21발을 발사하게 되었고 국가의 최고 예의를 표하는 예포 수도 자연스럽게 21발로 바뀌었습니다. 예포는 최소 11발부터 최고 21발까지 발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이나 외국 원수는 21발, 국무총리 및 장관, 각 군 대장급 장성에게는 19발, 차관급 및 중장급 장성에게는 17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05 출항 5분전! 떠나버린 군함

- 얼마 전 지인이 행사에 초청되어 함정을 방문했다가 예상한 시간보다 일찍 배가 떠나는 바람에 항해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인은 출항 시간인 오전 8시에 맞춰 부라부라 짐을 챙겨 군항으로 갔다고 합니다. 정문에서 출입절차를 마치고 시계를 본 시각은 오전 7시 56분. '출항까지 4분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하고 부두로 왔으나 배는 이미 출항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해군의 '15분과 5분전'을 잘 몰랐기에 생긴 실수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의미하는 '15분 전'

- 함정이 출항할 경우에는 사전에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출항 준비를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부두와 연결되어 있는 각종 공급 케이블을 분리하는데 이때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도 함께 제거됩니다. 이후부터는 함정에 탑재된 자체 발전기를 이용해 함내 전기를 공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함정 장비를 구동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발전기를 돌리고 방향을 알려주는 자이로에 시동을 거는 등의 준비를 해둡니다. 이후 출항 15분 전이 되면 출항경보 및 출입항 요원을 배치시키고 함정 방송을 통해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집행을 의미하는 '5분 전'

- '출항 5분 전' 구령이 방송되면 함장은 함고에 위치하여 출항을 위한 명령을 하달하고 현문 철거를 지시합니다. 현문은 부두와 함정을 연결해주는 다리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현문이 철거되면 더 이상 사람이 함정으로 편승할 수 없습니다. 현문 철거가 완료되면 부두에 매어 있던 훗줄(배가 바다로 떠나려가지 않도록 묶는 줄)을 걷고 출항을 알리는 기적 장성 1발을 크게 울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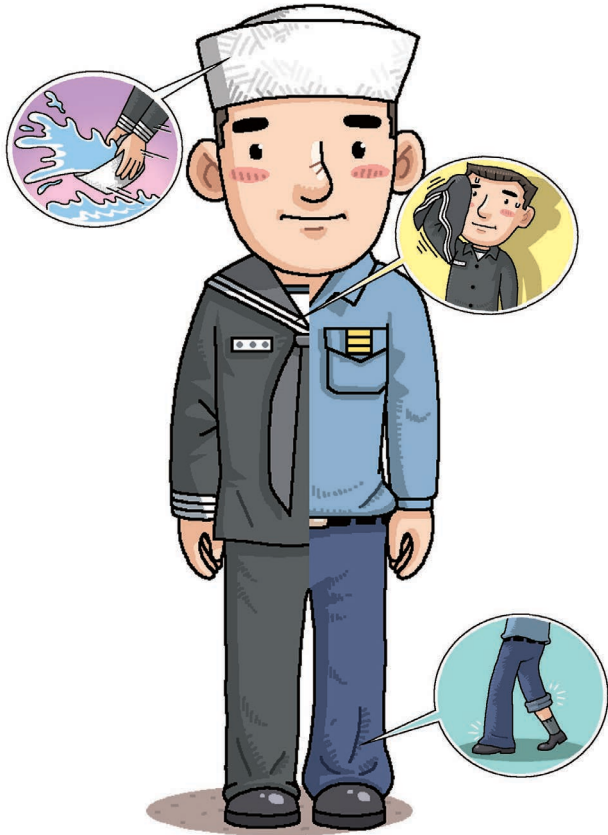
해군 문화로 자리 잡은 15분 전, 5분 전

- 15분 전, 5분 전에 의한 출항절차는 전 세계 해군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군 문화입니다. 함정에서의 15분 전, 5분 전 준비는 해군생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각종 과업수행을 위한 집합, 당직교대, 과업진행의 방법 등이 15분 전, 5분 전의 형태로 집행됩니다.

이는 장병들이 일을 추진할 때 항상 시간에 여유를 두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해군 장병들은 타인과 약속 시에도 15분 전, 5분 전 개념에 맞추어 행동을 함으로써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06 기능성 웨어의 원조, 해군 복장

- 나팔바지에 둥그런 모자, 그리고 타이. 전 세계 어딜 가나 해군 장병들은 이와 유사한 복장을 갖추고 있는데요. 세계 대부분의 해군은 제복에 관해서는 국제적인 전통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자국만의 독창성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군 복장에 특별한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해군 복장의 특별한 의미

- 해군 수병들의 복장 중 하나인 일명 '나팔바지'는 물에 들어갈 때 바지를 쉽게 걷어 올릴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옛날 목선시대부터 갑판 위에서 청소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 또는 단정을 육지로 끌어올리는 작업 시 바지를 쉽게 걷어 물에 젖지 않도록 밑부분을 넓게 만든 것입니다.

해군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 타이(Tie, 일명 넥타이)도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함상생활을 하는 해군은 언제든 익수자 구조에 대비합니다. 타이는 해군이 물에 빠질 경우 구조할 수 있는 도구이자 물속에서 상어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상어는 자기 몸의 길이보다 긴 상대는 공격하지 않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물에 빠졌을 시 타이로 발목에 묶으면 상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군 수병들이 착용하는 흰색의 둥근 모자 역시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함정에 물이 들어오는 위급 시에 물을 함정 밖으로 퍼내거나 함정에 물이 부족할 경우 빗물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한편 수병들의 동정복 목 부분에 있는 흑색 치장깃은 원래 땀을 닦는 수건이었습니다. 험한 파도와 바람이 불 때는 치장깃을 귀 쪽으로 모으면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듣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함상생활의 특성 및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해군 복장은 해군의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어느 군보다도 복장에 대한 자부심이 큰 군대인 해군. 멋져 보이기만 했던 복장이 실은 실용성을 겸한 기능성 웨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양한 복장의 해군

- 해군은 다양한 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삼군 중 가장 많은 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군일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해군 복장이 다양한 이유는 생활 특성상 타군에 비해 다양한 상황과 임무에 부딪히게 되며, 그에 따라 다양한 복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해군 복장은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뛰어나 패션계에서 사용되는 '마린룩'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기본복장 근무복

- 해군에서 가장 기본적인 복장은 '근무복'이라고 불립니다. 병의 경우 하늘색 셔츠와 짙은 남색의 바지, 그리고 검은 단화가 이 근무복에 해당합니다. 모자는 일명 빵모자라고 불리는 병정모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부의 경우 동근무복과 하근무복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근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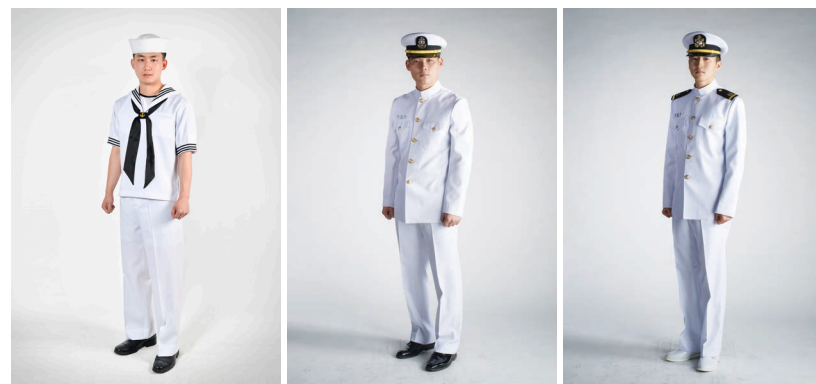
동근무복

동근무복은 상하의 모두 검은색에 검은 단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하근무복은 상하의 모두 카키색이며 이때 검은 단화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복에 색을 맞춘 게리슨

모를 착용하고, 기온에 따라 점퍼를 추가하기도 하는 것이 해군의 가장 기본적인 복장인 근무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행사 시 착용하는 정복

- 근무복과 전투복이 평소 생활에서나 전투배치 혹은 훈련 시에 착용하게 된다면, 정복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입는 복장입니다. 정복은 수병과 간부 모두 하정복과 동정복으로 구분해 입습니다.



병 하정복

부사관 하정복

장교 하정복



병 동정복

부사관 동정복

장교 동정복

수병 동정복의 경우, 검은색 셔츠와 바지에 네커치프를 달며 검은 단화를 신게 됩니다. 수병의 하정복은 흰색 셔츠와 바지에 검은 단화를 신습니다. 반면 간부는 동정복으로 흰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검은 재킷을 입고 검은색 단화와 해군모자를 씁니다. 하정복의 경우 흰색 상의와 흰색 하의에 백구두를 신으며 해군모자를 쓰게 됩니다. 백문이 붙어일건! 사진을 보실까요?

얼룩무늬 디지털 전투복

● 근무복 다음으로 자주 착용하는 복장은 흑색과 녹색이 디지털 무늬로 섞인 디자인 전투복입니다. 군인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군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투복은 해군 중에서도 통상 육상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훈련 시나 전투 시에 착용하게 됩니다. 전투복을 착용할 때는 물론 전투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동절기에는 야전상의를 입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방독면도 지참하게 됩니다.



작업환경을 고려한 정비복

정비사, 작업환경을 고려한 정비복

● 그렇다면 함정, 항공기, 잠수함을 정비할 때는 어떤 복장을 입을까요? 바로 정비복입니다. 통상 'T자복'이라고도 하는 데 등 부분에 알파벳 모양의 T자가 커다랗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복은 짙은 남색계통으로, 땀과 기름이 뒤범벅되는 근무여건을 고려해 활동이 편리하고 때가 잘 타지 않는 소재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옷 곳곳에 반사소재를 부착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임무 수행을 위한 특수복

● 앞서 설명한 기본적인 근무복이나 디지털 전투복이 아닌 특수복을 입고 근무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나열해 보면 잠수함에 근무하는 인원, 고속정에 근무하는 인원, 그리고 심해잠수사인 SSU, 최강의 특전요원인 UDT/SEAL이 대표적입니다. 이외에는 군악대, 의장대, 헌병 특수임무반,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특수복이 있습니다.



군악대



의장대



군의관



SSU



UDT/SEAL



항공 조종사



고속정 승조원



잠수함 승조원



헌병특수반임무반

07 물 한 바가지의 미학

함정에서 물이 귀한 이유

- 항해 중인 함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모항 출항 시 적재하였거나 타 함정으로부터 공급받은 것 또는 조수기를 이용하여 해수를 청수로 바꾼 물 정도로 제한됩니다. 자연히 항해 시 물은 식수나 취사에 이용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세면이나 목욕, 세탁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극히 제한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수는 해군 장병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왔습니다. 지금은 조수기의 발달로 청수 사용에 많은 제한이 없어졌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승조원들은 귀한 물을 버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따라 물 사용에 대한 해군만의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먼저 얼굴을 씻고 머리를 감은 후 다시 그 물을 이용해 발을 닦고 마지막으로 양말을 세탁하는 것입니다. 함정에서 물은 비록 한 바가지의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육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나기를 이용한 해군 목욕법

- 장기간 항해를 하다보면 한번쯤 물을 마음껏 쓰면서 목욕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럴 때 해군장병들은 소나기가 오기만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항해 중 소나기를 만나면 승조원들은 즉석에서 간소한 천연수 목욕을 즐기게 됩니다. 해군만이 즐길 수 있는 독특한 목욕이기에 '해군 목욕'이라고도 불렀는데, 이제는 해군의 잊혀 가는 옛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들어 뛰어난 성능을 가진 조수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물을 금같이 여기던 과거의 인식과 풍조는 많이 사라졌지만, 물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해군의 물 절약에 대한 관념은 아직도 마음 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08 잠들지 않는 군함, 3직제 당직

- 출항하면 24시간 잠들지 않고 경계임무를 수행하는 군함. 해군 함정에서의 당직근무는 전투력 유지와 함정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장병들은 특별한 3직제 당직근무를 서게 되는데 1인이 교대로 8시간씩(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연속적인 당직근무를 수행합니다. 함정이 출항하면 편성하는 항해당직은 바다에서의 안전항해와 전투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해 각 부서의 임무별 특성에 따라 구성됩니다. 함정 승조원 모두가 항해 당직에 편성되어 연속적인 당직근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항해 중 오전과업은 야근자 기상시간을 고려하여 10시부터 시작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당직 근무중인 해군 장병의 모습

하루 24시간 당직근무가 계속되기 때문에 함정에 따라서는 심야 시간대(보통 00:00~04:00시)의 당직근무를 2시간씩 2개조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Dog-Watch' 당직이라 부릅니다. 심야시간대의 당직근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직의 6개조를 7개조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지요.



안전당직자가 함 전반을 순찰하고 있다.

09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절대일자

- 함정은 대규모 인원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간부들이 회의를 하거나 쉴 수 있는 사관실과 원상사실, 동력을 책임지는 기관실 등 정말 많은 격실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격실 안에는 수많은 의자가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위해 탄생한 의자

- 그런데 이 많은 의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와도 마음대로 앉을 수 없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의자, 바로 함장의자입니다.



함장의자에 앉아있는 함장의 모습

함장으로서 갖는 무한한 책임

- 함장의자의 전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항해시대부터 이 원칙은 지켜졌다고 합니다. 함정이 출항 후 망망대해에 나가면 길게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한 사람, 함장에 의해 모든 일이 집행됩니다. 그만큼 함장에게는 커다란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함정의 승조원들은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함장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어떤 VIP 앞에서도 함장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상황에 따라 타인에게 의자를 양보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절대의자'는 망망대해 함정에서 생활하는 해군만의 소중한 문화입니다. 함정에 방문하실 일이 있으시다면 사전 양해 없이 함장의 의자에 앉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군 함장이 함교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

10 신사의 품격, 사관실

사관실은 '양복장'이라는 용어에서 유래

- 사관실은 영국해군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과거 영국해군 함정의 장교침실 부근에 양복장(Wardrobe)이라는 공용격실이 있어 장교들이 유니폼을 보관할 때 사용했는데 훗날 이 양복장이라는 단어가 사관실(Wardroom)로 변형되어 장교들의 식사와 사교의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군함의 사관실에서 장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사관실에선 '정치, 종교, 음담패설' 절대 금지

- 사관실은 장교의 회의, 식사 및 휴식장소로 사용됩니다. 식사 시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교양 있는 대화를 나누며 장기간 해상생활을 하는 해군의 특성상 상대편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특히 정치나 종교와 같이 상호 입장이 다른 대화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음담패설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사관실에서 지켜야 할 관습입니다. 또한 장교들은 식사시간에 늦지 않아야 하며 신사로서의 식사예법(Table Manner)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관실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돼 있는 곳이므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용자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사관실 안에서는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사관실에서도 함장의 좌석은 고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함장 좌석을 기준으로 서열에 따라 좌석이 정해집니다. 과거에는 당번을 제외한 사병은 임의로 사관실에 출입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관습은 어느 정도 시대에 맞춰 변화하여 각종 신고와 결재 등을 위해 사병이 사관실에 출입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군함의 사관실에서 다국적군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11 함교 다녀오겠습니다. 김수병! 모자 챙겨가야지!

함정 군기의 중심, 함교

- 함정 양현에 걸쳐 높게 설치된 갑판이자 항해 중인 함정에서 전 부서를 지휘하는 곳, 바로 '함교'입니다. 함교는 입항 중에는 국기 게양 등 대부분의 함정 의식을 집행하는 장소이며 출항 후에는 모든 행동을 지휘하는 '함정의 중심공간'입니다.



함정의 중심 '함교'의 위치

당직근무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함교에 들어갈 때 먼저 항해당직사관에게 경례를 하고 허가를 얻은 후에야 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교가 실내라 해도 출입 및 근무 시 이곳에서는 반드시 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 모자 착용 관습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없으나 과거 지붕이 없는 함교에서 강한 햇살을 피하기 위해 모자를 착용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정에서 가장 정숙한 장소, 함교

- 함교는 함정의 중심인 만큼 이곳에서 근무하는 대원들은 함장이나 당직사관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정숙을 기해야 합니다. 함교가 소란한 함정은 전비태세가 낮은 함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함장이 함교에 위치할 때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현측을 막아서는 것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함장은 뺏으로 바람의 방향과 성질을 느끼고 코로는 육지의 냄새를 맡으며 기상상황을 파악하는데 이때 정확한 판단을 방해하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무기체계와 전자장비의 발달로 함교가 아닌 전투상황실에서 함정을 지휘하기도 합니다.



함교 안의 모습

12 함정생활 맞춤형 경례문화

함상경례

● 해군은 일반적인 거수경례와 더불어 함정 공간의 특성상 팔꿈치를 어깨로부터 약 45도 가량 안쪽으로 굽혀서 경례하는 함상경례를 별도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정의 좁은 공간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정착된 것입니다. 함정 승조원들은 수시로 마주치기 때문에 매일 처음 만났을 때에만 거수경례를 하고 이후에는 경례를 하지 않고 예의만 표시합니다. 하지만 함장이나 장관급 장교 또는 타 소속 함정의 상급자에게는 만날 때마다 경례로 예의를 표시합니다.



함상경례

길차렷

● 함정의 좁은 공간을 고려하여 생겨난 예의로 '길차렷'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함정의 좁은 통로에서 상급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급자가 몸을 한쪽 벽면으로 비켜서는 동작으로 하급자는 이런 행위를 통해 상급자에 대한 경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길차렷'은 통로가 좁아 양 방향 보행자가 동시에 통과하기 어려울 경우에 실시하는데 상급자와의 거리가 3~4미터 정도에 이르면 하급자가 통로의 한쪽에 등을 붙이고 서있음으로서 상급자의 원활한 통행을 돕는 것이죠.



길차렷

대함경례

대함경례

● 해군의 경례 중 함정 간에 실시하는 대함경례가 있습니다. 후임함장이 선임함장의 함정과 근접하여 조우 시 험한 파도와 싸우며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존경 및 안전항해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해상 경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는 경례와 동시에 양 함정 간 발광 신호를 주고 받는데 보통 '함장님 수고하십니다' 또는 '안전항해를 기원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 해군이 가지는 또 다른 눈 'Seaman's Eye'

- 바다를 누비며 함정을 조항하는 해군 장교들에게는 'Seaman's Eye'라는 특별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해군에서 Seaman's Eye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넓게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숙달된 능력'이며 자세한 의미로는 '조합·항해술을 이해하여 가지게 되는 판단력'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즉, 바다에서 함정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합 및 항해술에 대한 이해도와 다양한 항해 경험이 결합돼 생기는 건전한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Seaman's Eye

훌륭한 'Seaman's Eye'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정에 대한 지식과 제원, 가용한 모든 정보를 조합하여 현재와 미래에 걸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수집된 정보와 해양에 대한 지식, 조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뛰어난 조합능력으로 명성이 높은 함장은 부두 또는 부이(해상 위에 설치된 부표)에 계류(배를 훑줄로 말뚝에 매는 일 / 함정의 '주차' 개념)할 때마다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반면, 조합능력이 부족한 함장은 승조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함정병과 장교가 능력 평가의 지표가 되는 PQS(Personal Qualification Standard: 장교자격평가) 과정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에게 있어 유능한 장교라는 명성은 해상에서의 함정 운용능력, 즉 'Seaman's Eye'에서 나옵니다. 'Seaman's Eye'는 해군 장교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이고 공통적인 목표인 것이죠.



해군사관생도들이 Seaman's Eye를 키우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14 함정의 '성역', 예식갑판

안전항해를 위해 만들어진 예식갑판의 유래

● 해군 함정 함미 부분에는 후갑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고대 전선이나 현대 군함을 막론하고 배에서 가장 성역시 되고 있는 곳으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해군관습을 '예식갑판에서의 예절'이라고 합니다.

과거 해군을 비롯한 뱃사람들은 당장 내일의 바다기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을 견디며 항해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바다라는 대자연에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먼 출항을 앞두고는 무사항해를 기원하는 일종의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의식이 바로 후갑판에서 행해졌습니다.



옛날 중국의 선원들은 후갑판 한쪽에 신단(神壇)을 갖추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서양에서도 유럽 기독교 국가들은 선미 후갑판에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기도하며 예를 갖추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뱃사람들의 이같은 종교 의식은 먼 바닷길을 떠나는 데 앞서 선원들의 막연한 공포심을 덜어 버리고 서로 의지하며 단결심을 공고히 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행위였습니다.

현대의 예식갑판

● 이처럼 옛 뱃사람들은 후갑판을 바다의 신에게 예를 드리는 장소로 여겨 신성시했습니다. 지금은 후갑판에 게양되어 있는 국기를 향해 경례하지만 이 또한 후갑판에 경례를 하던 전통이 이어져오며 변형된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배에 오를 때 후갑판 쪽을 향해 경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후갑판에서는 흡연이나 난잡한 행위가 금지될 뿐 아니라 종교 활동을 제외하고는 탈모, 탈의 상태에서 출입도 금지됩니다. 이처럼 군함의 후갑판을 신성시하는 관습은 모든 나라의 해군이 공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후갑판에서 운동이나 오락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함장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예식갑판

15 용왕님 적도를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적도통과제

적도통과제의 유래

- 적도통과제는 항해 중인 배가 적도를 통과한 것을 기념하면서 시작된 행사입니다. 범선시대의 선박들은 바람의 힘에 의지해 항해했으므로 적도 부근의 무풍지대를 지날 때에는 특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 무풍지대에 갇히면 식량이나 식수 부족으로 굶어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선원들은 바다의 신에게 무사통과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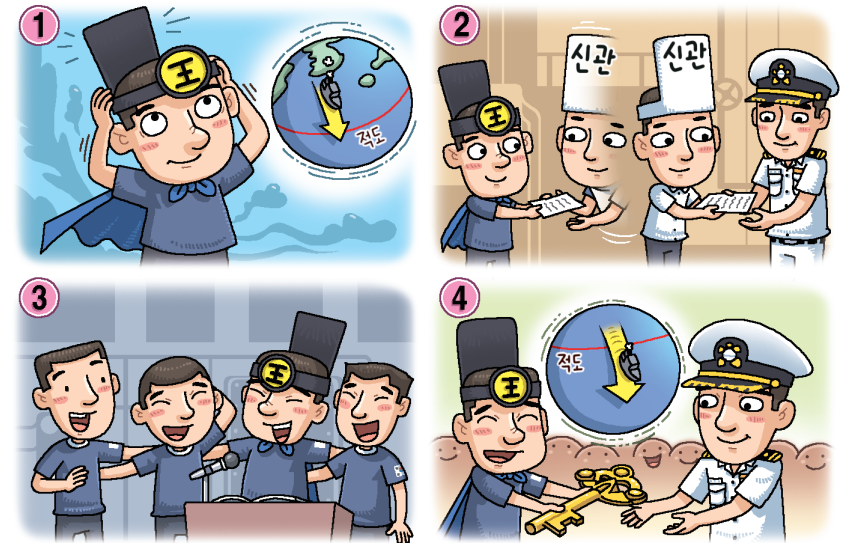


적도통과제를 진행하는 모습

제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유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중세시대에도 이 의식을 치렀으며 그 전에도 위도 13도선이나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할 때 비슷한 행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무풍지대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은 현대에 적도통과제는 지루한 선상생활을 달래줄 특별한 이벤트 또는 기념의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적도통과제의 진행 방법

- 적도통과제를 위해서는 먼저 최선임자 혹은 적도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 대원을 넙툰대왕(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용왕)으로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넙툰의 비, 궁녀, 도깨비, 신관 등의 보조 역할을 정하고 각 역할에 선정된 장병들은 특수 분장을 합니다.



적도를 통과하기 전날 밤, 대원들이 비행갑판에 모두 모인 가운데 신관이 넙툰대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함장에게 전달하면 행사가 시작됩니다. 넙툰대왕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대원들의 죄를 묻는 재판관을 여는데, 이때 평소 군기를 담당했거나 대하기 어려웠던 대원들이 재판관의 대상이 됩니다. 유쾌하고 익살스럽게 재판관을 하면서 평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는 긴 항해 동안 좁은 함정이라는 공간 속에서 생활하며 서로에게 가질 수 있는 속마음을 해학과 풍자로 표현하는 뱃사람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 후 넙툰대왕이 함장에게 적도 통과열쇠를 주면 적도통과제가 종료됩니다. 이 행사를 통해 대원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서로의 용기, 전우애 및 재치와 기지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16 여군도 함정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바다의 신도 허락한 여군 함정 근무

● 옛 바다사람들에게는 여자가 배에 타면 해신의 노여움을 사 승조원이 다치거나 배가 난파되는 등 항해 중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는 미신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오히려 해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와 국가를 사랑하는 여군들이 다양한 함정에 편승하여 자신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함정의 지휘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구축함 앞에서 각오를 다지는 여군

지속적인 우수 여군 인력 확보

● 해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군 인력의 수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교 8.3%, 부사관 5.6%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 장교 11.7%, 부사관 9.7%로 여군 인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함정에서 근무하는 여군의 모습

여군은 장교의 경우 전 병과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부사관의 경우 특전, 잠수를 제외한 전 직별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해군 내에서 여군과 남군의 근무 가능 병과와 직별에 대한 제한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수함에도 여군이 근무 가능한가요?

●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군은 우수한 여군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에서는 함정 여건상 여군의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3,000톤급 잠수함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여군의 잠수함 근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7 숫자 '4'가 들어간 함정은 없다. 함정의 금기사항

- 아무리 크고 단단하게 건조된 함정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과거 선원들에게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믿음과 관습을 만들고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우리 해군에도 뱃사람들의 믿음과 유사한 금기사항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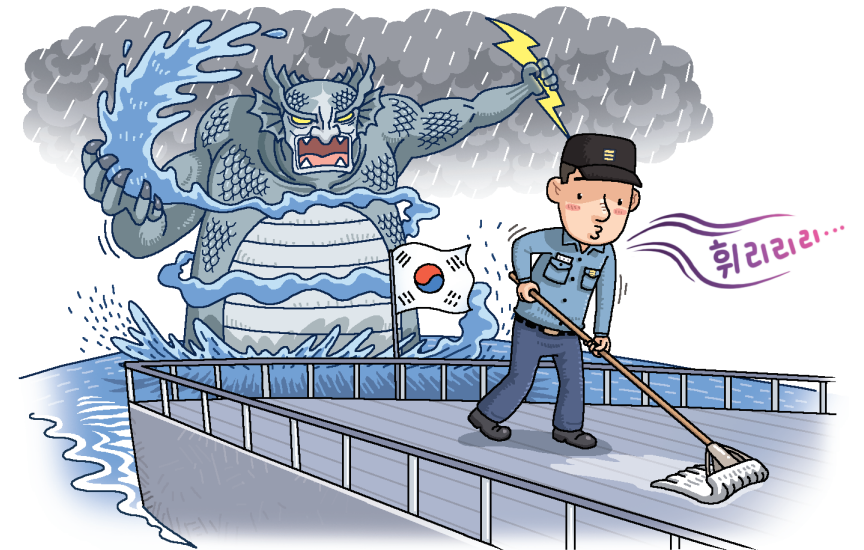
함정번호에 4자가 들어가지 않은 함정들

함정에서 숫자 '4'는 사용 금지

-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숫자와 선호하지 않는 숫자가 있죠. 서양에서는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13이라는 숫자를 멀리하며, 특히 13일과 금요일이 겹쳐지는 날은 철저히 피합니다.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한자의 죽을 사(死) 자가 연상되는 숫자 4를 금기시해 각종 건물이나 병원 등에 4층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해군에서도 이러한 숫자에 대한 금기 사항을 나름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각 함별 함정번호를 매김에 있어서 4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건물 층수를 포함해 숫자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물에도 4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6·25전쟁 당시 함정번호에 4자가 들어간 함정들이 작전 임무 수행 중 침몰하는 불운과 우리의 전통 관습인 4자 기피현상이 맞물려 점차 해군에서 4자를 함정번호로 사용하지 않는 관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항해 중 휘파람 부는 것은 금지

- 늘 바다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폭풍우였습니다. 옛날 바다사람들은 해상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면 바다의 신에게 노여움을 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 위에서 바다의 신이 부르는 바람 소리와 비슷한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은 바다의 신에게 불경(不敬)을 저지르는 것이고 이 소리를 들은 바다의 신이 노해서 바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해상에서 휘파람을 금지케 한 것입니다.



실제로 해상에서 캄캄한 밤중에 휘파람 소리를 들으면 바람 소리를 연상하게 되고 이것은 곧 이어 닥쳐올 높은 파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어 군함에서도 항해 중에 휘파람을 금지하는 것이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기 사항 외에도 각종 첨단 전자장비로 구성된 함상의 특성상 함 승조원들 여럿이 동시에 갑판 위를 구르거나 큰 고함을 지르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18 잠수함 스테이크! 심해수 시음! 최대작전심도 기념와인!

● “충수!”, “충수!” 잠수함 함장이 지시하자 승조원들이 그대로 복창합니다. 이어 공기로 채워져 있던 부력탱크(Ballast Tank)에 물을 채우는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잠수함은 부력탱크 내에 잔여공기를 배출하기 위한 돌핀 기동을 시작합니다. 마치 돌고래가 수면 위를 헤엄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잠시 뒤 잠수함은 어느새 물 속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이제 잠수함 승조원들은 외부 세계와 전혀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당연시 여기던 햇빛은 사치가 됩니다.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약간의 진동도 위협합니다. 적이 어디서 듣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수함 승조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항상 긴장된 상태로 생활한다면 아무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소소한 재미나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즐거움이 잠수함 승조원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잠수함 스테이크

● 잠수함 조리실은 내부 공간이 협소합니다. 큰 취사기구는 없습니다. 요리의 정수인 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기가 가스, 불꽃이 발생한다면 큰일입니다. 외부와 공기가 통하지 않으니 안 되는 것 천지입니다. 조리사 손에는 전기 팬과 전기 오븐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음식의 맛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리가 ‘잠수함 스테이크’입니다. 이 스테이크는 불에 굽지 않습니다. 오븐에 찌냅니다. 잠수함 환경과 접목되어 독특한 풍미를 자랑합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어느 일류 호텔이나 레스토랑 스테이크에 못지않은 맛과 분위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지금은 육군과 공군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쉽게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유관순함 장병들이 잠수함 스테이크를 먹기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잠수함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잠수함표 한방수육, 등갈비찜, 오리훈제 등 양질의 식사가 항상 준비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잠수함 승조원들에게 풍부한 영양 보충은 필수입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잠수함은 출동기간 내내 코스 요리처럼 음식이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 코스 요리는 처음에 애피타이저와 샐러드, 이어 생선·고기 중심의 메인요리, 식사순으로 이어집니다. 잠수함은 출동 초기에는 신선한 야채, 과일을 재료로 하는 음식이 나옵니다. 날씨가 하루하루 지나면 점차 육류 위주로 바뀝니다. 마지막에는 고기만 올라가 있는 테이블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족한 영양소는 어떻게 하나요? 걱정마세요. 종합 비타민제가 해결해 줍니다.

잠수함만의 코스요리 문화는 음식 저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209급 잠수함의 경우 20명 남짓한 공간에 40여 명의 승조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식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음식이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마치 코스 요리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순서대로 나오는 코스요리입니다.

심해수, 컵에 바로 담아 원샷 해보셨나요?

- 잠수함 승조원들의 왼쪽 가슴에는 돌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돌핀(Dolphin)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아무나 달 수 없습니다. 길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총 4단계의 관문을 통과해 잠수함 승조원 자격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잠수함 승조원 자격부여제도(SQS, Submarine Qualification System)'라고 합니다. 잠수함 승조원에 지원하면 먼저 잠수함 기본과정 교육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잠수함에 배치됩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수함에 타고 있지만 아직은 잠수함 승조원이 아닙니다. SQS를 통과해야 합니다.

SQS는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공통분야로 잠수함 승조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능력과 계통에 대한 이해를 평가받습니다. 3단계는 앞선 두 단계에서 심화된 내용을 점검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지휘관이 직접 평가합니다. 지식뿐 아니라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근무자세와 마음가짐도 살피니 긴장해야 합니다.

기본과정 교육 6개월에 SQS 평가 6개월, 총 1년여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 합격하지 못한다면 3개월의 추가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도 불합격이라면 잠수함 승조원이 될 기회는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러니 '돌핀 휘장'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정식으로 잠수함 승조원이 됐는데 기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잠수함 부대에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를 기념합니다. 다 같이 심층수를 원샷하는 겁니다. 잠수함답게 바닷속 깊은 곳까지 잠향해 지구 최후의 심층수를 컵에 담습니다. 부력탱크에 담긴 심층수를 벨브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함장과 합격자들이 속 시원하게 마셔버립니다. 마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듯이 말이죠. 누가 더 시원할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전함 승조원이 첫 집항 기념으로 심해수를 원샷하고 있다.



SQS 합격자 축하 심해수 시음회

세상의 유일한 '수심 000미터 심층수 와인'

- 단순히 심층수만 마셔본다면 기대에 못 미치죠. 잠수함에는 심층수로 만드는 특별한 와인이 있습니다. 세계 그 어디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잠수함에는 자유층수구역이 있습니다. 압력선체 이외에 바닷물이 자유롭게 오고가는 공간을 말입니다. 자유층수구역에서는 압력선체 내부와 달리 수압을 그대로 받습니다. 수압을 받는다? 여기서 잠수함 승조원들은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와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출항 전 잠수함 내 자유층수구역에 와인을 고정해놓습니다. 그러면 잠수함이 심해로 잠항하게 되면 수압으로 인해 와인의 코르크 마개가 병 안으로 밀려들어갑니다. 심층수와 와인이 섞이는 거죠. 잠수함이 다시 부상하면 수압이 낮아지면서 와인병 내부가 팽창하게 됩니다. 코르크 마개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마치 새 와인처럼 느껴집니다. 여기에 '수심 000미터 심층수 와인' 라벨을 붙이면 끝납니다.

물론 매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념이 필요한 날에 만들죠. 잠수함을 인도하기 전 인수시운전 기간에 처음으로 최대잠항심도에 도달했을 때, 장기간 수리 종료 후 최대작전심도에 도달했을 때, 안전을 기원하며 심층수 와인을 제조합니다. 항해가 끝나고 모항으로 돌아오면, 이 와인은 부대 역사관에 소중한 보관합니다. 때로는 선물도 합니다. 맛은 어떨까요? 바닷물에 탄 와인 맛? 하지만 맛보다는 중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유관순함 최대작전심도 기념와인

19 털보 해군! 누가 더 자랄까? 잠수함 승조원의 수염 기르기

● “수염은 말끔히 깎고, 콧수염이나 턱수염을 기르는 행위는 금지한다” 해군 복무 규정 제4장 1절 36조 ‘용모 및 두발’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혹시 길거리에서 수염이 가득한 군인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보신 바와 같이 군인에게 수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한 곳만 제외하고 말이죠, 바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은 출항하게 되면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점차 시간이 갈수록 승조원들의 얼굴에는 수염이 가득해집니다. 입항 전에는 ‘승조원 수염 기르기 대회’도 개최합니다. 가장 멋있게 수염을 기른 승조원을 뽑아 상품도 수여합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은 작전기간 중 수염을 기른다.

왜 잠수함 승조원들은 수염을 기를까요? 세면시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수함에는 화장실에 변기와 함께 세면대, 샤워기가 같이 있습니다. 다만 단 두 개만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40여 명에서 두 개의 화장실을 쓰면 붐빍니다. 두 개인데 화장실과 세면장이 함께 있습니다. 상상치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에서는 주간 중에 화장실 용무는 5분 이내로 마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청수 문제도 있습니다. 잠수함에서는 먹는 용과 샤워용, 세탁용 물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수탱크에 적재했거나 조수기로 생산한 청수를 사용합니다. 물론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아껴 써야 합니다. 세탁은 꿈에도 못 꿍니다. 샤워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합니다.

화장실에서 오래 있을 수도 없고 물도 없으니 당연히 수염을 기르게 됩니다.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데 면도는 사치입니다.

그럼 전기면도기는 어떨까요? 잠수함 승조원들은 함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잠수함 생존성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화장실 사용 후 내리는 물소리도 줄이기 위해 ‘세척 건’이라는 물총으로 조심히 흘려 보내는데 전기면도기라니요? 안될 말입니다.



잠수함 승조원 수염기르기 콘테스트

20 나도 이제 날개 단다. 항공 승조원들의 Wing 세레머니

● 놀라운 사실 하나! 해군에도 항공기가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군에 왜 항공기가 있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1987년에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영화 ‘탑건(Top Gun)’을 아십니까? 세계적인 배우 톰 크루즈가 열연했던 멋쟁이 조종사 매버릭 대위, 바로 해군 조종사입니다. 미국 해군이 자랑하는 항공모함전단의 항공기는 모두 해군 소속이라는 사실, 당연히 알고 계시죠?

우리 해군도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 속의 공군’ 해군 6항공전단이 바로 그런 부대입니다. 6항공전단은 다양한 기종의 헬기와 국내 유일의 해상작전용 비행기 해상초계기(P-3)를 운용합니다. 이 항공 전력들은 한반도 전 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대함·대잠전, 탐색 구조작전, 기뢰부설, 인원수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 잠수함을 잡는 길러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럼 해군 조종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 명의 조종사가 탄생하려면 50주에서 최대 78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초군반을 거쳐 해상생활훈련 그리고 기종별로 기본/고등과정을 수료해야 하는 것이죠. 항공초군반에서 항공 관련 기본 지식을 습득한 뒤 해상생활훈련을 통해 바다에 불시착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기릅니다. 그리고 회전익(헬기)은 해군에서 기본/고등과정을, 고정익(비행기)은 공군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후 조종사 자격을 획득합니다.

모든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고되고 혹독합니다. 해상에서의 임무 수행은 육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평입니다. 푸른 바다 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어느 곳이 하늘이고 어느 곳이 바다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회전익의 경우에는 군함에서 바로 뜨고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함 위 좁은 비행갑판이 조종사에게 허락된 공간입니다. 고정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3L이라고도 하는 저고도(Low Altitude), 저속(Low Speed), 장시간 체공(Long Endurance) 등 그 고충이 상당합니다. 바다 위를 낮게 날며 저속으로 장시간 비행하다보면 위험한 상황이 한 둘이 아닙니다.



해군 6항공전단의 새내기 조종사 'Wing 세레머니'

그래서 도중에 탈락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해군에서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비행승무원 자격을 취득하면 ‘Wing 세레머니’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비행승무원들은 오른쪽 가슴에는 날개 모양의 해군 항공휘장을 달고 목에는 마후라를 두릅니다. 공군의 빨간 마후라가 아니라 해군을 상징하는 ‘푸른 마후라’입니다. ‘푸른 마후라’ 잊지 마세요.

21 장성은 제독, 대령은 캡틴, 생도는 미드ship맨!

해군에서만 사용하는 특별한 호칭 '제독'

- 해군은 육·공군과 달리 장성계급을 장군(General)이 아닌 제독(Admiral)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왜 해군만 계급 호칭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사실 제독이라는 용어는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시절 사용했던 관직의 호칭으로, 수륙 양군을 통솔하는 무관의 최고 벼슬 자리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다 근현대에 들어 서구의 문물과 해군 문화가 유입되고 서양의 호칭 'Admiral'을 제독이라는 용어로 번역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는 해군의 장성급 장교를 제독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Admiral'이라는 호칭은 어디서 기원했을까요? 이는 일찍이 고대 지중해를 장악하였던 페니키아(지중해 동쪽 해안의 고대 지명)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페니키아에서는 해상의 고위 지휘관을 '아미랄(Amiral)'이라 불렀는데 이는 '바다의 귀족', '바다에서 큰일을 하는 높은 지위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 어원이 현재까지 전해지면서 해군에서는 장성급 장교를 육·공군과는 다르게 제독으로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군에서는 조선의 수군을 지휘했던 민족의 성웅 충무공 이순신 역시 장군이 아닌 제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해군에서의 '캡틴'은 대위가 아닌 대령

-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군 계급의 모든 영문 표기법은 육·공군과는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캡틴(Captain)도 있습니다. 타군에서 캡틴은 대위를 가리키지만 해군에서는 대령을 의미합니다.



해군의 대령(Captain) 계급은 라틴어의 '두목', '수령'을 나타내는 'Caput, capita-neus'에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Captain'이란 말은 13세기경부터 함장 계급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령(Commander)은 소형 함정을 지휘하던 사람에게 쓰던 용어인 'Master and Commander'에서 유래된 단어이며, 대위(Lieutenant)는 프랑스어로 '대리자'를 의미하는 단어로 함장을 보좌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유능한 자를 의미하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해군사관생도는 'Cadet'이 아닌 'Midshipman'

● 일반적으로 사관생도의 영문명은 'Cadet'인데, 해군의 사관생도는 특별히 'Midshipman'이라고 부릅니다. Midshipman은 해군 함정에서 나이 어린 사관생도들이 배의 중앙에서 생활하며 배의 앞뒤를 왕래하고 사관의 명령과 지시를 수병들에게 전달하며, 그들의 업무를 후부에 보고하면서 사관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던 것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Midshipman은 나폴레옹 전쟁까지 영국 해군의 등급이었으며 함장에 의해 어느 때든 강등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군 계급 영문 표기	타군 계급 영문 표기
대장(Admiral)	대장(General)
중장(Vice Admiral)	중장(Lieutenant General)
소장(Rear Admiral Upper Half)	소장(Major General)
준장(Rear Admiral Lower Half)	준장(Brigadier General)
대령(Captain)	대령(Colonel)
중령(Commander)	중령(Lieutenant Colonel)
소령(Lieutenant Commander)	소령(Major)
대위(Lieutenant)	대위(Captain)
중위(Lieutenant Junior Grade)	중위(Lieutenant)
소위(Ensign)	소위(Second Lieutenant)
사관생도(Midshipman)	사관생도(Cadet)

22 해군만의 금줄 계급장, 견장과 수장

● 해군 장교들은 타군과 다르게 철제 계급장이 아닌 '견장'과 '수장'에 있는 금색 줄로 계급을 나타냅니다. 수장은 동정복의 소매 끝단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배를 오래 탄 사람일수록 소매가 더욱 많이 바래는데 수장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디자인된 것입니다.



견장과 수장
수장은 동정복의 소매 끝단에 표시, 견장은 어깨에 걸친 탄피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고정대에서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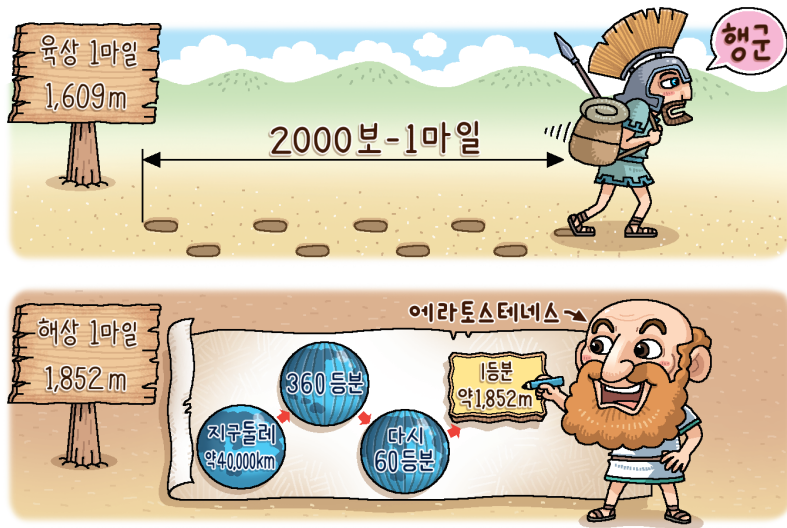
계급	해군 수장	해군 견장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하절기에 착용하는 하정복은 견장으로 계급을 표시합니다. 견장은 어깨에 걸친 탄피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고정대에서 유래된 것으로 현재는 명예와 장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위부터 대령은 수장에 쓰이는 금줄을 그대로 견장에 부착하고 제독은 견장에 금줄 대신 별을 부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3 해상마일은 1,609미터가 아닌 1,852미터

태생이 다른 해상마일과 육상마일

- 육상에서의 거리 단위와 해상에서의 거리 단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육상은 1마일에 1,609미터지만 해상마일은 1,852미터입니다. 육상마일은 고대 로마에서 사용하던 행군 단위로 2,000보에 해당하는 '밀레 파수움(Mile Passuum)'에서 유래합니다. 이에 비해 해상마일은 육상마일보다 좀 더 과학적인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과학자 에라토스테네스가 찾아낸 지구둘레 약 40,000킬로미터를 지구 남북선을 기준으로 360등분하고 이를 다시 60등분하면 1,851.8킬로미터가 나옵니다. 따라서 1등분에 해당하는 마일은 약 1,852미터로 산출됩니다. 이와 같이 해상마일은 원의 기하학, 지구의 도해 및 천문학 등 고도의 과학기술이 숨어 있는 첨단 단위입니다.



사용 편의까지 고려 1,852미터를 1해리로 정의

- 육상에서의 마일을 해상에서는 '해리'라고 합니다. 만약 위도 1분위 길이를 1해리라 정의하지 않고 1,852미터로 사용한다면 항해와 관련한 여러 계산들이 불편할 뿐 아니라 연속된 계산에서 불필요한 오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군에서는 1,852미터를 1해리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군함정들은 해리를 기준으로 해상거리를 측정한다.

02

해군 함정 · 항공기! 어렵지 않아요

- 01 함정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 02 함정의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03 함정의 이름은 어떻게 정하나요?
- 04 함정의 외관 색은 왜 회색을 사용하나요?
- 05 함정이 녹슬지 않는 비법은 무엇인가요?
- 06 함정은 얼마나 속력을 낼 수 있나요?
- 07 함정은 해상에서 연료를 받을 수 있나요?
- 08 함정은 어떻게 부두에 정박할 수 있나요?
- 09 함정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 10 함정에도 브레이크가 있나요?
- 11 함정은 왜 견시를 운영하나요?
- 12 잠수함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 13 잠수함이 잠항할 수 있는 수심은 얼마나 깊나요?
- 14 디젤-전기추진, AIP,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15 잠수함은 수중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나요?
- 16 해군의 항공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17 하늘을 나는 항공기가 물 속 잠수함을 어떻게 찾나요?

「간단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해군」 Chapter 02에서는 해군의 주요 무기이자 집이자 단위부대이기도 한 함선, 그리고 해군에서 운용하는 항공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01 함정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⑤ 예식갑판·비행갑판

노천갑판의 일부로 통상 국기계양대가 있고 함정의 행사를 치르는 곳입니다. 대형 함정에서는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비행갑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⑥ 스크류

함정을 전진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주는 장치입니다.

① 마스트

범선 시설의 돛대에 해당하며 레이더와 통신장비 등이 장착되고 국기와 기류를 계양합니다.

② 함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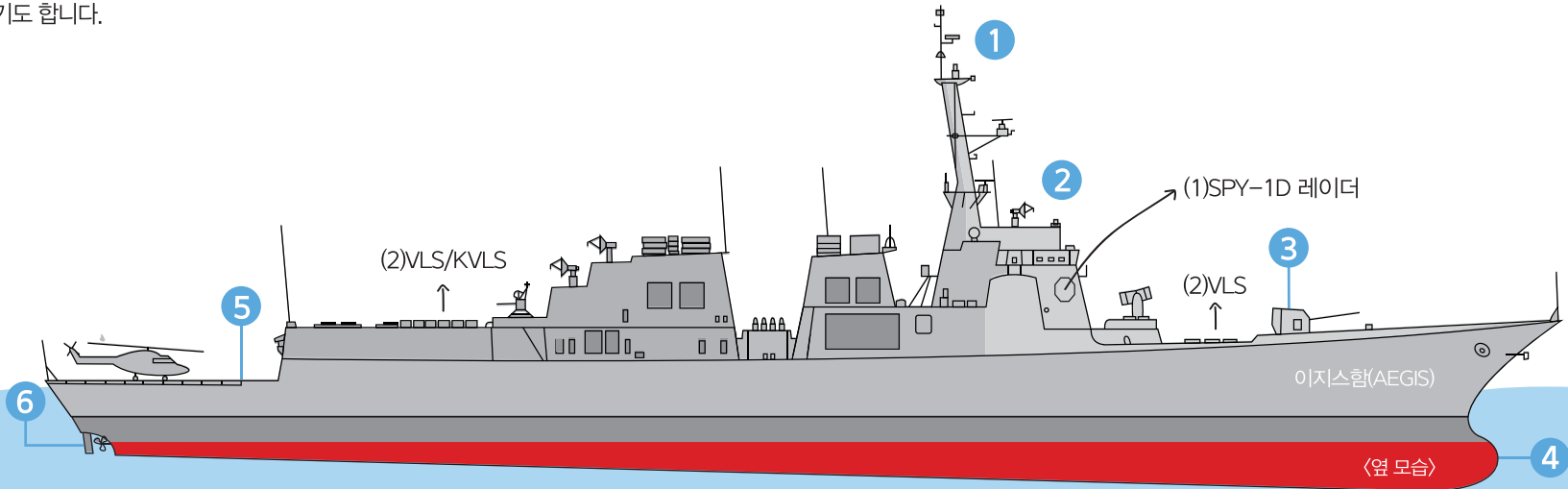
보통 함정 전방에 위치하며, 함장이나 당직사관이 위치하여 함정을 조항하는 공간입니다.

③ 함포

해군을 상징하는 무기체계로 지상군의 곡사포와는 달리 직사화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④ 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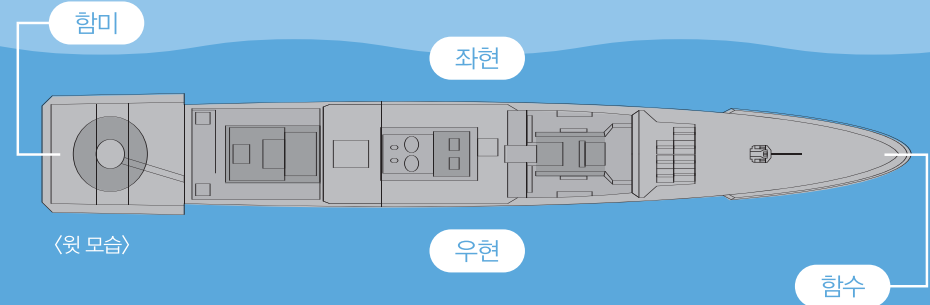
음파를 이용해 잠수함 등의 수중물체를 탐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신의 방패?! 이지스함의 특징은?

다수의 목표를 탐지·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함정을 이지스함이라고 합니다.

이지스 체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지스 레이더와 함께 요격미사일이 필요하며,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에서는 1,000km 범위의 1,000개의 표적을 탐지해 20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가능한 (1)SPY-1D 레이더와 (2)수직미사일발사대(VLS)와 한국형 수직미사일발사대(KVLS)를 통해 발사하는 대함·대공·대지미사일과 대잠어뢰 등이 탑재되어 있다.



02 함정의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객관적 기준이 없는 함정 분류

● 진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이러한 함정 명칭들은 어떻게 분류하는 것일까요? 함정의 분류는 전통적인 관습과 워싱턴, 런던 조약 등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분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적인 크기'로, 함정 건조 기술과 무기 체계가 발전한 오늘날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을 제외하고 수상전투함 중에서는 진함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함 순으로 분류됩니다.



美 아이오와급 전함(2차 대전)

진함(Battle Ship, BB)은 중장갑과 강력한 대구경 함포를 탑재한 대형 함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독일의 비스마르크함, 일본의 야마토급 진함 등 다양한 진함들이 운용되었습니다. 2006년 미 해군의 예비함정으로 남아있던 만재배수량 58,000톤 아이오와급 전함이 퇴역하면서 러시아의 키로프급 순양전함만이 진함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함보다는 조금 덩치를 줄인 대신 장거리 항속능력과 속도를 높인 함정이 바로 순양함(Cruiser, C)입니다. 순양함은 원래 대양을 순회하면서 단독으로 전술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함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구축함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함정을 의미할 뿐 고유의 특색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만 순양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상 10,000톤급 내외의 함정을 순양함으로 분류합니다.



露 키로프급 순양전함(현재)

순양함보다 작은 함정은 구축함(Destroyer, DD)으로 불립니다. 구축함은 대함 및 대잠 공격을 주 임무로 하는 중대형 함정입니다. 구축함은 초기에는 어뢰정과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 건조되었으며, 크기도 배수량 320톤 안팎밖에 되지 않는 해군의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덩치가 커지면서 과거 순양함에 육박하는 7,000톤급 구축함도 나오게 되었고 무기 체계가 다양화되어 대함, 대공, 대잠 모두에서 활약하는 해군의 주요 전투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호위함(Frigate, FF)은 흔히 구축함보다 작고 초계함보다는 큰 함정을 지칭하며,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통상 1,500~3,000톤급 사이의 함정이 호위함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3,000~5,000톤급의 함정을 호위함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로 연안경비 및 선단 호위 등 특화된 임무를 맡아왔지만, 최근 무기 체계 발전으로 구축함과 함께 각국 해군 전력의 근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美 LCS 포트워스함

초계함(Patrol Combat Corvette, PCC)은 대체로 연안 경비 및 초계임무를 수행하며 고속정보다는 크고 호위함보다는 작은 함정을 지칭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배수량 1,000톤 내외의 함정을 초계함으로 분류하나 국가에 따라 2,000톤급 이상의 함정을 초계함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 포항급 초계함



대한민국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

초계함보다 더 작지만 빠른 속도를 가진 함정이 고속정(Patrol Boat, PB)입니다. 원래 고속정은 초계함보다 크기가 훨씬 작은 200톤급 이하의 함정을 뜻했는데 오늘날에는 만재 배수량 500톤 이상의 유도탄 고속함도 존재합니다(대한민국 해군에서는 통상 만재 배수량 500톤 미만의 함정은 OO정, 500톤 이상의 함정을 OO함으로 표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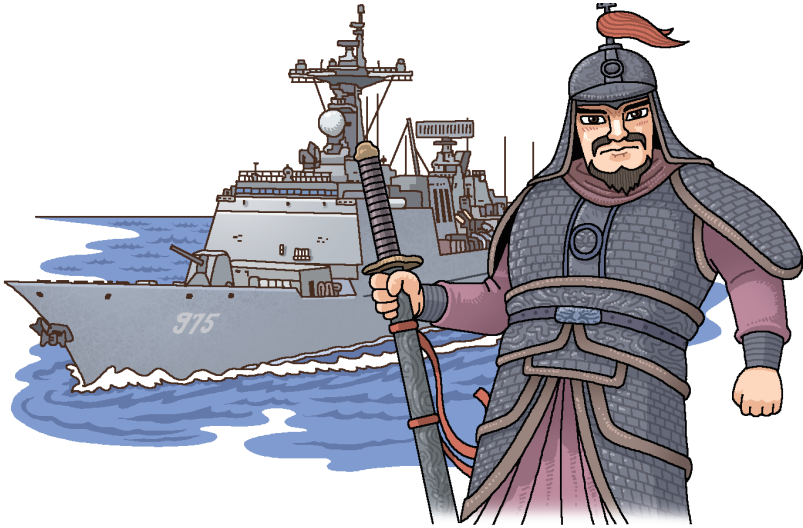
우리 해군 전투함정 분류기준

구분	해당 함정	배수량
구축함	세종대왕급(DDG)	7,600t
	충무공이순신급(DDH- II)	4,400t
	광개토대왕급(DDH- I)	3,200t
호위함	대구급(FFG- II)	2,800t
	인천급(FFG- I)	2,500t
	울산급(FF)	1,500t
초계함	포항급(PCC)	1,000t
고속함/정	윤영하급(PKG)	400t(만재 배수량 500톤 이상이기 때문에 함으로 분류)
	신형참수리급(PKMR)	210t
	참수리급(PKM)	130t

03 함정의 이름은 어떻게 정하나요?

구축함엔 역사적 영웅, 잠수함엔 독립운동가

●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함정 이름은 무엇일까요? 1945년 해군이 창설된 후 1946년 10월에 해방병단이 미국 해군으로부터 인수한 상륙정 2척에 명명한 '서울정'입니다. 이후 도입된 함정에는 그 종류와 규모, 임무에 따라 도시, 산, 강, 만, 해전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물의 이름이 명명된 것은 1990년대부터로, 한국형 구축함과 잠수함 등에 국가 안보와 조국독립, 해군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의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대표 전력인 구축함에는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충무공 이순신 등 역사적 영웅이나 외침을 물리친 장수 또는 호국인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구축함	과거부터 현대까지 국민들로부터 영웅으로 추앙받는 역사적 인물이나 국난극복에 크게 기여한 호국인물(세종대왕함, 충무공이순신함, 광개토대왕함 등)
호위함/초계함	호위함: 특별·광역시, 도청소재지 지역 명(서울함, 경기함 등) 초계함: 중·소 도시 지역 명(원주함, 제천함, 진해함 등)
유도탄 고속함	해군창설 이후 전투와 해전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귀감이 된 인물(윤영하함, 한상국함, 지덕철함 등)
고속정	속력이 빠르고 신속한 특성을 고려하여 날렵한 조류 명(참수리)
대형수송함	대한민국 영해수호 의지를 담아 한국해역 최외곽에 위치한 도서 명(독도함, 마라도함)
상륙함	상륙 후 고지 탈환의 의미를 내포하도록 지명도 높은 산봉우리 명(비로봉함, 천왕봉함 등)
기뢰부설함/ 기뢰탐색·소해함	기뢰부설함: 6·25전쟁 시 우리 해군이 기뢰전을 수행한 북한의 지역 명(원산함, 남포함 등) 기뢰탐색·소해함: 해군기지에 인접한 군·읍 지역 명(양양함, 해남함, 김포함 등)
군수지원함	함 특성(유·청수 적재) 고려 담수량이 큰 호수 명(천지함, 대청함 등)
잠수함구조함	해양력 확보와 관련 역사적 인지도가 높은 지역 명(청해진함)
수상함구조함	해안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명(평택함, 광양함 등)
잠수함	장-Ⅰ급(209): 바다와 관련하여 국난 극복에 공이 있는 역사적 인물(장보고함, 최무선함 등) 장-Ⅱ급(214): 항일독립운동에 공헌하거나 광복 후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존경받는 인물(손원일함, 안중근함, 유관순함 등) 장-Ⅲ급: 독립운동에 공헌했거나 광복 후 국가발전에 기여한 인물(도산안창호함)

각 함정별 함명의 제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함정의 이름은 해군참모총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해군함정의 공식명칭으로 탄생되며, 함정 진수식에서 공식적으로 함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준에 운영 중인 함정이 퇴역할 경우 새로 건조되는 함정이 그 함명을 이어받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함명으로 부여된 지명, 인명과 관련되는 지역사회 또는 종친회는 통상 해당 함정과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행사 초대 및 방문을 통해 우의를 다집니다.

04 함정의 외관 색은 왜 회색을 사용하나요?

군함은 왜 회색을 사용할까?

- 군에서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아군의 위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장색을 사용합니다. 함정도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주변 환경과 조화되어 형상이 잘 나타나지 않게 하는 '저시인성 색상'을 외관에 칠하여 위장합니다. 작전 해역의 색이나 주변 특징에 따라 선체 색상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군함은 회색 계열을 외관 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군함의 외관은 회색, 아랫부분은 빨간색을 띤다.

그렇다면 왜 군함은 바다나 하늘의 색과 유사한 파란색이 아닌 회색 계열을 사용할까요? 회색 계열은 수평선 색과 유사하여 수평선 근처에서 해무와 조합되면 잘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색은 대표적인 무채색으로 사람의 시각에서 가장 식별이 안 되어 군함의 외관 색으로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군함이 물에 잠기는 부분은 빨간색이다!

- 군함의 아랫부분이 빨간색인 이유는 '방오도료'를 칠하기 때문입니다. '방오도료'는 조개류를 비롯한 여러 생물들이 군함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페인트입니다. 군함이 수십년간 항해를 하면 어마어마한 조개류, 해초류 등이 선저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는 군함의 무게를 상승시켜 기동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박들은 선저 부분에 이 '방오도료'를 칠합니다. '방오도료'에는 '아산화동'이라는 물질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원래 빨간색을 띵니다. 이로 인해 군함이 물에 잠기는 부분은 빨간색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214급 잠수함 '손일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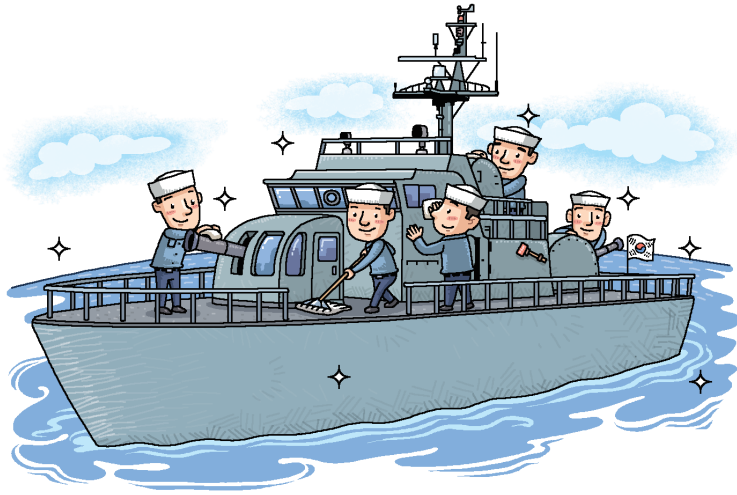
대한민국 해군 209급 잠수함 '장보고함'

잠수함은 왜 검은색을 사용할까?

- 그렇다면 잠수함은 왜 검은색을 외관 색으로 사용할까요? 그 이유는 주로 물속에서 잠항하는 잠수함의 특성상 어두운 바다 속에서 형체를 숨기기 위함입니다. 검은색은 모든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태양광에 의한 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05 함정이 녹슬지 않는 비법은 무엇인가요?

- 일반적으로 철 구조물은 물과 공기에 노출되면 금방 녹이 생깁니다. 항상 바다 위에 떠있는 해군 함정의 선체 대부분은 철로 구성되어 있는 데다 내부에도 수많은 철제장비들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함정은 강한 염분을 지닌 해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녹을 초기에 제거하지 않으면 함정의 뼈대인 선체나 함 외부의 부속품들을 쉽게 부식시켜 함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하지만 해군 함정들을 보면 깨끗한 모습으로 수십 년을 바다 위에서 항해합니다. 해군에는 녹을 없애기 위한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걸까요?



함정의 주요과업, 청소

- 함정 내 일과에서 청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함정 승조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함정 내부를 구역별로 나누어 청소하는데요. 매일 아침 총 기상 후와 오전·오후 일과 시

작 15분 전, 일과 종료 30분 전과 점호 전에도 청소를 실시합니다. 이때 녹을 방지하기 위해 청탁(선박의 녹을 없애는 작업)과 도색 작업도 함께 실시하여 함정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 같은 해군 장병들의 노력으로 오늘도 해군 함정들은 깔끔한 외관과 강력한 전투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정 선저 부분 녹 제거를 위한 비법

- 그렇다면 함정 승조원들이 청소할 수 없는 함정의 선저 부분의 녹은 어떻게 제거할까요? 함정 밑에는 녹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판들이 군데군데 부착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연판'입니다. 아연은 철보다 이온화 경향이 커서 부식이 더 잘 일어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함정 선저 부분에 아연판을 부착하면 선저의 철 부분 대신 아연판에 먼저 부식이 일어납니다. 주기적으로 부식된 아연판을 교체해주기만 하면 함정 선저의 부식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함정이 멋지게 항해할 동안 아연판은 살신성인의 자세로 자신을 부식시켜 함정의 부식을 막고 있는 것이죠.



선저아연판 부식 전



선저아연판 부식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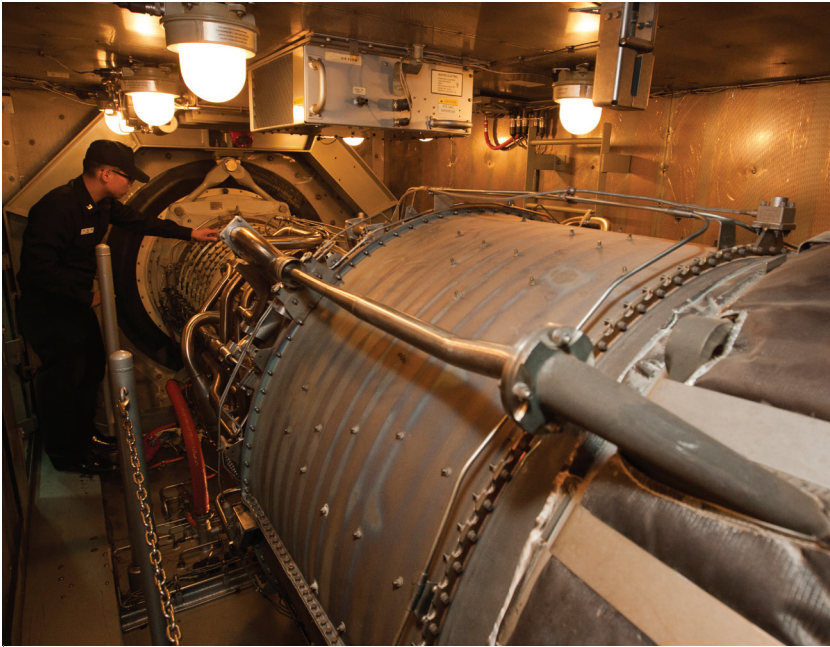


선저아연판 부착

06 함정은 얼마나 속력을 낼 수 있나요?

함정의 속력단위는 노트(kts)

- 함정은 자동차와는 다르게 킬로미터(km/h)가 아닌 노트(kts)를 속력 단위로 사용합니다. 1kts는 약 1,825km/h로 환산이 가능한데요. 해군 전투함 중 가장 빠른 함정인 유도탄 고속함이 최대 40kts의 속력을 낼 수 있는데, 이를 km/h로 환산하면 약 74km/h의 주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해군의 주력 전투함인 초계함(PCC), 호위함(FF,FFG) 및 구축함(DDH, DDG)들은 약 30kts(환산하면 55km/h) 정도의 최대속력을 낼 수 있습니다. 무게가 수천 톤에 달하는 함정들이 어떻게 이 정도의 속력을 낼 수 있는 걸까요?



함의 심장인 엔진의 모습

두 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함정

- 함정이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이유는 함정 내에 특별한 엔진, 즉 고속 추진을 할 수 있는 가스터빈 엔진(제트 엔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정이 항상 고속 항해만을 할 수는 없겠죠. 가스터빈 엔진은 연료 소비가 많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함정들은 연료를 절약하고 일정한 속력을 유지하기 위해 디젤엔진을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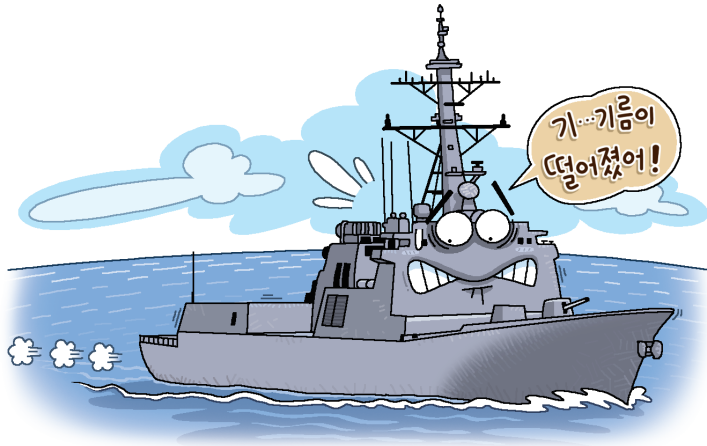
추기사가 군함의 기관실을 정비하고 있다

따라서 함정들은 평상시 디젤 엔진을 사용해 경제속력을 유지하다가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합니다. 최근에 건조되는 함정들은 전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탑재하기도 합니다.

07 함정은 해상에서 연료를 받을 수 있나요?

항해 중 함정에 연료가 부족하다면?

- 항해 중 함정에 연료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처에 군함이 있다면 군항에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지만 망망대해에서 항해 중일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다 위에서 연료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른 함정에 연료와 물자를 공급해주는 함정

- 해군 함정 중에는 다른 함정에 연료와 물자를 공급해주는 목적으로 건조된 함정이 있습니다. '기동군수지원함(AOE)'이라 불리는 이 함정은 해상에서 장기간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전투함정에게 유류수급은 물론 청수, 탄약, 군수품 보급 등 다양한 지원 임무를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대청함, 천지함, 화천함 총 3척의 기동군수지원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이 세계를 탐방하는 순항훈련을 할 때 해군에선 구축함과 기동군수지원함을 같이 보내는데, 그 이유 역시 항해 중 지속적으로 연료 등의 필요한 물자를 보급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함정은 해상에서 정지한 상태가 아닌 기동 중인 상태로 연료를 공급 받습니다. 함정이 움직이면서 연료를 공급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지만, 유류공급 중에는 여러 단계의 안전조치가 되어있고 기름유출 등 만약의 사태에도 완벽히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함과 수급함 양 함정 모두 정밀한 조함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단함 기동군수(유류 보급)



양함 기동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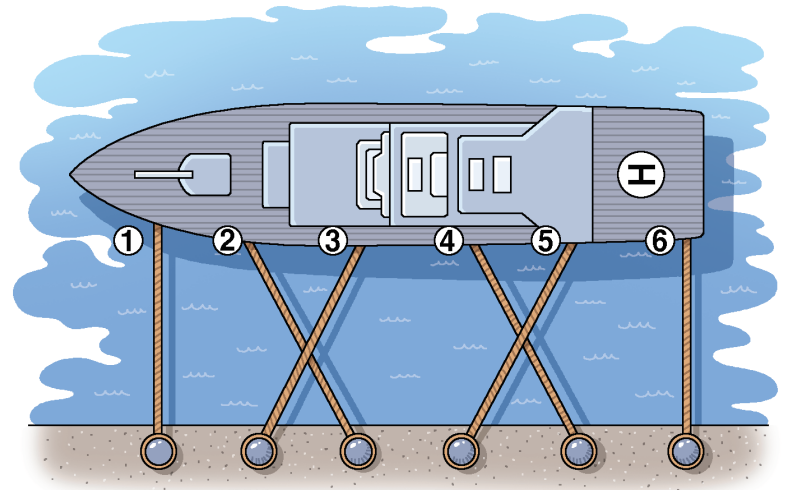
해군만의 재미난 문화로 함정의 유류공급 시 수급함에 유류호스가 완벽히 연결되면 군수지원함에서는 군가, 가요 등 각종 노래들을 취향에 따라 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함 쪽에서는 노래에 맞춰 몇몇 장병들이 안무를 보여주는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이는 장기간의 항해 기간 동안 지친 장병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한 해군만의 격려 문화입니다.

08 함정은 어떻게 부두에 정박할 수 있나요?

훗줄을 이용한 함정 부두 계류

- 바다 위에 떠있는 함정은 정지 상태에서 바람, 파도, 조류 등 다양한 외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정이 부두에 정박해 있을 때는 훗줄을 이용해 부두에 함정을 묶어두게 됩니다.

훗줄은 둘레로 그 크기를 측정하며 단위는 인치를 사용합니다. 함정의 크기에 따라 훗줄의 굵기도 차이가 나는데, 통상 전투함정들은 5인치 훗줄을 사용하며 독도함과 같은 대형함정은 7인치 굵기의 훗줄도 사용합니다. 굵기는 달라도 모든 함정들이 훗줄을 이용해 부두에 정박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독도함 부두 계류 모습

함정 입항 시 가장 먼저 사용하는 훗줄, 2훗줄

위치별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훗줄

- 정박 시 훗줄은 기본적으로 총 6개가 사용됩니다. 먼저 1훗줄은 함정이 부두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고, 2훗줄은 함정이 전진하려는 힘을 없애며, 3훗줄은 함정이 후진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둡니다. 나머지 4, 5, 6훗줄은 각각 2, 3, 1훗줄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함정 입항 시 가장 먼저 사용하는 훗줄, 2훗줄

- 그렇다면 함정이 정박을 위해 부두에 접근할 때 어떤 훗줄을 맨 처음 사용할까요? 바로 2훗줄입니다.



함정 장병들이 훗줄을 결박하고 있다



함정이 균형에 정박해있는 모습

함정은 보통 앞으로 전진하면서 부두로 접근을 하는데 이때 함정의 전진하는 힘을 없애기 위해 2훗줄을 가장 먼저 던져 부두에 고정하게 됩니다.

09 함정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 대한민국 해군 함정 중 가장 큰 함정인 독도함. 갑판만해도 축구장 2개를 붙여놓은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며 무게는 무려 14,500톤에 달한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함정의 무게는 어떻게 재는 걸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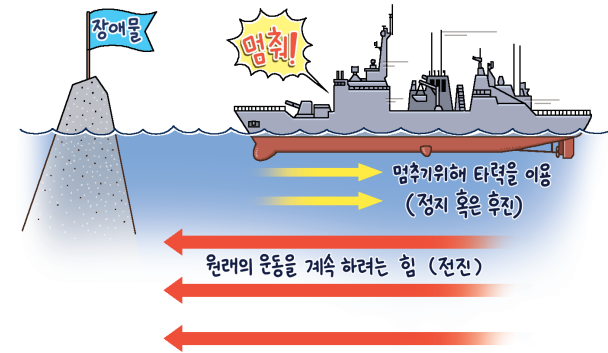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들어가 넘치는 물을 보고 ‘유레카!’라고 외치며 발견한 원리와 같습니다. 물체의 중량은 밀어내는 액체의 중량과 같다는 원리인데요. 함정이 수면에 뜰 때 밀어내는 물의 중량(배수량)을 통해 함정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수면과 맞닿아 있는 함정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현측을 잘 보면 밑줄 같은 것이 있고 숫자가 10단위로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을 ‘흘수’라고 하는데, 수면에 접하는 함정의 흘수선을 관측하여 함정이 배제한 물의 중량을 계산해 함정의 무게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10 함정에도 브레이크가 있나요?

- 함정이 전속으로 항해를 하다 갑자기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자동차처럼 급브레이크를 밟아 그 자리에 정지할 수 있을까요? 함정의 급정거가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의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함정에는 별도의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함정은 어떻게 정지할까요? 전진 중인 함정은 원래의 운동을 계속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함정의 기관을 정지하거나 후진으로 전환하여 전진하려는 힘을 상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함정은 서서히 정지하게 되죠. 물론 조류나 바람 같은 외력의 영향으로 인해 함정의 완전한 정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참고로 함정이 전진 중에 기관을 후진전속으로 걸어서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를 ‘최단정지거리’라고 합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최단정지거리가 선체 길이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 함정이 눈앞에 장애물을 발견하고 최대한 빨리 급정거를 하려고 해도 최소 선체길이의 몇 배 이상은 전진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협수로 등에서 안개가 끼거나 눈·비가 내려 시정이 나빠진다면 미리 속력을 낮추어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 함정은 왜 견시를 운영하나요?

안전항해를 위한 필수조건, 견시

● 흑시라도 항해 중 함교에 올라갈 기회가 생기신다면 “좌현 견시 보고! 어선 1척 방위 000도, 거리 0,000야드, 좌현에서 우현으로 이동 중”과 같은 보고를 수시로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함교 옆에서 ‘견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이 육안으로 식별한 것들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최첨단 레이더들을 보유한 군함에서 육안으로 접촉물을 확인하고 보고하는 ‘견시’를 왜 굳이 수행하는 것일까요?



견시근무를 서는 해군 장병. 칼바람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바다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견시의 임무

● 군함에서 육안으로 접촉물을 확인하고 상황을 보고하는 견시는 육군의 초병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본다’는 뜻만 보면 그저 함교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일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견시는 상상 이상으로 중요하고도 힘든 임무입니다. ‘공중·수중·수면으로부터 소리, 색깔, 부유물 냄새, 불빛 등 무엇이든 발견 또는 인지와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근무수칙에 따라 철저하고 상세하게 보고해야 하는 분주하고 중대한 임무입니다. 견시를 할 때는 주로 육안 및 쌍안경을 사용하며, 발견하는 접촉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자이로스코프(Gyroscope)로 이용 방위를 측정합니다.



함정의 견시가 자이로 리피터를 보고 있다



함정의 견시가 전방을 감시하고 있다

흑자는 최첨단 레이더를 두고 왜 어려운 방법을 쓰느냐고 물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바다를 잘 모르는 말씀입니다. 어망·어구 등 함정 운항에 방해가 되는 각종 부유물은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견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함정의 안전을 위해 견시는 필수적이며, 특히 날씨가 나쁠 때는 레이더 성능이 떨어져 견시 근무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루 종일 바다를 바라보는 견시 임무. 언뜻 듣기엔 꽤나 낭만적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지에서는 부드럽고 상쾌하게 느껴지는 바닷바람도 함정 외부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견시병에게는 그리 매서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함정의 속력까지 더해져 바람은 몇 배 더 날카로워집니다. 야간 견시 때 눈·비·바람이라도 있는 날이면 견시의 고충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12 잠수함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① 마스트

잠수함 잠망경, 레이더 및 전자전 장비와 같은 탐지장비, 통신장비, 디젤 잠수함의 축전지 충전을 위한 스노클, 마스트 등 여러 마스트가 존재합니다.

② 함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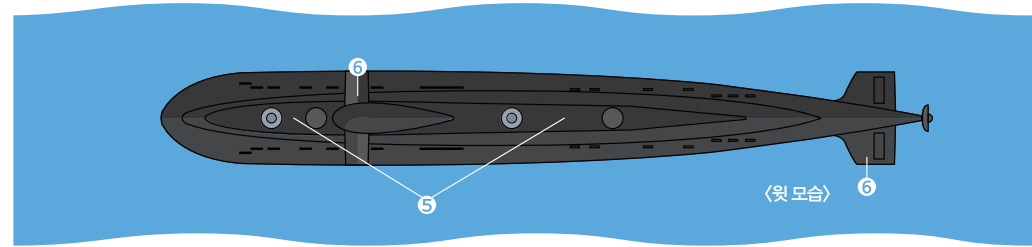
사령탑이라고도 불리며 부상 항해시 함장이나 당직사관이 위치하여 함을 지휘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각종 마스트들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통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마스트들을 내렸을 때 함교탑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③ 탐지센서

물속에서 음파를 이용해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소나(SONAR: Sound Navigation And Ranging)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동 소나, 능동소나, 측면배열소나, 방수소나 등이 있습니다.

④ 추진기

잠수함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해수를 밀어내는 장치로 흔히 스크류라고 부르며 잠수함의 함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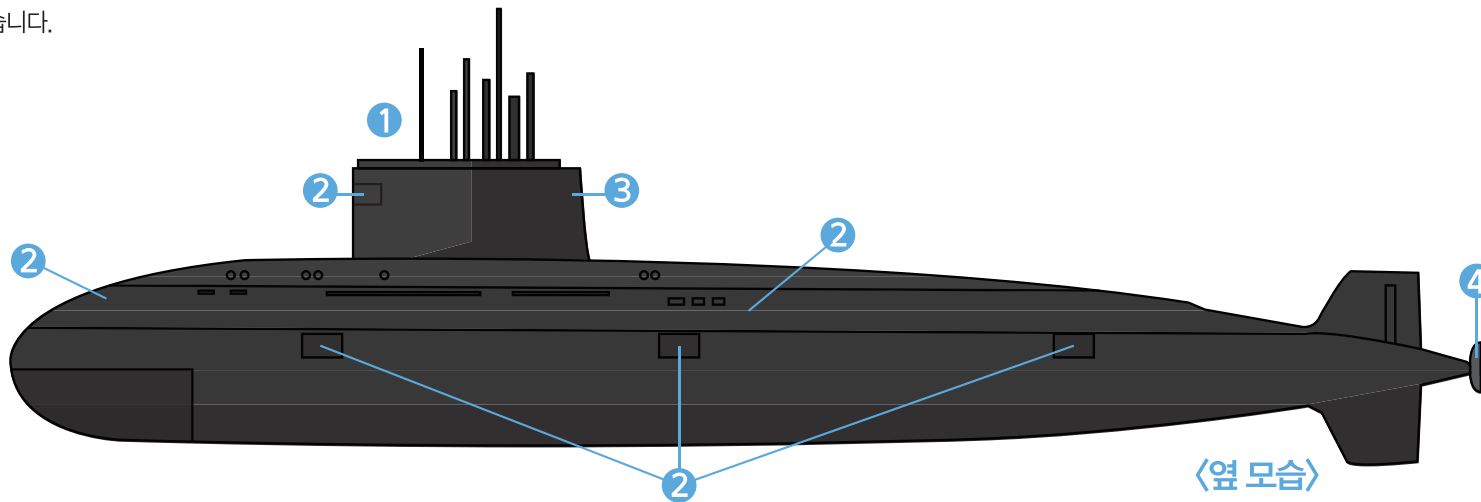


⑤ 외부갑판

동그란 선체상부에 '평평하게' 갑판을 설치하여 출·입항 시 부두에 훗줄 연결작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⑥ 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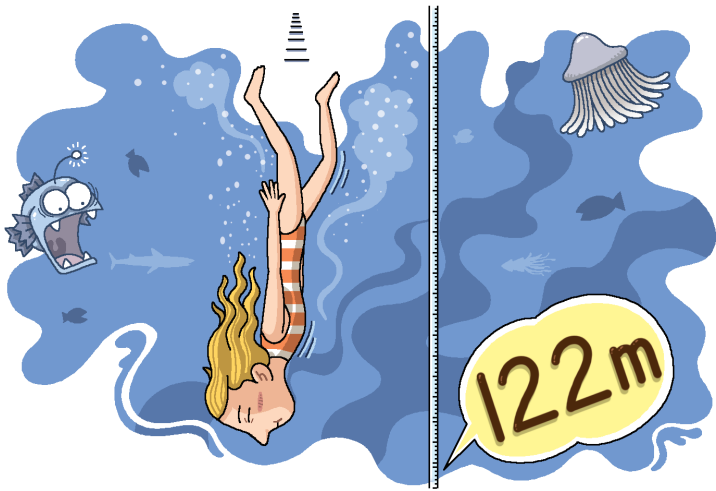
좌수함의 심도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수평타와 좌우 움직임을 조작하는 수직타가 있습니다.



13 잠수함이 잠항할 수 있는 수심은 얼마나 깊나요?

바다의 신비를 들여다보고 싶은 인간의 욕망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바다 깊이 잠수하려는 인간의 욕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간이 맨몸으로 가장 깊이 잠수한 기록은 미국의 여성 잠수 전문가 타냐 스트리터(Tanya Streeter)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03년, 산소통 없이 수심 122미터까지 내려가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잠수함은 과연 어디까지 잠항할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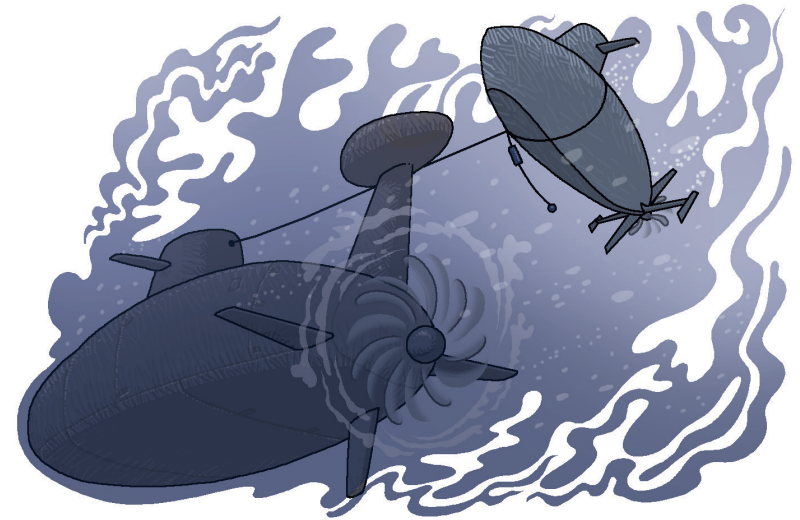


수심 750미터까지 잠항할 수 있는 러시아 'S(시에라)급' 잠수함

잠수함이 잠항 후 항해하는 심도를 '잠항심도'라고 합니다. 잠수함의 잠항심도가 깊어질수록 잠수함의 소음은 감소하게 되며, 수상함의 소나 음파로부터 탐지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홀랜드 잠수함을 시작으로 하는 초창기 잠수함의 잠항심도는 40~60미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의 전술·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잠수함은 2차 세계대전 말에 100미터, 1950년대에는 200미터 이상을 잠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의 잠항심도는 600미터 이상, 1984년에 건조된 러시아의 시에라급 잠수함은 750미터 이상을 잠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잠수함 잠항심도가 높다는 것은 심해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재질의 강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혹시 영화 '유령'을 본적이 있으십니까? '유령'에 나오는 잠수함은 러시아의 시에라급 잠수함으로, 러시아 해군이 자랑하는 최신의 공격용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영화에는 '유령'이 통신부 이를 이용해 적국의 잠수함을 심해로 끌고 내려가 파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장된 연출이라 할지라도 잠수함의 최대 잠항능력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투능력 및 생존성 향상에 있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4 디젤-전기추진, AIP,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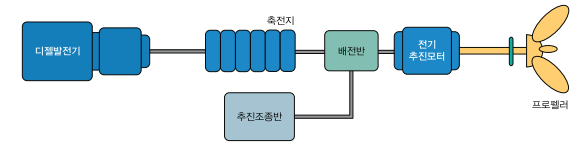
- 잠수함 추진체계는 크게 디젤-전기 추진방식과 AIP 추진방식, 원자력 추진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추진체계의 원리에 따라 잠수함들도 분류가 됩니다.



디젤-전기 추진시스템 장착한 대한민국 209급 잠수함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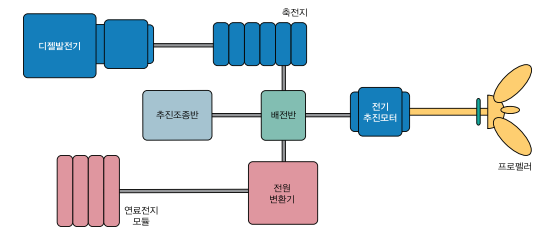
- 디젤-전기 추진체계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가동해 발전기를 구동시키고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로 추진모터를 작동하는 잠수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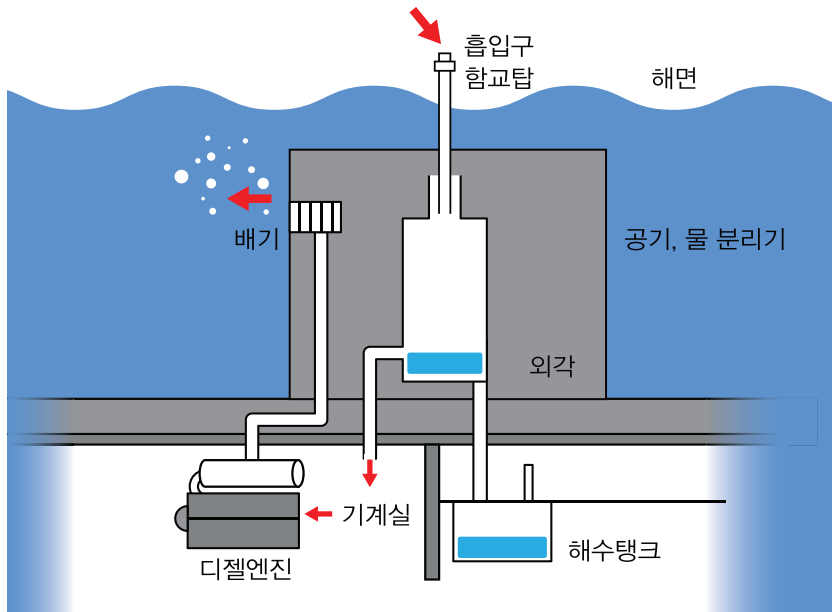
대한민국 해군의 209급 잠수함이 디젤-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디젤-전기 잠수함은 잠항 중 충전된 전기를 다 사용하면 흡기통을 물위로 내놓고 엔진을 다시 가동하여 전기를 충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스노클’이라고 하는데, 디젤 잠수함은 일정 간격으로 스노클 과정을 통해 전기를 충전해야 합니다. 잠수함이 가장 취약한 시기가 스노클을 할 때입니다. 충전 시에는 스노클 마스트가 수면 상에 노출되어 있고 열과 소음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적 수상함, 항공기 등에 발견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AIP 추진 잠수함

-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추진 잠수함은 디젤-전기 추진 잠수함의 약점인 잠항 지속시간을 향상시킨 잠수함입니다.



축전지의 충전을 위해 스노클을 실시해야 하는 디젤-전기 추진 체계와 달리 잠수함 내에 저장된 산소 및 연료를 사용하여 수중에서 축전지 충전 및 추진에 필요한 전원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스노클의 원리

이 AIP 시스템을 탑재하면 잠항지속시간을 2~3주 정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214급 잠수함이 대표적인 AIP 추진 잠수함입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 그렇다면 '강대국들의 전유물'로 불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어떤 것일까요? 이는 원자로 내에서의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 열에너지를 이용해 추진하는 잠수함입니다. 고농축 우라늄 U-235를 핵분열하면 고온에 의한 증기가 발생합니다.

이 고온고압의 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추진하는 원리인데요,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퇴역 시까지 연료 교환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잠항지속시간에 거의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적재 식량의 제한과 승조원들의 정신적인 한계만 아니라면 원하는 기간만큼 잠항할 수 있는 잠수함입니다.



AIP 추진시스템 장착한 대한민국 214급 잠수함

그러나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기조에 따라 소수의 핵 보유국을 제외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 국가만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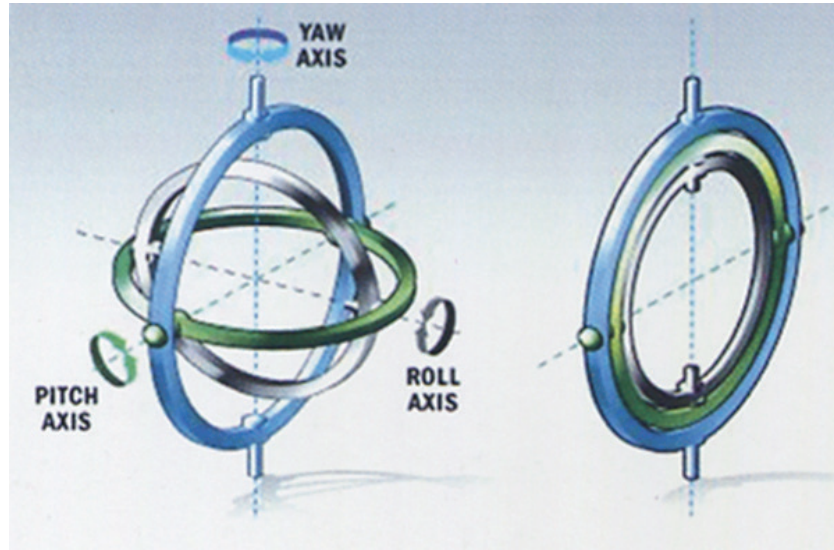
15 잠수함은 수중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나요?

육지물표 또는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하는 일반 선박의 위치 확인

●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육지의 물표를 이용하거나 위성항법장비(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수함은 수중에 있기 때문에 수상함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관성항법을 이용한 잠수함의 위치 확인

● 그래서 잠수함은 관성항법장치(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를 탑재하여 수중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성항법장치는 수중에서 관성을 이용해 자신의 이동거리와 방향을 계산합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관성을 이용하여 이동거리와 방향을 계산한다

기본적인 동작원리는 고속으로 선화하는 물체(Scope)의 축이 관성에 의해 진북을 지시하는 원리로, 함 운동에 따라 물체 외부의 수평장치가 전후·좌우로 움직이면서 운동신호를 검출, 진북과 비교하여 함 위치를 지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얻은 이동거리와 방향을 해도에 표시함으로써 잠수함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수중에서는 조류가 흐르고 또 잠수함이 3차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성항법장치를 이용해 계산된 위치는 실제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고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해역의 조류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동해는 0.5노트, 서해는 1노트 정도입니다. 만약 조류를 계산하지 않는다면 잠수함이 동해에서 잠항으로 1시간 항해 시 위치오차가 0.5마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잠수함에는 이러한 위치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류와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 등 여러 가지 보조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일정수준의 오차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치오차 조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일정 수심까지 올라와 위성항법장치로부터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16 해군의 항공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해군의 팔방미인, 해군 항공기

● ‘해군에 왜 항공기가 있을까?’하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미 해군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단의 비행기는 모두 해군 소속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굳이 항공모함의 함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을 잡기 위한 대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높아가는 동북아 안보 불안전성 속에서 입체적 전력을 투사하기 위해 항공 전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무를 수행중인 해상초계기(P-3)



모든 항공기는 세척장에서 염분을 제거

대한민국 해군의 항공 전력은 독도-이어도-백령도를 잇는 한반도 전 해역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제공함은 물론, 대함전·대잠전, 탐색구조작전, 기뢰부설, 인원수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주요 전력은 해상초계기(P-3)와 해상작전헬기(LYNX)입니다.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는 적 잠수함 및 공작모선의 예상 침투로를 탐색하며 우리해역에 대한 빈틈없는 초계작전을 수행합니다.

사워를 좋아하는 해군 항공기

● 해군 항공기는 그 특성상 해상에서 대부분의 임무를 수행하므로 염분에 항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의 기체를 부식시키는 염분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은 항공기에 특수도료를 칠하는 등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활주로 옆에는 임무를 마친 항공기를 씻어내기 위한 항공기 세척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상에서 비행을 실시한 모든 항공기는 세척장에서 염분을 제거합니다. 세척 시 별도의 세제 사용은 없으며 고압으로 분사하는 물의 힘으로 기체를 씻어냅니다. 이때 항공기의 프로펠러를 같이 회전시켜 골고루 세척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항공기의 기체를 부식시키는 염분으로부터 기체를 보호하기 위해 해군은 항공기에 특수도료를 칠하는 등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17 하늘을 나는 항공기가 물 속 잠수함을 어떻게 찾나요?

● 해군에는 적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작전헬기와 해상초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를 나는 항공기로 물 속 잠수함을 찾아 격침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해상작전헬기입니다. 해군에는 링스(LYNX)와 와일드 캣(AW-159) 헬기가 있습니다. 이 헬기들은 디핑 소나를 운영합니다. 디핑 소나는 헬기가 공중에서 정지 상태로 수중으로 내리는 음탐장비입니다. 물 속 깊이를 자유롭게 조절하며 잠수함의 위치와 이동방향을 잡을 수 있는 능동 소나입니다.



링스(LYNX) 헬기가 잠수함 탐지를 위해 디핑소나를 내리고 있다.

소나는 음파로 수중 물체의 종류와 방위, 거리 등을 알아내는 장비입니다. 육상의 레이더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소나에는 직접 음파를 쏘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향음을 탐지하는 능동 방식과 수중 물체에서 일으키는 소음을 탐지하는 수동 방식이 있습니다. 능동 방식은 탐지 거리가 길고 정확도가 높은 반면 음파를 쏘면서 본인을 노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해상작전헬기는 본인의 위치가 노출되어도 괜찮습니다. 잠수함은 우리 해상작전헬기에게 고양이 앞에 쥐니까요. 헬기는 오랜 시간 동안 하늘을 날며 수동 방식으로 적 잠수함이 내는 소리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적 잠수함을 탐지해 쟁싸게 격침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상초계기입니다. 해군에서는 P-3 해상초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P-3 해상초계기는 주로 소노부이를 운영합니다. 소노부이는 물속의 청진기입니다. 마치 청진기와 같이 물속의 소리를 듣고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P-3 해상초계기는 바다 위에 소노부이를 투하해 잠수함이 내는 소리를 탐지합니다.



P-3 해상초계기가 동해 초계비행을 하고 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 소노부이는 플라스틱 원통에 들어있습니다. 바다에 떨어지면 바닷물이 유입돼 해수배터리가 작동합니다. 이때 수면 아래는 청음기가 수면 위에는 안테나가 있어 물속 소리를 해상초계기에 전달해줍니다. 소노부이는 목적과 기능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적 잠수함을 찾아낼 때는 능동과 수동 소노부이를 사용합니다. 능동 소노부이는 한 발로도 적 잠수함 위치를 산출할 수 있으나, 수동 소노부이는 방향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발을 투하해 교차점으로 적 잠수함을 찾아냅니다.

잠수함이 만들어내는 자력 에너지로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구는 하나의 큰 자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남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속에 잠수함 같은 강자성체(철)가 존재한다면 지구자기장은 왜곡됩니다. P-3 해상초계기는 이 자력 에너지를 감지하여 잠수함이 물속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P-3 해상초계기에 꼬리가 튀어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지자기 탐지 장비 때문입니다. 지상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지나가도 반응한다고 하니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겠죠?

03

대한민국 해군이 그려온 항적 걸어온 항로

- 01 대한민국 해군·해병대의 탄생
- 02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
- 03 대한민국 해군이 직접 만든 최초 군함, 최초의 항공기
- 04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여군 이야기
- 05 6·25 전쟁 시 해군·해병대의 활약
- 06 대한민국 해군·해병대의 월남 파병
- 07 바다 위의 군사분계선 NLL
- 08 북한의 끊이지 않는 도발과 응징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제1연평해전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제2연평해전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청해전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천안함 피격사건
 -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연평도 포격도발
- 09 전 세계를 누비는 해군
- 10 국가전략부대, 해군 잠수함 부대
- 11 해군특수부대, UDT/SEAL과 SSU
- 12 국민을 위한 헌신, 해상사고 탐색구조작전
- 1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해군 관함식
- 14 21세기 청해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간단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해군」 Chapter 03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탄생, 최초의 전함 이야기, 주요 해전 및 부대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1 대한민국 해군·해병대의 탄생

해사대 조직과 해군 장병 모집

● 해방의 종소리가 울린 지 1주일도 안된 1945년 8월 21일, 자유의 기쁨이 가득한 서울. 이 날 서울의 거리에는 몇몇 청년들이 '조국의 광복에 즈음하여 앞으로 이 나라 해양과 국토를 지킬 뜻있는 동지들을 구함'이라는 내용의 벽보를 붙입니다.

그 청년들의 이름은 손원일, 민병중, 김영철, 정궁모, 한갑수! 광복 직후, 군대를 새로 조직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은 조국 바다에 대한 애착과 부국강병을 향한 뜨거운 의지 하나만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해사대는 대한민국 해군 건설의 초석이 됩니다.



3군 중 가장 먼저 창설한 해군

● 손원일 제독이 벽보를 내건지 얼마 되지 않아 해군이 되고자 하는 청년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손원일 제독은 1945년 11월 11일 오전 11시, 서울 관훈동 표훈전(현재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안국역 6번 출구에서 100미터)에서 해안경비를 담당할 해방병단(海防兵團)을 창설하고 결단식을 거행하였습니다. 1894년 7월 15일 조선 수군이 폐지된 지 51년 만에 이 땅에 다시금 해군이 탄생한 것입니다.



해방병단 결단식



해병대 창설요원들의 기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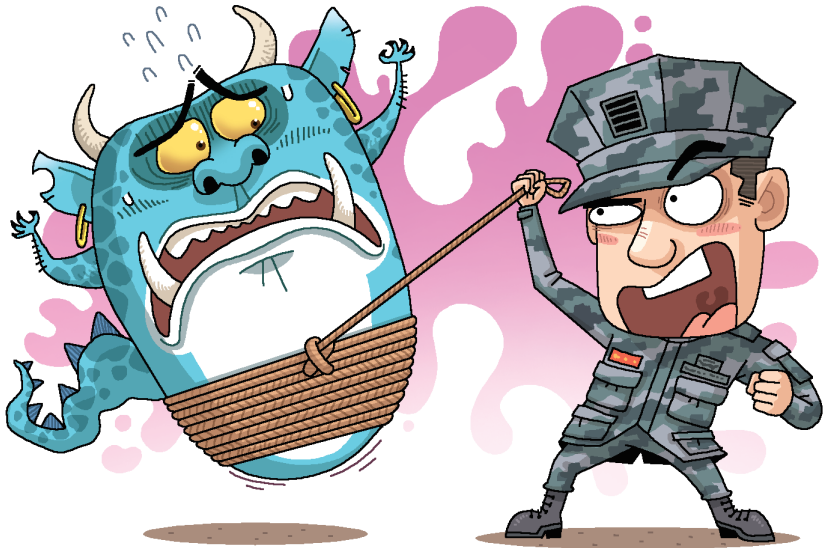
대한민국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은 1946년에 창설된 육군과 1948년에 창설된 공군보다 훨씬 앞서 조직되었습니다. 손원일 제독이 11월 11일을 창설일로 정한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삼가 이 몸을 바치나이다'라는 표어 아래 '바다의 신사'인 해군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선비사(士)를 형상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해방병단은 1946년 1월 18일 미 군정청으로부터 정식 군사단체로 인정받았으며 6월 15일에 군정법령에 따라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따라 같은 해 9월 5일 대한민국 해군으로 정식 발족합니다.

해병대 창설

● 이어서 '귀신 잡는 해병대'의 창설을 같이 살펴볼까요? 1948년 10월 19일 여·순 반란사건이 일어나자 해군은 반란군 248명을 생포하고 반란군이 사용하던 선박 6척을 나포하는

전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안 전투를 위한 육전대의 필요성을 느낀 손원일 제독은 해병대 창설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승낙을 얻어냅니다. 1949년 2월 1일 손원일 제독은 신현준 중령을 초대 해병대사령관으로 임명하여 해병대 창설을 추진토록 합니다. 그리하여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해군장병 380명(장교 26, 하사관 54, 병 300명)의 병력으로 해병대가 창설됩니다.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 ‘해군창설의 주역’인 손원일 제독은 독립운동가인 손정도 목사의 아들로 1909년 평양에서 출생했습니다. 손원일 제독은 광복 전 상하이 해관 경비함과 상선 생활을 경험하면서 바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방 후 해군 창설에 앞장섰으며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방병단이 정식으로 해군이 되면서 초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 대한민국 해군은 미국과 일본이 사용하던 일부 함정만을 인수했을 뿐 제대로 된 전투함은 단 1척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가의 재정상황과 기술력으로는 전투함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손 제독은 ‘함정건조기금 각출위원회’를 구성하여 전투함 확보를 위한 기금모금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해군장병들은 적은 봉급에도 계급별로 일정한 금액을 매달 기부했고 손원일 제독의 부인 홍은혜 여사가 주도한 해군부인회는 샷바느질과 바자회를 통해 모금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다양한 모금운동의 결과로 1만 5천 달러가 모였습니다. 여기에 정부 보조금 4만 5천 달러가 더 해지면서 대한민국 해군은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PC-701)을 구비하였습니다. 손원일 제독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2, 제3의 전투함을 구입하기 위해 끊임없이 미국방성 및 정부요인들을 설득하였고 마침내 해군은 백두산함과 동종의 전투함인 금강산함(PC-702), 삼각산함(PC-703), 지리산함(PC-704)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전투함들은 후에 대한해협해전과 통영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등 6·25 전쟁에서 맹활약을 펼쳐 조국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손원일 제독은 이후에도 해군의 기틀을 다지는데 헌신하였으며 전역 후에는 국방부장관과 서독 대사로도 재직했습니다. 그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항상 국가와 군을 위해 애정을 쏟으며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조국과 해군을 걱정하다 1980년 2월 15일 타계했습니다.



손원일 제독 가족사진



손원일 제독 등상

02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 '백두산함'

전투함이 없는 해군

- 앞서 살펴보았듯이 광복 후 우리 해군에는 쓸만한 군함이 없었습니다. 보유한 함정은 해안경비를 위해 미군으로부터 인계 받은 상륙주정(부대 및 장비 수송용으로 건조된 주정)과 일본군이 사용했던 소해정(수중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 몇 척이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이 함정들은 크기가 작아 함포를 장착할 수 없었습니다. 즉 군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전투함 확보를 위한 모금운동

-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해군은 전투함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장병들의 모금활동과 부인회의 샷바느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1만 5천 달러를 모금하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4만 5천 달러의 정부 보

조금을 직접 전달하면서 손원일 제독에게 미국에 가서 전투함을 사오라고 지시했습니다.

PC-701, 백두산함

- 손원일 제독이 미국에서 전투함을 수소문한 결과 미 해양대학교에서 퇴역한 구잠함을 실습선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군은 1949년 10월 17일, 이 실습선을 1만 8천 달러에 인수합니다. 우리 해군은 함정을 인수하기 전 이미 함명을 '백두산함'으로 정해두었는데 놀랍게도 이 함정의 미측 함명 또한 '엔슨 화이트헤드함(Ensign Whitehead)'이었습니다. 해군은 백두산함의 정비작업을 끝낸 후 1950년 1월 24일 하와이 호놀룰루항으로 입항하여 3인치 포 1문을 장착했고 광으로 가서 포탄 100발을 구입한 후 1950년 4월 10일 진해에 입항했습니다.



백두산함의 모습



백두산함 명명식이 거행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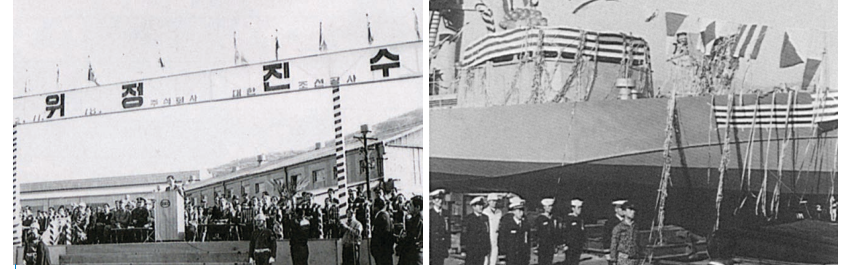
03 대한민국 해군이 직접 만든 최초 군함, 최초의 항공기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기 '해취호'

●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는 1951년 대한민국 해군 압록강함(FF-62) 전기관으로 근무하던 조경원 중위로부터 탄생했습니다. 해군은 미 군정 당국과 교섭하여 미군의 비행사고로 목포항에 폐기처분 예정이었던 미 공군 AT-6형 항공기를 교육 자료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에 인수했습니다. 손원일 제독의 승인을 받은 조경원 중위는 4개월의 수리·개조기간을 거쳐 육상 비행기를 수상 비행기로 개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951년 8월 15일, 해군 최초의 수상정찰기이자 대한민국 1호 항공기 '해취호(海鷲號 : 바다의 독수리)'가 탄생합니다. 해취호는 한국 함대에 예속된 최초이자 유일한 항공기로서 취역 이후 해상정찰, 업무연락, 인원이송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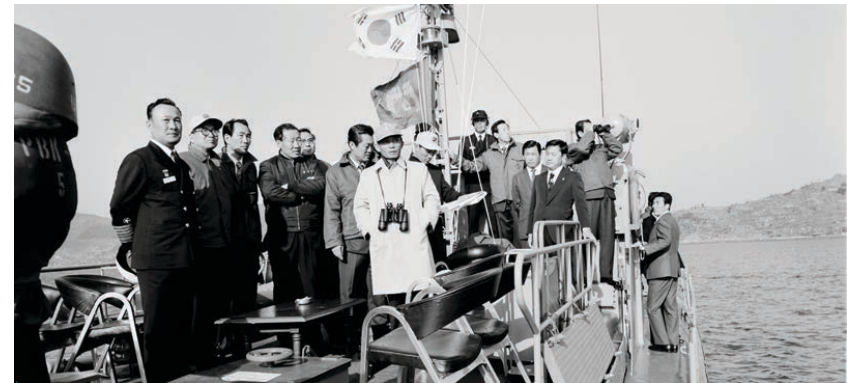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 해취호의 모습



학생호 명명식 및 진수식

학생과 교직원들의 염원을 담은 '학생호'

● 대한민국 해군은 한정된 군사원조와 예산으로 더 많은 전투함을 도입하기 위해 미국 예비함대에 편입된 함정을 인수하고 진해에서 정비하여 재취역하는 방식으로 전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국산 경비정 학생호 시승

그러던 중 1972년 11월 18일, 대한민국 해군은 전국 800만 학생과 20만 교직원들이 모은 애국 방위성금으로 70톤급 국산 고속정을 건조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체 기술로 건조된 최초의 국산 고속정에는 '학생호'라는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이후 1974년도부터 추진된 울곡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해군은 전투함 건조에 박차를 가해왔고 국산 전투함을 주축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게 됩니다.

04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여군 이야기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 대한민국 여군의 역사는 1949년 2월 7일 간호장교교육대가 설치되고 한춘화 등 해군 간호장교 제1기 20명이 임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군 자체적으로 양성한 간호장교는 1969년 5월, 제17기까지 총 160명이 배출되어 6·25전쟁에서 부상자 치료 등 전후방 각지에서 활약하며 해군·해병대 장병들의 건강을 보살폈습니다.



훈련중 촬영한 해병 4기 여군들의 모습

126명의 여학생과 여교사

- 6·25전쟁 중인 1950년 8월 31일,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던 해병대가 제주도에서 대원들을 모집하자 여자의용군 126명이 해병 4기로 자원입대했습니다. 여학생들과 일부 교사가

주축이 된 이들은 '북한군이 제주도로 쳐들어와서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해병대에 입대해 북한군을 한 명이라도 죽이고 죽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자원했으며, 남자 신병 교육생들과 똑같은 훈련을 6주간 받은 뒤 126명 전원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이들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소위부터 일등수병(상병)까지 차등적으로 계급을 부여받았고 나이가 어려 귀가 조치된 일등수병 51명을 제외한 나머지 75명은 해군통제부(지금의 해군작전사령부) 각 참모부 및 직할 부대와 해군 병원에 배치되어 행정, 보급, 교환, 유선 및 무전반, 간호보조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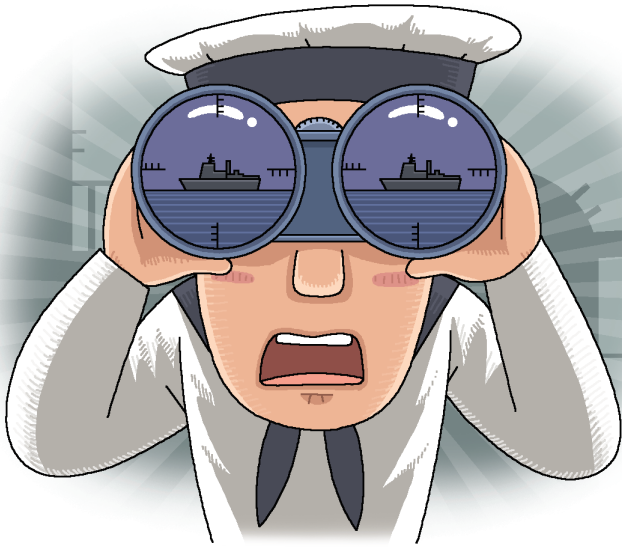
해군·해병대 소위로 임관한 여군들

전쟁 중 조국을 위해 자신의 소임을 다한 이들은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이후 순차적으로 전역했습니다. 1955년 1월 17일 해병 4기 중 마지막으로 남았던 이순덕 중위를 끝으로 해병 4기 여군은 모두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군·해병대는 간호장교 외에 여군을 별도로 모집하지 않다가 1999년 2월 해군사관학교 제57기로 여생도 21명이 입교하면서 해군에서 여군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05 6·25 전쟁 시 해군·해병대의 활약

대한민국을 구한 대한해협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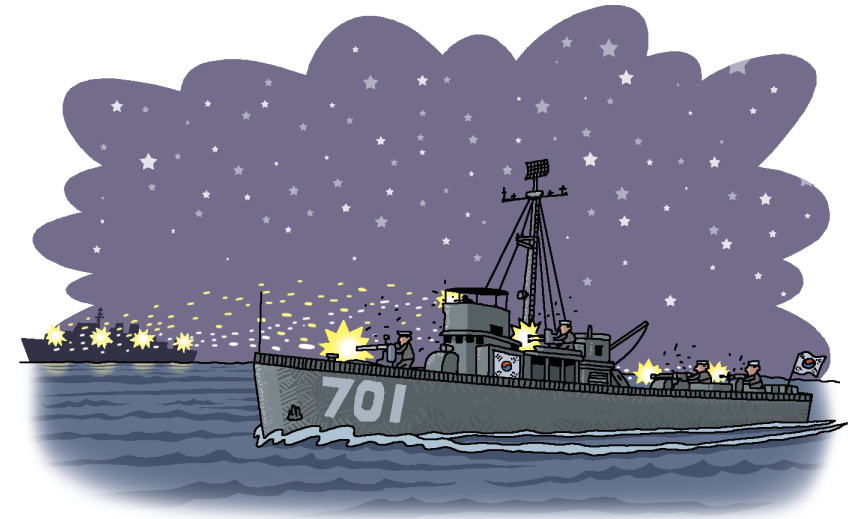
-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전투함인 백두산함은 6·25전쟁 시 첫 승전을 가져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오전, 백두산함(PC-701)은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2척의 함정을 지휘하여 동해안으로 상륙하려는 북한군을 격멸하라는 지시를 받고 오후 3시경 진해를 출항했습니다.



백두산함은 부산을 거쳐 북상하던 중 괴선박을 발견하고 정선을 지시했으나 괴선박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추적 후 밤 10시 30분, 괴선박의 100미터 주변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갑판상의 중기관총과 기관포를 식별했고 완전무장한 북한군도 발견했습니다.

상부로부터 괴선박 격침 명령을 받은 백두산함은 3인치 주포를 발사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양측의 치열한 교전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1시 10분경 백두산함이 적함과의 거리를 좁혀가며 쏜 포탄이 명중했고, 기관실이 파괴된 적함은 연기에 휩싸이며 좌현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적함에서 쏜 포탄이 백두산함의 조타실을 관통했고 조타수 김창학 삼등병 조와 장전수 전병익 이등병조가 적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합니다.

26일 오전 1시 40분, 치열한 전투 끝에 백두산함의 집중사격을 받은 괴선박은 대한해협 바다 깊숙이 침몰합니다.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이 괴선박은 부산으로 향하던 북한군 무장수송선이었습니다. 몇 시간만 늦어도 600여 명에 달하는 북한군 특수요원들이 부산 주변에 침투하여 후방을 교란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6·25전쟁은 더욱 어렵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대한해협해전은 6·25전쟁 초기 남한의 전후방 지역을 동시에 전장화하려던 북한의 기도를 사전에 봉쇄하고 아군이 해상 통제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6·25전사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값지고 중요한 해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천상륙작전의 서막을 연 팔미도등대작전

● 6·25전쟁이 터진 후 80여 일,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한 전 국토가 북한의 수중에 들어가 있을 때였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군 수뇌부에서는 인천 지역의 조수 간만 차가 너무 크고 접안 지역이 좁은 데다 시가전도 치러야 하는 최악의 지형이라며 인천상륙작전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맥아더 장군 스스로도 작전 성공률이 5,000 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아더 장군은 이런 난점이 오히려 적의 허점을 찌르는 것이라며 반대자들을 설득해 작전승인을 얻어냈고 9월 15일을 작전개시일로 잡았습니다.

인천으로 상륙하려면 월미도를 먼저 확보해야했습니다. 문제는 야간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함대를 유도할 등대 불빛이 필요한데, 월미도에는 마땅한 등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월미도 앞에 있는 팔미도라는 작은 섬에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해군정보부대 중 하나인 켈로부대에 팔미도 등대를 점령하고 있는 북한군들을 사살하고 불빛을 밝히려는 임무가 부여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본 인천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전 첩보수집작전 참전대원들

켈로부대는 최정에 요원 6명을 뽑아 팔미도에 잠입시켰습니다. 팔미도 등대에 불을 밝혀야 하는 시각은 작전이 개시되는 15일 00시, 요원들이 섬을 지키던 북한군을 어렵게 해치운 뒤 등대를 점령한 것은 14일 밤 11시 30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등대의 점등장치 밸브가 빠져 있었고 대원들은 칠혹 속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등대에 불을 켤 수 없었습니다.

그 때 낮 나간 모습으로 바다에 드러누워 버린 한 대원의 손에 뭔가가 걸렸는데 그것이 바로 점등장치 밸브였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대원들은 다음날인 16일 오전 1시 45분, 등대에 불을 밝히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작전 개시가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지만 초조하게 불빛만을 기다리던 함대 세력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등대 불빛을 신호로 함정 260여 척과 병력 7만여 명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 결과 세기의 도박이라 불리던 인천상륙작전은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상륙작전은 우세한 전력을 앞세워 기습적으로 실시한 덕분에 성공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이 팔미도 등대에 불을 붙이지 못했다면 인천상륙작전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눈부신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뒤에는 성공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건 켈로부대 대원들의 활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 명성을 얻은 통영상륙작전

● 이번에는 해병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북한군은 6·25 발발 후 8월 중순에 포항, 대구, 마산 방면으로 압박을 가하면서 부산을 향해 총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번에는 거제도를 통해 마산, 진해, 부산 방면으로 진출을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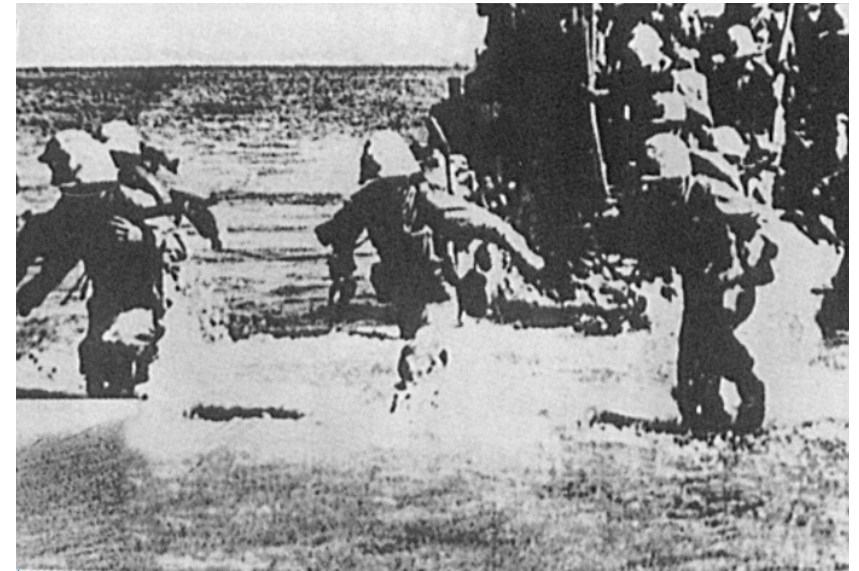
8월 15일, 북한군은 7사단 예하 증강된 1개 대대(650명)를 투입하여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던 통영에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아군 경찰병력의 저항을 무력화시킨 북한군은 8월 17일 새벽 1시에 통영 시가지지를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8월 16일, 손원일 제독은 마산 진동리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해병대 김성은 부대로 하여금 거제도에 상륙하여 북한군의 진출을 좌절시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김성은 부대장은 현지상황을 파악한 후 거제도 대신 통영으로 직접 상륙하여 적을 격멸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군 본부의 승인을 얻은 김 부대장은 8월 17일에 해군함정의 지원을 받아 통영 동북단 장평리에 기습 상륙했습니다.



통영상륙작전시 상륙하는 해병대원

8월 18일 새벽, 총공격을 개시하여 전술적 요충지인 원문고개와 망일봉을 점령한 해병대는 해군 함포사격과 공군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다음 날 새벽 여황산을 점령한 후 오전 10시경 통영 시가지지를 완전 탈환했습니다. 우리 군이 통영 시내를 탈환하자 북한군 패잔병 200여 명은 아음을 틈타 어선을 탈취해 고성방면으로 도주했습니다.



통영에 상륙하는 한국 해병대 김성은 부대

이후 북한군은 한 달 동안 9차례에 걸쳐 원문고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했지만 우리 군으로부터 번번이 격퇴 당했고, 마침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적은 완전히 패주했습니다. 통영상륙작전을 통해 대한민국 해병대는 적 사살 469명, 포로 83명이라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며, 아군 전사자는 19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작전은 6·25전쟁 중 최초로 실시된 한국군의 단독 상륙작전이자 외신 중군기자로부터 '귀신 잡는 해병대'란 찬사를 받으며 한국 해병대의 용맹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06 대한민국 해군·해병대의 월남 파병

- 대한민국 해군-해병대는 6·25전쟁뿐 아니라 월남 파병에서도 많은 전과와 신화를 남겼습니다. 백구부대와 청룡부대의 월남 파병 성과를 함께 보실까요?

백구부대

- 대한민국 해군은 월남정부의 요청에 따라 1965년 3월 4일, 상륙함(위봉함, LST-812) 1척을 건설지원단인 비둘기부대의 일원으로 파월했습니다. 이후 중형상륙함(LSM) 2척과 상륙함(LST) 2척의 증파로 함정세력이 증가됨에 따라 1965년 3월 15일, 해군수송부대인 백구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백구부대는 8년간 사이공을 모항으로 북쪽은 다낭, 남쪽으로는 푸켓섬에 이르기까지 총 462회에 걸쳐 28만 4,992마일의 거리에 달하는 해상수송작전을 수행하고 56만 2,011톤의 군수물자를 완벽하게 수송하였습니다.



백구부대의 수송로와 청룡부대의 작전로

청룡부대

- 대한민국 국군전투부대의 선봉으로 10월 3일 부산항을 출항해 파월의 장대에 올랐습니다. 일주일 후인 10월 9일에는 자유월남 캄란만에 상륙하여 본격적인 파병작전을 수행합니다. 청룡부대는 투이호아-추라이-호이안 등의 전장에서 전전하며 14만여회의 작전을 수행하였고, 짜빈동 전투를 포함해 수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짜빈동 전투 노획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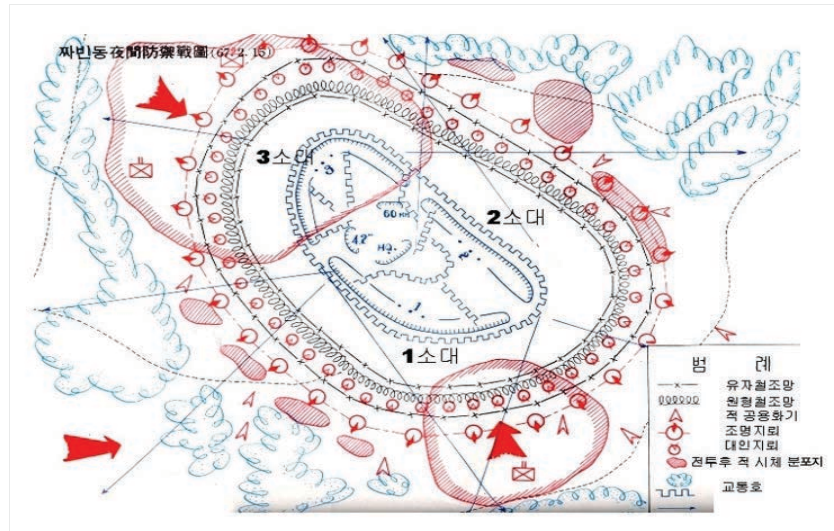
짜빈동 전투 신문보도

또 하나의 신화를 남긴 짜빈동 전투

- 짜빈동 전투는 1967년 2월 14일 밤 11시 20분 즈음, 월맹 정규군 제2사단 제1연대가 주축이 된 약 4,630명의 월맹군 병력이 야간에 청룡부대 제11중대 전술기지를 기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룡부대 제11중대 장병들은 열세의 전력에도 불구하고 전술기지에 구축된 외곽과 내곽방어선으로 연하는 교통호를 십분 활용하고 일제사격과 크레모아 폭발로 침입하는 적을 격퇴하였습니다. 한 때는 제3소대의 진지가 돌파되어 치열한 진지 육박전까지 전개되었지만, 청

통부대는 밀려드는 월맹군을 온몸으로 저지하며 적을 격멸하고 진술기지를 방어했습니다. 하루 동안 지속된 전투가 끝나고 확인된 월맹군 전사자는 243명, 청룡부대 전사자는 15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루 밤 사이 이군의 1개 중대가 연대 병력의 적을 물리친 위대한 승리였고, 이는 베트남전 전체의 전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전과였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 대한민국 해병대는 전세계에 막강한 전투력을 과시하며 '신화를 남긴 해병'이라는 또 하나의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적의 기습에 놀라온 전술로 대응한 청룡부대 제11중대에 '대통령 부대표장'을 수여하며, 장교를 제외한 참전 장병 191명 전원에게 일 계급씩 특진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중대장 정경진 대위와 제1소대장 신원배 소위에게는 군인의 최고 명예인 '태극무공훈장'이 수여되었는데, 이는 전사자가 아닌 생존군인이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최초의 사례입니다.



07 바다 위의 군사 분계선 NLL

육지의 휴전선은 MDL, 바다의 휴전선은?

-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직후 남북 간에는 경계선이 설정되었습니다. '휴전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이 경계선의 공식명칭은 MDL(Military Demarcation Line: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렇다면 해상에 있는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해상에 존재하는 경계선이 바로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입니다. NLL은 철책이나 특정한 표시가 없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해상 경계선입니다.



동해 및 서해 NLL

NLL은 어떻게 설정되었나

-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한반도 육지에 대한 군사분계선 설정에만 합의했을 뿐, 해역의 경계에 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바다에서 남·북 함정 간 우발적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엔군과 국군은 북한의 전 해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서해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6·25전쟁 시 확보한 전략적 요충지인 '서해 5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차지하기 위해 MDL을 기준으로 해상경계선을 정해야 한다며 억측을 부렸습니다. 이에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 사령관을 맡은 클라크(Mark, W. Clark) 장군은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한의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상에는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의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동해상에서는 MDL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NLL을 설정하고 북한에 선포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당시 유엔군측 함정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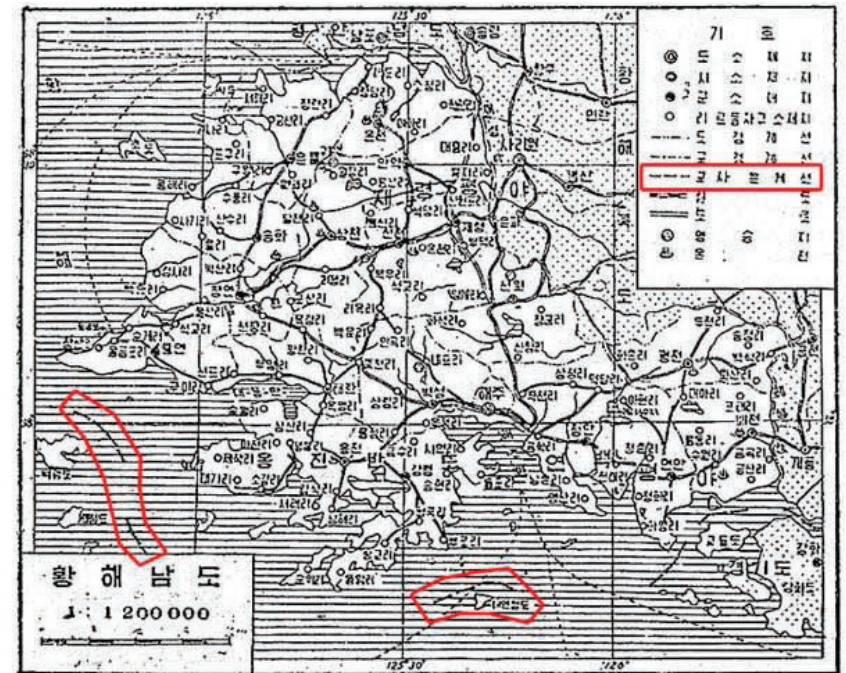
NLL 이남 해역은 왜 우리의 영해인가

● 이후 NLL은 남·북한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고착되었습니다. 1959년 북한이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에 해상 군사분계선이 표기되어 있는 걸 보면 북한 스스로도 NLL의 존재를 인지하며 공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하기로 서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제법에서는 조약을 통지 받은 지 12개월 내 이의가 없으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은 NLL 설정 이후 20년 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해군이 지켜왔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북한은 NLL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한의 끝없는 오리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은 12해리 영해 입장에 따라 서해 5개 도서의 주변 수역이 자신의 영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NLL 무실화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NLL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LL은 우리 해군이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입니다. 앞으로도 해군은 'NLL 존중·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NLL에 대한 북한의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1959년도 '조선중앙연감'에서의 북방한계선 표기



2003년 3월 23일 북한이 공포한 '서해 5개섬 통항질서'

08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응징

- 6·25전쟁 이후 70여 년간 북한은 NLL무실화를 주장하며 간첩선·잠수함 침투, 포격도발 등 끊임없는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해군은 빈틈없는 경계작전과 대응을 통해 적의 도발을 철저히 응징하며 NLL을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NLL을 사수하라, 제1연평해전

-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서남쪽 해상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우리 해군 고속정들이 격퇴한 해전입니다.



밀어내기 작전을 펼치고 있는 잠수리-325호정

초여름의 연평도 앞바다. 매년 이 시기가 되면 남북한의 어선들을 비롯해 중국 어선들까지 이곳에 모여들어 꽃게잡이가 한창입니다. 북한 경비정은 수시로 자국 어선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빈번하게 NLL을 침범하였고, 이에 우리 해군 고속정은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키기 위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1999년 6월 15일에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우리 고속정들은 교전규칙과 국제법에 의거하여 남하하는 북한 함정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차단기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해군은 우리 고속정에 대해 충돌도발을 벌였고, 우리 해군도 이에 대응해 '밀어내기 작전'을 실시합니다.

'쿵-'. 우리 고속정 참수리-338호정이 북한 경비정 후미를 강하게 들이받던 중 북한 경비정의 선체 위로 얹히게 되었습니다. 근처에서 기동하던 참수리-325호정이 참수리-338정을 돕기 위해 북한 경비정의 옆구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또 다시 '쿵-'하는 굉음과 함께 북한 경비정이 밀려나가며 참수리-338호정의 뱃머리가 바다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북한 경비정 갑판에서 한 병사가 소총에 탄창을 끼운 다음 참수리-325호정을 향해 사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북한군의 사격은 함교로 집중되었고 함교에서 지휘를 하던 참수리-325호정 정장과 부장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정장과 부장은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사격을 했고 우리 해군의 지원전력까지 일제히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14분간 양측 해군 함정들의 교전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어뢰정 1정이 격침되고 어뢰정 1척과 경비정 4척이 대파당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반면 우리 해군은 고속정 5척의 경미한 손상과 장병 9명의 가벼운 부상 정도의 피해를 입는데 그쳤습니다. 제1연평해전은 정전협정 이후 발생한 남북한 간 첫 해상교전으로, 첨단화된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력이 구식장비로 무장한 북한 해군에 비해 월등히 우수함을 증명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한 민간교류 확대와 대북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대남 기본 노선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서해의 6용사. 제2연평해전

● 제2연평해전은 영화 '연평해전'으로 잘 알려진 해전이죠. 한일 월드컵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가던 2002년 6월 29일,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차단하던 참수리-357호정이 북한군의 선제공격에 피격되었지만, 죽음을 불사한 사투로 북한의 중대형 경비정을 격파한 해전입니다.

당시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하자 우리 군의 참수리-357호정과 참수리-358호정이 적 경비정을 차단하기 위해 대응기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접해 기동하던 참수리-357호정을 향해 북한 경비정에서 85밀리미터 대구경포로 기습사격을 하며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수리-357호정 전시모습

교전 초기 적의 악의적인 근거리 기습사격으로 인해 참수리-357호정에 많은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은 용감히 잘 대응하여 북한 함정을 대파했습니다. 북 함정은 화염에 휩싸인 채 다른 함정에 예인되어 북으로 도주했고 북한 장병 30여 명이 사상했습니다.



유도탄 고속정으로 부활한 연평해전 6용사 아래부터 윤영하함, 한상국함, 조천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 박동혁함

이처럼 우리 해군은 기습 도발한 북 함정을 현장에서 격퇴하며 NLL을 사수하고 제2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전상황에서 우리 승조원 28명 중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장병이 전사하게 되었고, 참수리-357호정 역시 예인하는 과정에서 함정에 발생한 파공을 막지 못하고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6용사

참수리-357호정은 평택 2함대 사령부 안보공원에 당시의 긴박했던 모습을 간직한 채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전에서 전사한故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의 전사자 유품들도 안보공원 서해 수호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6명의 용사들은 오늘날 2함대 NLL을 사수하는 6척의 유도탄고속함(윤영하함, 한상국함, 조천형함, 황도현함, 서후원함, 박동혁함)으로 부활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의 영웅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대한민국 영해를 반드시 지켜낸다는 의지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오늘도 조국영해와 NLL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2분의 결전, 대청해전

● 대청해전은 2009년 11월 10일 11시 27분, 대청도 동방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NLL 이남을 1.2마일 침범하여 발발했습니다. 우리 고속정이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통신과 경고사격을 실시하자 북한 경비정은 참수리-325호정에 조준사격을 가했고, 이에 우리 해군이 즉각 대응 사격하여 북한경비정을 격퇴한 해전입니다.

당시 NLL 인근 해역에서 꽃게 어획량이 크게 늘어나자 북한 어선이 NLL을 침범하여 불법 조업하는 횡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자국 어선을 통제한다는 명분하에 북한 경비정과 순찰정이 NLL을 침범하는 횡수가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우리 해군 함정을 조준하고 유도탄을 발사하는 가상 기동 및 모의 공격훈련을 실시하는 모습도 수차례 포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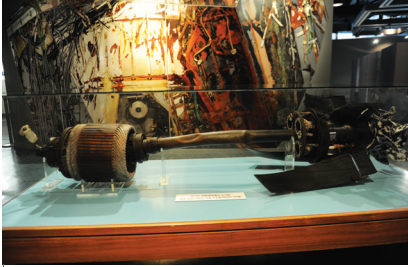
북한 경비정은 해전 당일에도 중국어선을 단속한다는 구실로 NLL에 접근했습니다. 우리 고속정은 경고통신 후 경고사격을 가했고, 북한 경비정은 11시 37분 우리 고속정 참수리-325호정을 향해 함포 50여 발을 조준사격했습니다. 이에 우리 고속정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했으며 근해에 있던 우리 초계함과 호위함도 격파사격을 가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검은 연기과 화염에 휩싸인 채 11시 40분에 NLL 이북으로 퇴각했습니다.

당시 교전으로 인해 북한 경비정 383호는 함포와 기관포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참수리-325호정은 조타실, 통신실 등 좌현 함체에 탄흔 35개의 경미한 손상만 입었을 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대청해전은 단 2분 동안의 교전이었지만 우리 군의 굳건한 NLL 수호의지를 보여준 자랑스러운 승리의 교전이기도 합니다.

조국의 바다에 잠들다, 천안함 46용사

●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 경 백령도 서남방 2.5킬로미터 해상에서 통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하던 초계함(PCC) 천안함이 북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생존자들은 공통적으로 '좌측 후미에서 팽! 파~아잉(1~2초간) 소리와 함께 정전이 되면서 몸이 30센티미터~1미터 정도 뗏다가 우측으로 떨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1시간 후 인천 해양경찰 해-501함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함미는 이미 가라앉아 보이지 않았고, 함수 쪽에 위치하던 승조원 58명은 천안함에서 구조되었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 소행 증거인 어뢰추진체



천안함 인양 모습

천안함은 빠른 속도로 침몰해갔으며 함수 부위는 다음날 13시 37분 경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천안함 피격 이후 긴박하게 전개된 탐색구조 및 함재 인양작전은 범정부차원의 각종 조치로 강구되었고, 4월 24일을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바다에 잠들어 있던 함수, 함미와 연돌 부위를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한명이라도 더 구조하기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에 응하기 위해 구조 작전 중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구조에 임했던 한주호 준위를 잃는 또 다른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천안함기념관 5번 지점

정부는 민·군을 통합하고 외국의 전문가들까지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한 끝에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피격당해 침몰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2010년 5월 15일, 인근해역에서 북한의 어뢰추진체를 인양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제1연평해전

1999. 6. 15 연평도 서방 10km 해상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벌어진 남북 함정간의 해전



| 시간대별 교전상황 |

- ① 06:10 북한경비정 4척이 NLL을 침범한 북한 어선 단속을 빌미로 NLL 침범
- ② 08:40 북한경비정 3척이 추가로 NLL을 침범하여 앞서 침범한 4척과 함께 우리 고속정에 충돌 공격 시도
- ③ 09:04 북한어뢰정 3척이 발사관을 개방한 상태로 남하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
- ④ 09:28 북한경비정이 25mm/14.5mm로 선제사격 하자 우리 경비함정이 대응사격 실시 *북한어뢰정 1척이 아군 함포에 명중되어 침몰
- ⑤ 09:42 교전 종료

| 참가전력 |

아군 고속정 10척, 초계함 2척
적군 구잠함 1척, 대형경비정 2척, 중형/소형 경비정 각 2척, 어뢰정 3척

| 전과 및 피해 |

아군 초계함 1척 기관실 손상, 고속정 4척 조타실, 함수 손상 (9명 경상)
적군 어뢰정 1척 침몰, 중형 경비정 1척 반파, 구잠함/대형경비정 각 1척 대파, 소형 경비정 2척 기관실 파손 (사상자 다수 발생)

| 분석 및 교훈 |

1. 우리 해군이 북한 해군보다 전투력의 우수성이 증명 됨
2.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대남기본노선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함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제2연평해전

2002. 6. 29 연평도 서방 22km 해상

서해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 기습 포격으로 시작된 남북 함정 사이의 해전



| 시간대별 교전상황 |

- ① 09:54 북한 육도경비정 1척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고속정이 대응하자 10시 14분경 NLL이북으로 퇴각
- ② 10:01 북한 등산곶경비정 1척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고속정이 차단 기동 시작
- ③ 10:25 북한 등산곶경비정이 참수리-357정 기습공격, 참수리-357·358정 대응사격
- ④ 10:50 등산곶경비정 NLL퇴각
- ⑤ 11:59 참수리-357정 예인 중 침몰 (인양작전: 02.8.5~8.21)

| 참가전력 |

아군 고속정 6척, 초계함 2척
적군 대형 경비정 1척, 중형 경비정 1척

| 전과 및 피해 |

아군 참수리-357정 침몰 (6명 전사, 19명 부상)
적군 대형 경비정 1척 대파 (30여명 사상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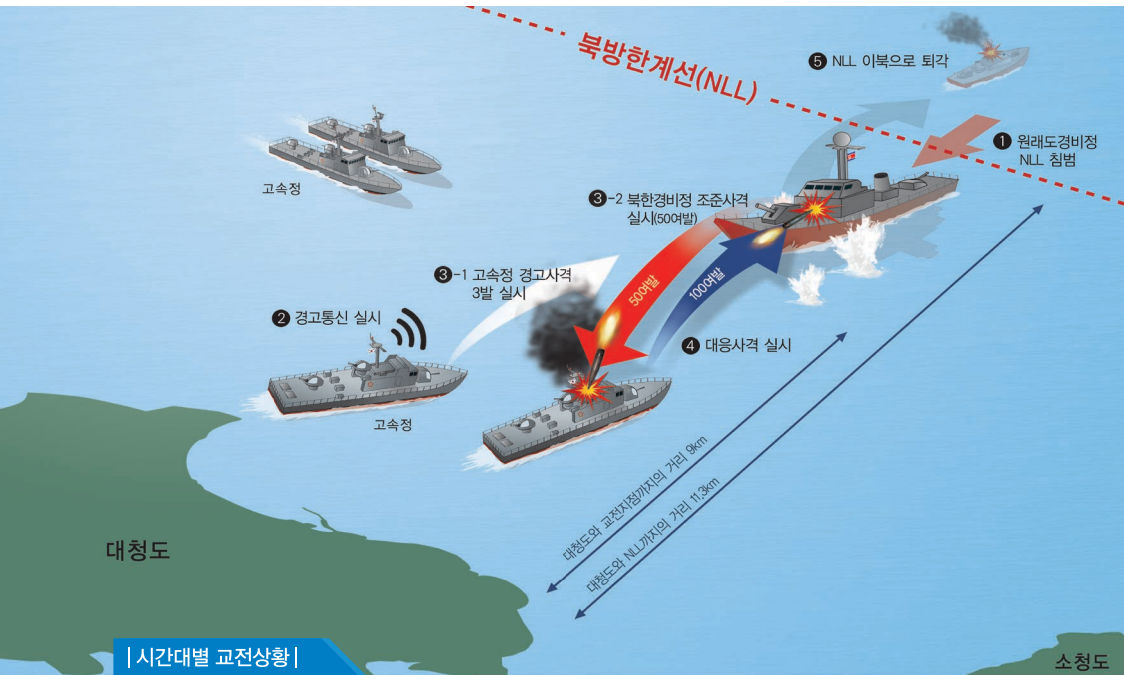
| 분석 및 교훈 |

1.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관의 재량권 강화
2. 교전규칙을 5단계에서 3단계로 개정 (경고신호-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 (대응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대청해전

2009. 11. 10 대청도 동방 9km 해상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 대청도 동쪽에서 대한민국 해군과 북한 해군 간에 일어난 전투



| 시간대별 교전상황 |

- ① 11:27 북한 원래도경비정 1척이 NLL을 침범하자 경고통신 실시
- ② 11:31 경고 통신 2회 추가 실시
- ③ 09:04 북한어뢰정 3척이 발사관을 개방한 상태로 남하함에 따라 우리 함정이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
- ④ 11:38 우리 고속정이 즉각 대응 사격 실시
- ⑤ 11:40 북한경비정이 연기와 화염에 휩싸인 채 NLL 이북 퇴각 후 다른 함정에 의해 예인

| 참가전력 |

아군 고속정 4척, 초계함 1척, 호위함 1척
적군 중형 경비정 1척, 지원 경비함 3척

| 전과 및 피해 |

아군 참수리-325정 경미 손상
적군 중형 경비정 1척 대파 (사상자 다수 발생 추정)

| 분석및 교훈 |

- 대응철차 간소화 등 다양한 전술개발과 함정 주요부위에 대한 방탄 기능 등 무기체계 보강으로 북한 해군 압도
- 현장 지휘관에게 사격 통제권이 위임되어 즉각적인 대응사격으로 현장에서 전투를 종결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천안함 피격사건

2010. 3. 26 백령도 남서방 2.5km 해상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함이 피격되어 침몰한 사건



| 시간대별 교전상황 |

- 초동조치 ① 21:22 백령도 남서쪽 해역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잠수정 여러 공격으로 침몰
- ② 21:58 해군 고속정-해경-501함 현장 도착 / 인명구조 개시
- ③ 23:13 승조원 104명 중 생존자 58명 구조
- 인명구조작전 3월 30일 ~ 4월 4일 광양함 등 4척, 잠수요원 73명
- 함체인양작전 4월 4일 ~ 4월 25일 함미(4, 15), 함수(4, 24) 인양
- 민·군 합동조사 3월 31일 ~ 5월 20일

| 참가전력 |

아군 초계함 1척 (PCC-772천안함)
적군 소형 잠수함정 (추정)

| 피해상황 결과 |

아군 초계함 1척 침몰 (46명 전사, 58명부상)

| 분석및 교훈 |

- 초기대응 및 위기관리체제의 보완
- 비대칭 전력에 대한 재평가 및 국민과 소통 노력 필요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연평도 포격도발

2010. 11. 23 연평도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



| 시간대별 교전상황 |

- ① 10:15~14:34
해병대 연평부대, 해상사격훈련 실시
- ② 14:34~14:46
북한, 연평도 내륙과 해상으로 포격 (140여발)
- ③ 14:47~15:15
K-9 자주포, 무도 해안포기지에 대응사격 (50발)
- ④ 15:12~15:29
북한, 연평도 주둔자-레이더 기지 일대에 포격 (20여발)
- ⑤ 15:25~15:41
K-9 자주포, 개머리 방사포기지에 대응사격 (30발)

| 참가전력 |

이군 해병대 연평부대(K-9 자주포 6문)
적군 개머리 방사포, 무도 해안포

| 전과 및 피해 |

이군 해병대 (2명 전사, 16명 부상), 민간인(2명 사망, 4명 부상), 건물 133동 (진파 33, 반파 9, 일부파손 91) 파손
적군 무도 해안포기지 사상자 집중 발생 (추정)

| 분석 및 교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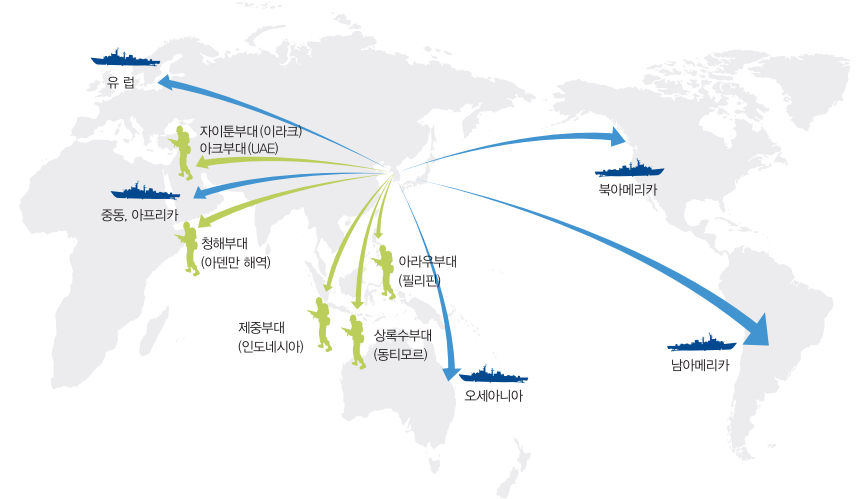
1. 북한은 목적 달성을 위해 민간인 거주지역 까지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는 집단임을 재인식
2. 해병대의 실전적이고 강한 교육 훈련이 그대로 발휘

09 전 세계를 누비는 해군

대한민국 해군은 국민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작전반경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됐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국격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군.

2000년 이후 해군은 50회 이상 해외파병을 나갔습니다. 2000년 동티모르 상륙수부대를 비롯해 2004년 이라크 자이툰 부대 등을 수송하기도 했고, 2001년에는 해군수송지원단 해상부대를 조직해 다국적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펼친 항구적 자유작전(OEF, Operation Enduring Freedom)을 지원했습니다. 2013년에는 필리핀 재해복구를 위해 아라우부대가 파병되기도 했습니다.

- 해외파병 | 2000년 이후 50회 이상 파병
- 순항훈련 | 1954년 이후 매년 실시, 500회 이상의 각종 기항지 방문



2008년부터는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퇴치 임무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덴만 인근 해상에서 출몰하는 해적들로부터 민간 선박을 보호하고 국제 해양안보 작전을 수행 중입니다. 성과도 많습니다. 2011년에는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단 한명의 인명손상 없이 완벽한 인질 구출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2012년에는 제미니호 피랍 선원을 구조했으며, 2011년과 2014년에는 리비아 교민 철수를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예멘 교민 철수를 지원하고 주예멘대사관이 청해부대 함상으로 이동해 임시사무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가나해역에서 피랍된 선원 구출을 위해 희망봉을 돌아 기니만 해역으로 출동했으며, 선원 석방 후에는 나이지리아까지 안전하게 이송도 했습니다.

순항훈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순항훈련은 1954년 처음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 500회 이상의 각국 기항지를 방문했으니, 해군의 유서 깊은 전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청해부대입니다

- 2011년 1월 21일 새벽, 해적들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함교에 반가운 목소리가 통신망 너머로 들렸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청해부대입니다” 역사적인 아덴만 여명작전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청해부대는 2008년 창설됐습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모든 당사국에 함정과 항공기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민간 선박들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9년 3월 13일 청해부대를 창설하고 아덴만으로 파병합니다. 청해(靑海)는 ‘청해진’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청해진은 해상무역을 통해 통일신라를 부흥시킨 장보고 대사가 완도에 설치한 해상무역기지입니다. 해군의 해양개척정신과 해양수호의 의지를 상징하는데 이보다 좋은 이름은 없습니다.

다시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돌아가보면, 이 작전은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우리 국민들을 성공적으로 구출한 작전입니다. 2011년 1월 16일 아덴만에서 호송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DDH-Ⅱ, 4,400톤)에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해적에 나포된 삼호주얼리호(1만 톤급) 선원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입니다.



청해부대와 삼호주얼리호

청해부대는 전속으로 기동해 삼호주얼리호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1월 21일 아덴만에 여명이 밝아올 무렵, 청해부대는 ‘아덴만 여명작전’이라는 작전명으로 구출작전을 시도합니다. 최영함의 함포와 링스(LYNX) 헬기의 기관총이 굉음을 내며 날아가자 해적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틈에 검문검색대 UDT/SEAL 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삼호주얼리호 진입에 성공합니다. 이후 5시간의 치열한 교전 끝에 청해부대 대원들은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단 한명의 인명손상 없이 해적에게 잡혀있던 21명의 선원을 모두 구출해줍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가히 해군의 역사적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사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미니호 선원 구출작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있던 싱가포르 선적 제미니호는 2011년 4월 30일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습니다. 청해부대 11진 강감찬함은 선사와 해적 간 협상이 마무리된 2012년 11월 27일 소말리아 동부 연안 하라데라 근해에 도착했으며 즉시 구출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당시 기상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 국민을 구출해야 한다고 판단, 작전 투입을 명령했습니다. 강감찬함을 이륙한 링스 헬기는 제미니호에 구조용 바구니를 내린 지 8분만에 선원 4명을

무사히 구출했으며, 강감찬함은 곧바로 760마일(1,408km)을 항해해 케냐 몸바사에 도착, 구출 선원을 케냐 한국대사관에 인계했습니다.

2018년에는 아프리카 가나해역에서 피랍된 마린 711호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도 수행했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청해부대 26진 문무대왕함은 아덴만에서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 기니만 해역으로 출동했습니다. 이후 우리 국민 석방을 위해 인근 해역에서 해적을 압박했으며, 석방 후에는 나이지리아까지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재외 국민 철수 작전도 수행했습니다. 2011년 리비아가 내전으로 인해 무정부 상태에 빠지자 리비아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안전이 위협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최영함과 문무대왕함을 현지로 보냅니다. 리비아 트리폴리 항에 입항한 우리 해군 군함은 '리비아 재외 국민 철수작전'을 실시하여 교민들을 구출해 냅니다. 해군은 2014년에도 리비아 교민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철수 작전은 예멘에서도 있었습니다. 2015년 예멘에서는 대규모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현지의 정세는 극도로 불안해졌지만, 대부분의 교민들은 생계 등을 이유로 계속 현지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국방부와 협조하여 예멘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 18진 왕건함에 주예멘 한국대사관 임시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합니다. 우리 해외공간이 함상에 설치되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왕건함에 오른 이영호 주 예멘대사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곳에서 대사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 어디에서든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해군사관생도의 도전, 순항훈련

● 해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은 졸업 전에 일생일대의 특별한 도전을 마주합니다. 바로 전 세계를 무대로 진행되는 '순항훈련'입니다. 군함을 타면서 세계 여행을 한다니!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순항훈련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무사히 졸업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엄연한 훈련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순항훈련은 임관을 앞둔 해군사관생도들에게 해군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 적응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군사훈련입니다. 사관생도들은 훈련 기간 중 항해하는 군함에서 각종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풍랑으로 흔들리는 군함 안에서 배 멀미를 이겨내며 각종 수업을 받고 시험도 쳐야 한다니 어려움이 상당하겠죠? 물론, 육지도 밟습니다. 순항훈련전단은 통상 순방국마다 2~3일 간 정박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장병들은 순방국 해군부대를 방문하여 다양한 군사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순방국 해군과 유대를 강화하고 해외교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이죠.

"군함도 외교를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순항훈련전단은 1954년 해군사관학교 9기생을 태우고 첫 출항한 이래 지금까지 매년 전 세계를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여 회 이상의 각국 기항지를 방문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냥 방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군사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6·25전쟁 참전용사 대상으로 보은행사를 펼치기도 하고, 군함에 방산홍보전시관을 설치해 국산 방산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군악대·의장대·태권도 시범단으로 구성된 해군 합동공연팀은 멋지고 품격 있는 공연으로 순방국 국민과 교민들에게 한국의 멋과 해군의 패기를 선보이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해군 순항훈련전단은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군사외교 사절단, 홍보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순항훈련은 점차 항로를 확대해 왔습니다. 국력이 높아짐에 따라 더 먼 곳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주로 서태평양 인근을 순방했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는 처음으로 중동을 방문했으며, 1976년에는 캐나다까지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1982년에는 남미를, 1991년에는 유럽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1992년에는 국산호위함 충남함(FF)과 마산함(FF)으로 구성된 순항훈련전단이 처음으로 세계일주를 했습니다. 이후 순항훈련전단은 1995년, 2007년, 2013년, 2015년에도 세계일주를 합니다. 보통은 태평양권, 유럽권 등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군함 타고 세계일주 끌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군사관생도로 지원하세요.

10 국가전략부대, 해군 잠수함 부대

- 지난 2015년 2월 1일 우리 해군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다가 더 굳건해진 기념비적인 날이었습니다.



잠수함사령부 창설식

우리 해군은 1984년 소형 잠수정 ‘돌고래’를 도입하면서 잠수함 전력 확보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1990년 제57잠수함전대를 창설했고 1992년에는 해군 최초 잠수함인 209급 선도함 ‘장보고함(SS-I, 1,200톤)’을 독일에서 인수했습니다. 1994년에는 209급 잠수함 ‘이천함’을 최초로 국내에서 건조했습니다. 1995년에는 제9잠수함전단을 창설했으며, 2007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공기불요추진체계(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를 탑재한 214급 잠수함 ‘손원일함(SS-II, 1,800톤)’을 인수했습니다.

2015년 2월에는 잠수함 전력 확보와 연계하여 세계에서 6번째로 잠수함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인수한 지 22년 만에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잠수함사령부는 영해 수

호는 물론 유사시 임무해역 깊숙이 전개해 국가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우리나라 기술로 설계부터 건조하는 잠수함 장보고-III 사업의 선도함 ‘도산안창호함(SS-III, 3,000톤)’을 진수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세계 잠수함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사고 작전 운용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잠수함이 도입된 이래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00번 잠항하면 100번 부상해야 한다’는 신조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잠수함 대원들은 단순히 안전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양까지 나가 다양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뛰어난 임무수행 능력을 발휘해 재래식 잠수함 운용 모범국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1996년 최초 해외훈련에 나선 이래 이듬해에는 태평양을 횡단했습니다. 1999년에는 괌 근해에서 어뢰를 발사해 1만톤급 퇴역 미 구축함을 격침시키기도 했습니다.



잠수함사령부 표지석

2013년에는 ‘국제잠수함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외국군 수탁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잠수함을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시운전과 교육훈련, 전력화 경험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국격을 높이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 해군 특수부대, UDT/SEAL과 SSU

● ‘불가능은 없다!’ UDT/SEAL(Underwater Demolition Team / Sea, Air and Land)은 해군 특수전전단을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해군 특수전전단은 1954년 11월 9일 상륙전대 해안대 수중과괴대(UDT)로 창설됐습니다. 부대는 미국과 한국에서 UDT 양성 과정을 수료한 인원 3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후 1983년 1월 1일에는 제2전단 25특전대로 개편됐으며, 2년 뒤인 1986년 2월 1일에는 제56특전대대로 개칭됐습니다. 1993년 12월 1일에는 해상대테러(CT) 임무가 추가됐습니다. 1998년 4월 1일에는 부대 예하에 특수선박대가 1995년 5월 1일에는 특수임무대가 창설됐습니다. 2000년 1월 1일에는 특수전여단으로, 2012년 2월 1일에는 특수전전단으로 부대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UDT/SEAL은 전천후 특수작전과 상륙작전 시 선견부대 작전, 해상대테러 작전, 폭발물 처리 작전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특수작전이 UDT/SEAL의 임무라 할 수 있습니다.



UDT/SEAL 장병들의 훈련모습

선망의 대상인가요? UDT/SEAL 요원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혹독하고 처절한 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훈련 수료율이 평균 40% 미만이니 말 다했습니다. 탈락자 중 50%가 3주 이내에 고배를 마시며, 나머지 50%는 지옥주 기간에 짐을 싣니다. 특히 무수면 극기훈련은 모두가 두려

움에 떠는 훈련입니다. 지옥주에 실시하는 무수면 극기훈련에서 훈련생들은 132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습니다. 심지어 식사도 85킬로그램이 넘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고 실시합니다. 말 그대로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모두 이수했으니 특전요원들은 한 마디로 ‘불가능이 없는 진정한 인간병기’입니다.



서해페리호 구조작전시 SSU장병들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SSU(Sea Salvage & Rescue Unit)는 대한민국 해군 해난구조대를 말합니다. 해난구조대는 해양 재난 구조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특수부대입니다.

이 해난구조대는 1950년 9월 1일 ‘해상공작대’로 창설됐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전투 중에 손상을 입거나 좌초된 함정들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해군은 근대 잠수장비 운용기술자와 선박 구조 전문기를 민간에서 뽑고 장병들 중 상선학교 출신자를 선발해 해상공작대를 만들었습니다. 1954년 8월 1일에는 명칭을 ‘해난구조대’로 변경했습니다.

우리 해군 해난구조대는 1998년 포화잠수를 통한 적 반잠수정 인양으로 세계 최대 수심 인양 기록을 세우는 등 잠수 능력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특수부대입니다.

마찬가지로 SSU가 되기 위해서는 멀고도 험한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초급 과정 수료율은 60% 이하라고 합니다. 체력과 수영은 기본이고 포화잠수, 심해구조잠수정 조정, 수중무인탐사기 조정, 항공구조, 폭발 및 폭발물 제거를 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심해잠수사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바다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야하는 만큼 수영실력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핀 마스크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훈련 기간에는 물속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코로 숨을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스크 안에 바닷물을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차있는 마스크를 쓰고 훈련도 받고 밥도 먹어야 한다니,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버티내기 힘들습니다. 해난구조대원이 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네요.



수중 임무를 수행하는 SSU

현재 UDT/SEAL과 SSU는 해군 특수전전단에 함께 소속돼 특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특수부대는 1993년 서해 페리호 구조작전, 2002년 참-357호정 인양, 2010년 천안함 선체 인양, 2014년 세월호 탐색구조 등 군 구조작전과 더불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12 국민을 위한 헌신, 해상사고 탐색구조작전

● 군의 임무는 우리 바다를 지켜내는 것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달려갑니다.

바다는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갑자기 강한 비바람이 불어오기도 하고 높은 파도가 덮치기도 합니다. 빠른 유속이 몰아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출항을 앞둔 배들은 안전항해를 기원하며 다양한 의식행사를 치루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해신의 노여움을 산다고 여자가 배에 타는 것을 금기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신일 뿐입니다.

그만큼 바다는 위험합니다. 잠깐 돌이켜봐도 세월호, 페리호 침몰사고 등 우리 국민들을 슬픔 속에 몰아넣은 사고는 많았습니다.



세월호 탐색구조작전을 수행하는 해군의 모습

그때마다 우리 해군은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 함정들은 인근을 살살이 수색하고, SSU와 UDT/SEAL 요원들은 수없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몰된 함정과 헬기를 인양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구조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1993년 서해 페리호와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때 그랬고, 2015년 가거도 해경 헬기 추락때도 그랬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는 모두 잊을 수 없을 겁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맙니다. 우리 해군은 사고가 발생하자 현장구조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함정들을 급파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에 대한 탐색구조작전 기간 동안 해군은 현장구조지원본부, 탐색구조반, 구조 지원반을 편성하고 정부사고대책본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해군은 한 명의 희생자라도 더 빨리 찾아내기 위해 탐색작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민관군 합동 구조팀은 총 295명의 희생자들을 수습했고, 이 중 해군은 107명의 희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되돌려 보내 드렸습니다.

탐색구조작전은 유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2014년 11월 12일부로 종료됐습니다. 해군이 작전 장기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던 중이었습니다.



세월호 탐색구조작전을 수행하는 해군의 모습

13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해군 관함식

관함식이란(FLEET REVIEW)이란?

- 관함식은 국가통치권자가 군함의 전투태세와 장병들의 군기를 검열하는 일종의 해상사열 의식으로 1341년 영국 국왕 '에드워드 3세'가 영국 해군 함대의 전투태세를 검열한 데부터 비롯되었습니다. 19세기 이후에는 대관식이나 왕실의 특별한 기념식과 병행되어 다른 국적의 해군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으며, 현대에는 국제관함식(International Fleet Review)으로 확대·발전되어 세계 여러 나라 해군이 동참한 가운데 화합과 우정을 도모하고, 개최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해군의 전통적인 국제행사이자 문화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98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

대한민국해군은 1998년과 2008년에 「건국·건군 50·60주년」을 범국가적으로 경축하며 부산에서 국제관함식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광복·해군창설 70주년」을 경축하며 대한민국해군 자체 관함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세계평화와 민·군화합의 의미를 담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국제관함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008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

2018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

● “제주의 바다, 세계 평화를 품다!(Jeju, Where Peace Starts)”라는 슬로건과 함께 개최된 2018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은 2018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2개국 19척의 외국 군함 및 1만여 명의 외국 장병들, 46개 국가의 외국 대표단이 제주도에 모여 바다를 통한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10월 11일에는 대통령의 주관으로 국제관함식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해상사열이 제주 남방해역에서 펼쳐졌습니다. 해상사열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1개국 39척의 함정과 24대의 항공기가 참가하였는데, 이들은 일사분란한 해상사열과 훈련시범을 펼치며 국민들의 큰 환호와 감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중 함정기술 세미나·해양무기 학술대회,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 방산전시회 등 참가국 해군 간 협력을 증대할 수 있는 행사들이 개최되었으며, 「세계해군과 함께하는 한류콘서트」, 「제주민군복합항 부대개방 행사」에는 4만 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가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관함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2018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은 우리 해군의 발전상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해양강국으로 도약의지를 선포하는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해군 국제관함식 부대공개 행사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14 '21세기 청해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민군복합항)은 2016년 2월 26일, 대한민국의 해양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민군상생과 공존이라는 꿈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1993년 최초 소요가 제기된 이래 23년 만에 맺은 결실입니다. 총사업비로 1조 765억원(크루즈터미널 공사비 534억원 포함)이 투입된 제주민군복합항에는 해군 함정 20여척과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세계적 규모의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제주민군복합항은 21세기의 청해진인가요?

● 제주민군복합항에는 우리 해군의 최강전력인 기동전단과 잠수함전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민군복합항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안보적 이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주민군복합항으로 인해 이어도까지의 기동 소요시간 단축

우선 제주민군복합항은 기동부대전력 수용과 작전전개가 가장 용이한 항만입니다. 기지와 외해가 직접 연결되어 기동전단의 신속한 분산 및 잠수함작전의 은밀성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부산과 진해에 분산 배치되어 있던 기동전단 함정을 통합 수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주민군복합항은 한반도 해역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하기에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유사시 제주민군복합항의 전력들은 동·서해 전방해역으로 신속하게 전개가 가능하며, 동·서·남해 동시 기동감시가 가능한 길목(Choke Point)에 위치하여 융통성 있는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게다가 제주민군복합항을 통해 해군은 원유의 99.8%, 원자재 100%가 경유하는 '국가의 생명선' 남방 해역 해상교통로를 수월하게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도 및 제주 남방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활동과 자원들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21세기 청해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제주남방해역을 지키는 해군전력

제주민군복합항은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 제주민군(民軍)복합항은 말 그대로 국민과 해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항만시설입니다. 해군에서는 제주민군복합항을 해군과 국민이 함께 걸어가는 상생과 화합의 상징으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제주민군복합항에는 해군 작전기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들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제주민군복합항의 육상시설

인 민군복합문화센터(김영관센터)에는 수영장, 다목적코트, 헬스장, 식당, 도서관, 독서실 등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주변의 종합운동장(축구코트), 산책로, 종교시설 등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풍복구활동, 주민의료지원 등 공익적 대민지원활동과 군악연주회, 부대개방행사와 같은 지역주민 소통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며, 민군화합과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해군의 축제 국제관함식을 제주민군복합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제주민군복합항에는 국제 크루즈 터미널과 제반 시설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국제 크루즈터미널이 본격적으로 개장한 이후에는 전 세계인들이 제주민군복합항을 통해 아름다운 관광의 섬 제주도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관센터(민군복합문화센터)



제주민군복합항관광미항 홈페이지



제주민군복합항 전경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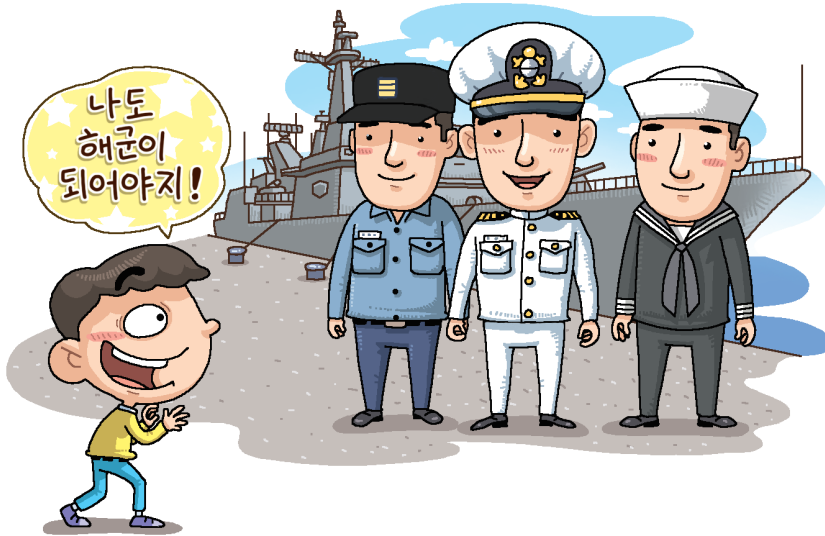
해군이 되고 싶습니다

- 01 해군 수병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 02 기술 부사관인 해군 부사관! 어떻게 되나요?
- 03 해군장교가 되려면?

「간단하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해군」 Chapter 04에서는 해군에 입대하는 방법, 해군 부사관과 해군 장교의 임무와 임관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01 해군 수병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 멋진 해군 수병이 되고 싶으신가요? 해상병 전투복을 입고 오대양을 누비는 자신을 상상해 보셨나요?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지에 상륙해서는 계절에 따라 흰색 정복 또는 검은색 정복을 입고 새로운 곳에 대해 알아가는 모습,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해군병 지원을 향해 도전!

- 해군병이 되려면 먼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한번은 거쳐야 하는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해군병 입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보유 자격증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또

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끝! 참 쉽죠? 신청 약 한 달 후에는 면접을 봅니다. 면접은 입영을 신청한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며 해군 현역이 면접관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통과하면 최종 해군병으로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훈련소에 입영했다고 모두가 훈련 받을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 해군병 입대자격이 부여된 사람에게는 개별적으로 입영날짜가 통보됩니다. 해당 날짜에 맞추어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기초군사교육단에 입영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육단에 입영했다고 바로 훈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약 1주일간의 가입교 과정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정밀신체검사, 인성검사 등 최종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기초군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5주 멋진 해군이 되기까지!

- 해군 수병이 되기 위해서는 5주간의 신병 훈련을 거치게 됩니다. 군인화와 해군화 훈련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기초군사훈련을 통해 바다에 도전하는 정예 해군 수병이 탄생합니다.



정예 해군 수병 기초군사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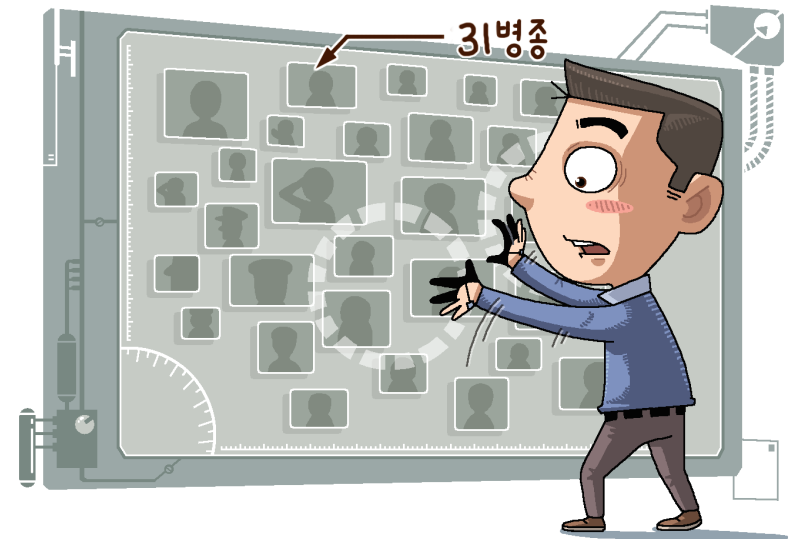
5주 멋진 해군이 되기까지

주	훈련 내용
입영주	- 입영 신체검사 및 질병·심신장애 선별/귀가조치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정신과 군의관 상담 - 교육생 공금증/불안감 해소를 위한 입영장병 소개교육 * 입영주 소개교육(1일차) 및 입영장병 안내서 배포(1인 1권)
군인화	- 군인으로 신분전환, 복종심 배양 및 기본소양 함양 * 정신전력교육, 제식훈련, 병영생활, 전투요원생존법 등 - 전투체력, 기초 전투기술 및 극기심 배양 * 전투구보, 아전훈련(사격·유격·화생방 등), 전투행군(18km) 등
해군화	- 해상생존능력 및 Seamanship 배양 * 전투수영, IBS 훈련, 해군 관습과 예절(5분·15분전 준수, 길차렷) 등 - 필승의 신념 및 자긍심 고취 * 해군핵심가치 교육, 지휘관 정신훈화, 안보초빙강연 등

나는 어떤 병종일까?

● 총 33개의 병종으로 이뤄져 있는 해군 병은 크게 일반 계열과 기술 계열, 기타 계열 병종으로 나뉩니다. 일반 계열은 병종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영하여 교육훈련 중 결정하게 되는 병종을 말합니다. 함정 운용에 필요한 장구취급 및 갑판 부사관의 보좌를 주 임무로 하는 갑판병, 항해 시 타수, 각종 일지기록, 방송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타병, 탐색레이더를 조작하고 피아식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전투정보수집 임무 등을 수행하는 전탐병, 부대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에 관한 업무 및 보급과 관련된 행정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급병 그 외 통기, 의장, 군사경찰, 통정 등 총 9개 병종이 일반계열에 속합니다.

기술 계열은 입대 전 특기를 부여받는 병종인데요. 전산, 이발, 조리, 항공, 항공조작, 전자, 전공, 통신, 보수, 가스터빈, 내연, 보일러, 전기, 화학, 시설, 환경관리, 운전, 의무 등 20개 병종이 기술 병종에 해당합니다.



기타병종은 일반병종과 기술병종을 제외한 것으로 특전, 잠수, 군악, 연예 등 4개의 병종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군 수료식

02 기술 부사관인 해군 부사관! 어떻게 되나요?

내 장비는 내가 책임진다. 무엇이든 고칠 수 있는 해군 부사관

- 해군 부사관들은 흔히 '기술 부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육·공군은 보통 장비에 대한 관리운영자와 정비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면, 해군은 부사관이 이 두가지를 모두 수행합니다. 때문에 해군 부사관들은 해당 장비를 관리함과 동시에 운용 전반에 걸친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군 부사관을 직접 보시면, 기술부사관이라는 호칭이 아깝지 않다고 느껴지실 것입니다.



실제로 해군은 일반직별 부사관의 기능에 정비임무를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해군은 부사관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단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군도 정비를 주 임무로 하는 정비부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함정이 모항을 출항하면 일정 기간 해상에서 작전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바다 위에서 장비가 고장이 난다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장비를 정비해야 합니다. 때문에 해군 부사관은 자신이 운용하는 장비에 대한 완벽

한 정비능력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부사관, 나도 될 수 있을까?

- 임관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자 및 여자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면 누구나 해군 부사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군 부사관은 연 3~4회 모집하며 해군 홈페이지 온라인 모병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선발시험에 합격한 지원자들은 수병과 마찬가지로 기초군사교육단에서 11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아,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s Training Corps) 제도도 있습니다. 해군은 현재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군 부사관

부사관의 직별은?

- 과거 부사관 직별은 해군수병과 마찬가지로 일반, 기술 직별로 나뉘었지만, 현재는 기술·행정 / 항공 / 기타 직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술행정은 21개 직별이 있으며, 갑관, 조타, 무장, 사통, 전탐, 음탐, 정통, 전자, 전자전, 보수, 추기, 전기, 정보, 보급, 재정, 행정, 공보정훈, 공병, 법무, 군사경찰이 있습니다. 항공은 7개 직별이 있으며 항공통제, 항공조작,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전자, 항공무장, 항공장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에는 7개 직별이 있으며, 의무, 운전, 조리, 특전, 특정, 잠수, 군악이 있습니다.

03 해군장교가 되려면?

다양한 경로로 임관이 가능한 해군장교

- 멋있는 정복으로 유명한 해군장교! 고등학교 시절 멋있는 해군장교의 복장을 보고 해군에 지원했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인데요, 해군 장교가 되기 위한 길은 다양합니다.



먼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방법은 바로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별도의 입시 시험을 거쳐서 선발되는 해군사관생도는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일반 대학처럼 4년을 교육받습니다. 해군사관생도가 4년의 교육훈련을 마치면 졸업과 동시에 해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이 외에도 해군장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해군 학사사관(OCS, Officer Candidate School)과 학군사관(ROTC, Reserve Officers Training Corps) 선발 제도입니다. 학사사관(OCS)

선발제도는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들이 해군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간부 선발 시험을 통해 합격하면 됩니다. 선발된 인원은 해군사관학교 장교교육대에 입소하게 되며, 11주간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해군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시험이 아니면 해군과 협약을 맺고 '해군 군사학과'를 개설한 학교에 입학하면 됩니다. 이 해군 군사학과를 졸업하면 해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해군 군사학과가 개설된 학교는 세종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험을 통해 입대한 학사사관 장교는 임관 후 3년의 의무 복무를, 군사학과를 졸업한 학사사관 장교는 7년의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학군사관(ROTC) 선발제도는 대학교 재학 중 일정 시간의 군사훈련을 수료하고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하여 2년간 의무복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학군사관 제도는 육군만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겠지만 해군에도 있습니다. 현재 해군 학군사관(ROCT)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제주대학교입니다.



해군 장교

나는 어떤 장교가 될까?

- 해군장교는 14개 병과로 구분됩니다. 과거 항해, 기관으로 구분되었던 두 개의 병과는 함정 병과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함정 병과는 함정의 운용 및 정비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병과입니다. 해군은 함정을 타고 바다를 지키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기 때문에 함정병과는 해군의 핵심 병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정병과 외에도 항공, 정보, 정보통신, 병기, 보급, 공병, 조함, 재정, 공보정훈, 군사경찰, 의무, 법무, 군중 병과에 지원하여 해군장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05

해군의 임무 & 목표, 편성 & 병력, 작전해역

- 01 임무 & 목표
- 02 편성 & 병력
- 03 전력 & 작전해역
- 04 해군 전력과 작전 : 인포그래픽으로 보기

「간단하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해군」 Chapter 05에서는 해군의 임무와 목표, 편성 및 병력, 해군 전력과 작전해역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01 임무 & 목표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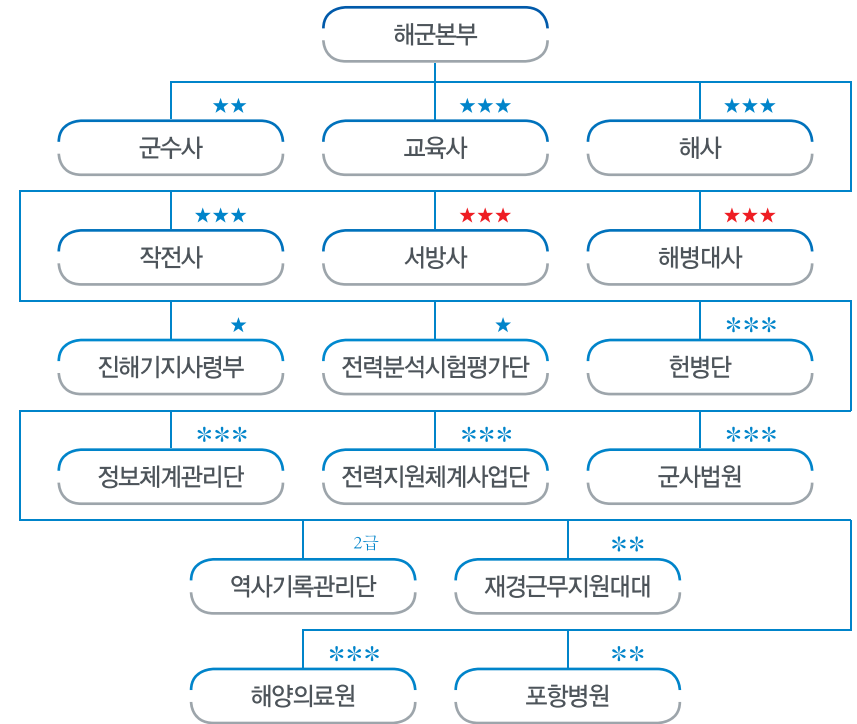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목표

- 대한민국 해군은 국가 보위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핵심전력으로서
- : 자주적인 해군력을 구축하여 전쟁을 억제한다.
 - : 해양우세권을 확보하여 전승을 보장한다.
 - : 해양활동을 보호하여 국가이익을 증진한다.
 - : 해군력을 현양하여 국위를 드높인다.

02 편성 & 병력

편성



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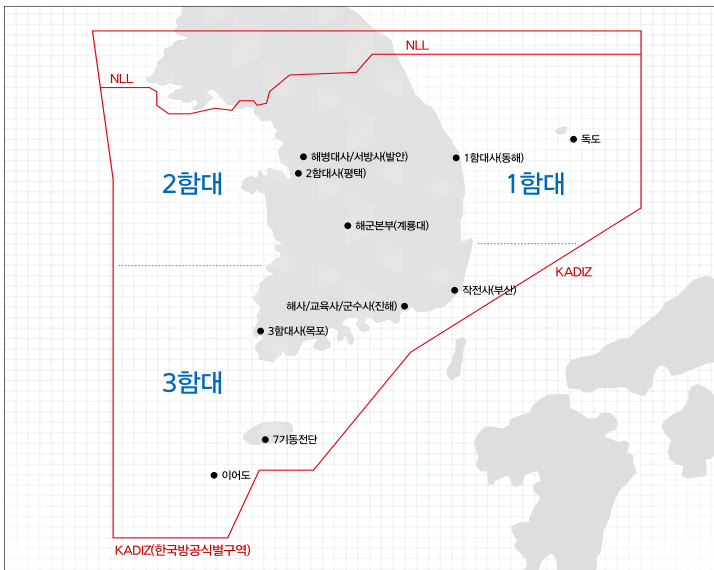
구분	계	장교	부서관	병	군무원
해군	41,000	6,700	17,500	16,800	4,000
해병대	28,800	2,300	6,100	20,400	400
총계	69,800	9,000	23,600	37,200	4,400

03 전력 & 작전해역

전력

	구분	주요전력
해군	수상함	130여 척 구축함, 고속함(정), 기뢰전함
	잠수함	10여 척 잠수함(정)
	항공기	70여 대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상륙기동헬기
해병대 전력	500여 대	상륙돌격장갑차, 장갑차, 전차, K-9자주포

작전해역



해안선 14,963km (휴전선의 60배)
 도서 3,358개 (유인도 482개)

04 해군 전력과 작전 : 인포그래픽으로 보기

- 01 잠수함
- 02 구축함
- 03 호위함/초계함
- 04 유도탄고속함/고속정
- 05 상륙함
- 06 기뢰전함
- 07 군수지원함/구조함
- 08 해군항공기
- 09 대잠작전
- 10 대함작전
- 11 대공작전
- 12 잠수함작전
- 13 상륙작전

잠수함 SUBMARINE

잠수함은 수중에서 활동하는 은밀성을 장점으로 대함전, 대잠전 뿐만 아니라 감시정찰 및 적 핵심표적에 대한 타격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전략 무기이다.

수상 항해 중인
214급 잠수함(1,800급)



구축함 DESTROYER

구축함은 전통적으로 대잠전을 주 임무로 하였으나 현대에는 대잠전과 대함전 뿐만 아니라 대공전 능력이 더욱 강화된 해상기동부대의 주력함이다.

2014 한태평양훈련(RIMPAC)에서 최초로 SM-II 동시발사 요격에 성공한 이지스구축함 서예류성룡함



함 명 제정 기준

함 현 황

잠수함

바다와 관련하여 국난 극복에 공이 있는 역사적 인물 또는 항일독립운동에 공헌하거나 광복 후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여 존경받는 인물

잠수함 SS-I

장보고함 / 이천함
최무선함 / 박위함
이종무함 / 정운함
이순신함 / 나대용함
이억기함

- 톤수 1,200t / 길이 56m
- 최대속력 22kts (40km/h)
- 항속거리 약 21,000km
- 승조원 40여명
- 어뢰, 기뢰, 잠대함유도탄



잠수함 SS-II

손원일함 / 정지함
인중근함 / 김좌진함
윤봉길함 / 유관순함
홍범도함 / 이범석함
신동석함

- 톤수 1,800t / 길이 65m
- 최대속력 20kts (37km/h)
- 항속거리 약 22,000km
- 승조원 40여명
- 어뢰, 기뢰, 잠대함유도탄
- 공기불요추진체계(AIP) 탑재
*Air Independent Propulsion



잠수함 SS-III

도산안창호함

- 톤수: 3,000t / 길이 83.3m
- 최대속력: 20kts (37km/h)
- 승조원: 50여명
- 어뢰, 기뢰, 유도탄
- 공기불요추진체계(AIP) 탑재



함 명 제정 기준

함 현 황

구축함

구축함 DDH-I

광개토대왕함
을지문덕함
양만춘함

- 톤수 3,200t / 길이 135m
- 최대속력 30kts (55km/h)
- 항속거리 약 8,300km
- 승조원 220여명
- 127mm 함포, 경어뢰
- 함대함 / 함대공유도탄
- 30mm 근접방어무기체계



구축함 DDH-II

충무공이순신함
문무대왕함
대조영함 / 왕건함
강감찬함 / 최영함

- 톤수 4,400t / 길이 150m
- 최대속력 29kts (54km/h)
- 항속거리 약 10,200km
- 승조원 230여명
- 5inch 함포, 장거리대잠어뢰
- 함대함 / 함대공유도탄
-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 30mm 근접방어무기체계



이지스구축함 DDG

세종대왕함
울곡이이함
서예류성룡함

- 톤수 7,600t / 길이 166m
- 최대속력 30kts (55km/h)
- 항속거리 약 10,200km
- 승조원 300여명
- 5inch 함포, 장거리대잠어뢰
- 함대함 / 함대공유도탄
-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 30mm 근접방어무기체계
- 이지스 전투체계 탑재



호위함
FRIGATE
초계함
CORVETTE

호위함/초계함은 평시 경비 및 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대함전, 대잠전, 대공전 능력을 통해 적의 해상 도발을 억제하는 우리 해역함대의 주요전력이다.

전모 일제사격 중인
1,500t급 호위함 제주함



유도탄 고속함
DESTROYER
고속정
PATROLBOAT

유도탄고속함과 고속정은 우수한 기동능력을 바탕으로 적의 NLL 침투 도발에 현장대응하는 우리 해역함대의 전초전력이다.

해성 함대함유도탄 실사 중인
400t급 유도탄고속함 박동진함



함 명
제정 기준

호위함 道, 특별·광역시, 도청소재지 지역명
초계함 市 단위급 중·소도시 지역명

함 현 황

호위함 FFG-I

인천함 / 경기함
전북함 / 강원함
충북함 / 광주함
- 톤수 2,500t / 길이 114m
- 최대속력 30kts (55km/h)
- 승조원 120여명
- 5inch
- 경어뢰, 함대함유도탄
-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 20mm 근접방어무기체계



호위함 FFG-II

대구함
- 톤수: 2,800t / 길이 122m
- 최대속력: 30kts (55km/h)
- 승조원: 120여명
- 5inch / 20mm 함포
- 경어뢰, 함대함 유도탄
- 대함유도탄방어탄
- 하이브리드 추진체계



호위함 FF

마산함 / 부산함 /
전남함 / 제주함
청주함 / 경북함
- 톤수 1,500t / 길이 102m
- 최대속력 36kts (66km/h)
- 승조원 150여명
- 76mm / 40mm 함포
- 경어뢰, 함대함유도탄



초계함 PCC

순천함 / 원주함
안동함 / 부천함
성남함 / 재천함
대전함 / 속초함
영주함 / 남원함
광명함 / 신성함
공주함
- 톤수 1,000t / 길이 88m
- 최대속력 31kts (57km/h)
- 승조원 110여명
- 76mm / 40mm 함포
- 경어뢰, 함대함유도탄



함 명
제정 기준

유도탄고속함 해군창설 이후 전투와 해전에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귀감이 된 인물
고속정 속력이 빠르고 신속한 특성을 고려하여 참수리와 같은 날렵한 조류함

함 현 황

유도탄고속함 PKG

운영하함 / 한상국함
조전영함 / 황도현함
서우원함 / 박동혁함
현시하함 / 정공모함
지덕철함 / 임병래함
홍시욱함 / 홍대선함
한문식함 / 김창학함
박동진함 / 김수현함
이병철함
- 톤수 400t / 길이 63m
- 최대속력 40kts (74km/h)
- 승조원 40여명
- 76mm / 40mm 함포
- 함대함유도탄



고속정 PKM

참수리
- 톤수 130t / 길이 37m
- 최대속력 38kts (70km/h)
- 승조원 30여명
- 40mm / 20mm 함포



신형 고속정(PKMR)

참수리
- 톤수 210t / 길이 44m
- 최대속력 40kts(74km/h)
- 승조원 20여명
- 130mm 유도로켓, 76m 함포



상륙함 AMPHIBIOUSSHIP

상륙함은 해상으로부터 목표 지역으로 상륙전력을 수송하는 임무와 국가 대외정책 지원을 위해 해외파병,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연합상륙훈련 중인
14,500t급 대형수송함 독도함



기뢰전함 MINEAWARFARESHIP

기뢰전함은 전시 적 항만 봉쇄 및 우리 항만 보호를 위해 기뢰를 부설하는 기뢰부설함과 부설된 적의 기뢰를 탐색하여 소해하는 기뢰탐색함/소해함으로 구성된다.

연합기뢰전훈련 중인
2,600t급 기뢰부설함 원산함(左)
소해구를 투하 중인 700t급 소해함(右)



함 명 제정 기준

대형수송함 고속상륙정 상륙함

대한민국 영해수호 의지를 담아 한국해역 최외곽에 위치한 도서명 고속으로 기동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슬개와 같이 민첩한 조류명 상륙 후 고지 탈환의 의미를 내포하도록 지명도 높은 산봉우리명

함 현 황

대형수송함 LPH

독도함
마라도함

- 톤수 14,500t / 길이 199m
- 최대속력 23kts (42km/h)
- 승조원 330여명
-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 30mm 근접방어무기체계
- 지휘통제함 임무수행
- 상륙병력, 전차, 헬기, LSF 탑재



고속상륙정 LSF-II

슬개

- 톤수 90t / 길이 27m
- 최대속력 40kts (74km/h)
- 승조원 5명
- 12.7mm 기관총
- 전차 1대 + 병력 24명 탑재



상륙함 LST

고준봉함
비로봉함
향로봉함
성인봉함

- 톤수 2,600t / 길이 112m
- 최대속력 17kts (31km/h)
- 승조원 120여명
- 40mm / 20mm 함포
- 상륙병력, 전차, 헬기 탑재



상륙함 LST-II

천왕봉함
천자봉함
일출봉함
노적봉함

- 톤수 4,900t / 길이 126m
- 최대속력 23kts (42km/h)
- 승조원 120여명
- 40mm 함포
- 대함유도탄방어 유도탄
- 상륙병력, 전차, 헬기
- 상륙정 및 고속단정 탑재



함 명 제정 기준

기뢰부설함 기뢰탐색함 소해함

6·25전쟁시 우리해군이 기뢰전을 수행한 북한의 지역명 해군기지에 인접한 군·읍 지역명 해군기지에 인접한 군·읍 지역명

함 현 황

기뢰부설함 MLS

원산함

- 톤수 2,600t / 길이 103m
- 최대속력 22kts (40km/h)
- 승조원 150여명
- 76mm / 40mm 함포, 경어뢰
- 기뢰부설, 헬기탑재 가능



기뢰부설함 MLS-II

남포함

- 톤수 3,000t / 길이 114m
- 최대속력 23kts (42km/h)
- 승조원 120여명
- 76mm 함포, 경어뢰
- 대유도탄방어유도탄
- 기뢰부설, 헬기탑재 가능



기뢰탐색함 MHC

강경함 / 강진함
고령함 / 김포함
고창함 / 김화함

- 톤수 450t / 길이 50m
- 최대속력 15kts (28km/h)
- 승조원 50여명
- 20mm 함포
- 기계식 소해구 탑재
- 무인기뢰차리기 (IMDV) 탑재
- *Mine Disposal Vehicle



소해함 MSH

양양함 / 용진함
해남함

- 톤수 730t / 길이 59m
- 최대속력 15kts (28km/h)
- 승조원 50여명
- 20mm 함포
- 기계식/감응식 소해구 탑재
- 무인기뢰차리기 (IMDV) 탑재



군수지원함
AUXILIARYSHIP

구조함
SALVAGE&RESCUEA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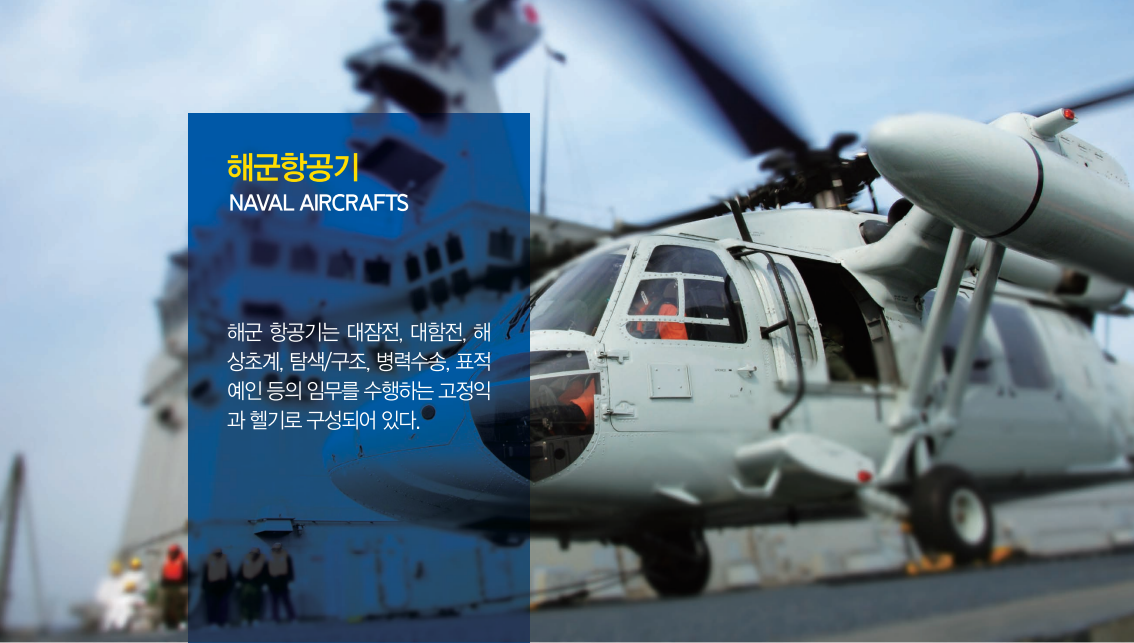
군수지원함은 해상에서 장기간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전투함정의 군수보급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구조함은 해상 사고발생시 환경과 인원에 대한 구조임무를 수행한다.

인양작전 중인 3,200t급 잠수함구조함 청해진함(上)
해상 유류공급 중인 4,200t급 군수지원함 천지함(下)



해군항공기
NAVAL AIRCRAFTS

해군 항공기는 대잠전, 대함전, 해상초계, 탐색/구조, 병력수송, 표적예인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고정익과 헬기로 구성되어 있다.



**함 명
제정 기준**

군수지원함
잠수함구조함
수상함구조함

함 특성(유류 침수 적재) 고려 담수량이 큰 호수번호
해양력 확보와 관련하여 역사적 인지도가 높은 지역명
해안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명

함 현 황

군수지원함 AOE	천지함 대청함 화천함	- 톤수 4,200t / 길이 133m - 최대속력 20kts (37km/h) - 승조원 130여명 - 40mm / 20mm 함포 - 유류, 탄약 보급지원 가능	
군수지원함 AOE-2	소양함	- 톤수 10,000t / 길이 190m - 최대속력 24kts(44km/h) - 승조원 140여명 - 근접방어무기체계 - 대항유도탄기만체계	
잠수함구조함 ASR	청해진함	- 톤수 3,200t / 길이 102m - 최대속력 18kts (33km/h) - 승조원 140여명 - 심해구조잠수정(DSRV) - 209급 잠수함 인양 가능 *Deep-Submergence Rescue Vehicle	
수상함구조함 ATS-II	동영함 광양함	- 톤수 3,500t / 길이 107m - 최대속력 21kts (38km/h) - 승조원 120여명 - 20mm 함포 - 항모급 예인 및 - 최대 300톤 인양 가능 - 헬기탑재 가능	

**항공기명
제정 기준**

항공기의 종류 임무를 지칭하는 특정 문자 및 숫자로 제정되며
항공기의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별칭을 부여함

**항 공 기
현 황**

해상초계기 P-3C	Orion - 대잠전 / 대함전 및 해상초계 - 공대함유도탄, 경어뢰 - 최대속도 약 400kts(750km/h) - 체공시간 14시간	
표적예인기 Caravan-II	- 대공표적 예인, 인원이송 - 최대속도 약 200kts(380km/h) - 체공시간 7시간	
해상작전헬기 LYNX	- 대잠전 / 대함전 및 해상초계 - 공대함유도탄, 경어뢰 - 최대속도 약 160kts(309km/h) - 체공시간 2.8시간	
해상작전헬기 AW-159	- 구조, 병력 / 화물공수 - 최대탑승인원 11명 - 최대속도 약 120kts(230km/h) - 체공시간 2.4시간	
해상기동헬기 UH-60P	Black Hawk - 탐색, 구조, 병력 / 화물공수 - 최대탑승인원 13명 - 최대속도 약 180kts(337km/h) - 체공시간 4.5시간	
해상기동헬기 UH-1H	Huey - 탐색, 구조, 병력 / 화물공수 - 최대탑승인원 11명 - 최대속도 약 120kts(230km/h) - 체공시간 2.4시간	

대잠작전

Anti - Submarine Operation

수중에서 은밀히 침투하는 적 잠수함을 조기에 탐색·격멸함으로써 적 잠수함의 공격으로부터 우군 세력들을 보호하고 해상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상어 어뢰

해상초계기 / 헬기 및 수상함에서 발사하여 적 잠수함을 공격하는 한국형 경어뢰이다.

해상초계기(P-3)

해상을 초계하며 소노부이를 수중에 투하, 적 잠수함을 탐지, 공격한다.

해상작전헬기(Lynx)

디핑소나라고 하는 수중음파 탐지기를 이용, 단시간에 적 잠수함을 탐지, 공격한다.

홍상어 어뢰

미사일 형태의 어뢰로 함정에서 발사하여 잠수함 주변 해역에 착수한 뒤, 어뢰가 되어 잠수함을 탐지, 공격한다. 함정이 원거리에서 안전하게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예인소나

원거리 수중표적을 조기에 탐지, 추적, 식별하고 표적기동을 분석하는 소나이다.

선저소나

수상함 선저에 설치된 소나에서 수중으로 음파를 발사한 후 반사되어 오는 음파를 분석하여 적 잠수함을 탐지한다.

소노부이

수중으로 음파를 발사 하거나 스크류 소음을 청취하여 적 잠수함을 탐지한다.

디핑소나

헬리콥터에 탑재된 소나 케이블을 수중으로 내려 원하는 심도의 수중에 위치시켜 잠수함을 탐지하는 소나.

잠수함(SS)

수중에서 적 잠수함을 탐지·식별하고 공격한다.

북한 잠수함(로미오급)

50년대 소련이 설계 제작한 잠수함으로 북한은 20여 척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함작전

Anti - Surface Operation

이군의 해양사용을 거부하려는 적의 수상전투세력 및 군수지원 선박 등을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는 작전이다.

해상초계기(P-3)

적 수상세력을 조기에 탐지하여 이군의 공격을 유도하며 대함미사일(하푼)을 탑재하여 직접적인 대함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해상작전헬기(LYNX)

대잠탐지 임무는 물론 대함 미사일(시스쿠아)을 탑재하여 적 함정에 직접적인 공격이 가능하다.

해성 미사일

약 150km 거리 내 적 수상세력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유도탄이다.

구축함(DDH)

360도 전방위 감시체계를 자랑하며 대함, 대잠, 대공 등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는 군함이다.

후위함(FF)

대함, 대잠, 대공 전투 기능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모든 함포가 컴퓨터와 레이더 추적을 통해 자동으로 통제되는 첨단 공격력을 갖고 있다.

유도탄 고속함(PKG)

함대함 유도탄 및 함포를 탑재하고, 뛰어난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해 경계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전자전 장비로 구성된 지휘무장 통제 체계를 탑재해 실내에서 모든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이지스 구축함(DDG)

이지스 체계를 탑재하여 대수상점, 대잠전, 대공전을 동시에 수행한다. 기동전단 및 호송선단에 대한 해역대공방어 및 방공엄호를 제공하고 해상항공작전지휘소(MASOC) 임무를 수행한다.

05 중거리 유도탄 & 미사일, 표적 및 레이더 추적용 미사일

대공작전

Anti - Air Operation

적 항공기 및 미사일 등 공중비행체를 조기에 탐지, 식별하여 파괴 또는 무력화 시키는 작전이다.

RAM 미사일

1단계 SM-2 방어막을 통과한 적 항공기나 순항 미사일은 2단계 램[RAM] 미사일이 요격하며, 최대 9.6km 떨어진 곳에서 적 항공기 등을 격추시킬 수 있다.

적 IL - 28 폭격기

북한의 주력 폭격기로 폭격전대를 이루어 운용하고 있다. 동체 안의 폭탄창에 최대 3천kg의 폭탄 또는 어뢰나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다.

SM - 2 미사일

수직발사기에서 발사되며, 약 150km 내에서 접촉한 공중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다.

적 미그 29

북한의 최신에 전투기로 20여 대 보유

SPY - 1D 레이더

선체 4면에 고정돼 항상 360도를 커버하며, 최대 약 1천km 내에서 접촉한 표적 1천개를 동시에 찾아내고 추적하며, 20개의 목표물에 대해 동시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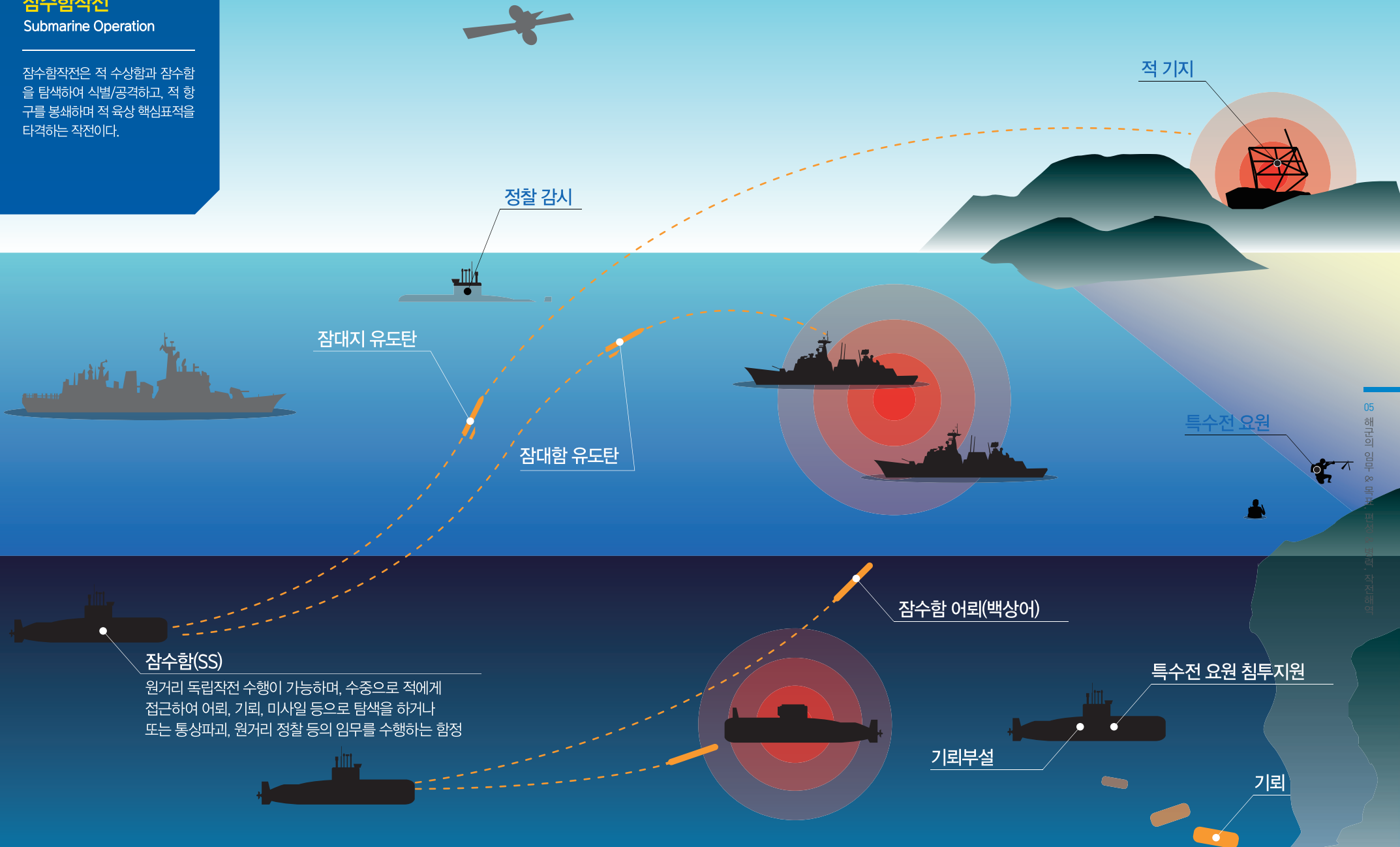
이지스 구축함(DDG)

일명'신의 방패'로 불리는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하고 있으며 대함, 대공, 대잠, 대지, 대탄도탄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작전

Submarine Operation

잠수함작전은 적 수상함과 잠수함을 탐색하여 식별/공격하고, 적 항구를 봉쇄하며 적 육상 핵심표적을 타격하는 작전이다.



잠수함(SS)

원거리 독립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수중으로 적에게 접근하여 어뢰, 기뢰, 미사일 등으로 탐색을 하거나 또는 통상파괴, 원거리 정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

상륙작전

Amphibious Operation

함선 또는 항공기에 탑승한 해군 및 상륙군이 적 중심파괴, 전진기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해상으로부터 육상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군사 작전이다.

대형기동헬기(CH-47)

상륙작전시 주로 병력 및 장비수송의 임무를 담당한다.

해상기동헬기(UH-60)

상륙작전 시 주로 병력 수송의 임무를 담당한다.

대형수송함(상륙작전지휘통제함)

대형비행갑판을 보유하고 있어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며 전차, 자주포 등 중장비와 상륙군을 수송한다. 작전시 지휘통제를 할 수 있는 지휘통제 시설 및 장비와 공간이 구비되어 있다.

함포 지원사격

고속 상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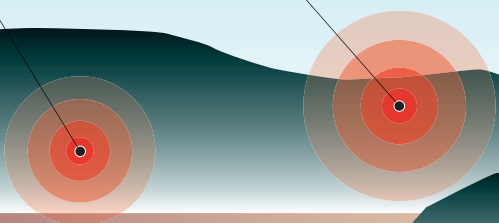
육상 및 해상에서 압축공기로 선체를 부양시켜 이동한다. 중장비와 병력 수송이 가능하며 50노트(90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다.

수송기(C-130)

적 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투하하는 데 활용한다.

적 해안방어 지상군

적 레이더 기지



상륙돌격 장갑차(KAAV)

육상과 해상에서 기동이 가능하며 함정에서 육상으로 병력과 경장비를 수송하는 데 활용한다.



대한민국해군
REPUBLIC OF KOREA NAVY